

MONTHLY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식) 라-26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90년 6월 15일 발행 ■ 통권 254호 ■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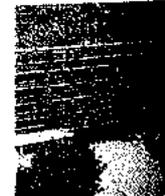
나라

10여년간의 !넘해왔습

간 오직 우리나라
건축용 한길만

열재, 세라믹화
나라 무기재료
!축재, 산업재료

신소재 분야
!있습니다



라크울-시리가-스퀘드



코트-마이돈동



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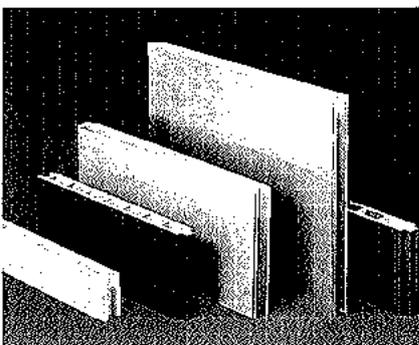


트유리, 색유리, 자동차양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인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붕도 / 건축물의 외벽, 칸막이, 계단, 도로면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최고의 오피스빌딩을 만드는 명품창문, 이견창호

시공사례—오피스빌딩편

빌딩 외관이 달라지고 있다.
 독특한 조형미를 갖춘 빌딩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빌딩에서 받는 느낌과
 기업의 이미지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까?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창문,
 '그룹 조형' 빌딩은 독특한 창문 디자인으로
 외관에 변화를 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존 창문의 틀을 과감히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의 요구 그대로를 수용해내는
 이견창호의 기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이견창호는 최적의 사무공간을 만듭니다.

디자인·소재에서/이견창호는 형태와 크기, 소재 결합이 자유롭고 알루미늄질과 목재의 종류가 다양해 건물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음·보온에서/이견창호는 이중유리와 밀폐성높은 가스켓, 열전도를 차단하는 신소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정밀 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비싼 소음의 차단 효과가 큼니다.
환기·개폐에서/이견창호는 개폐방식이 독특하여 환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에서/이견창호의 이중유리와 8개의 잠금장치, 독특한 기어시스템은 사무실 문단속을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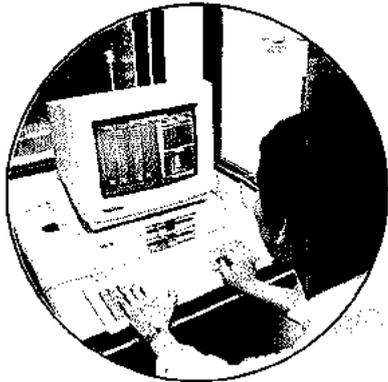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2071 ~ 9 FAX :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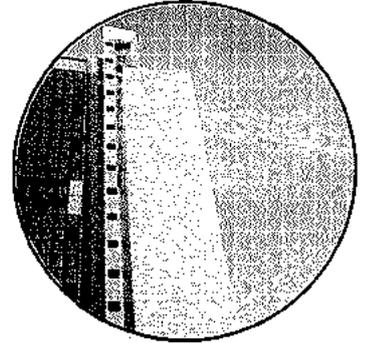


이견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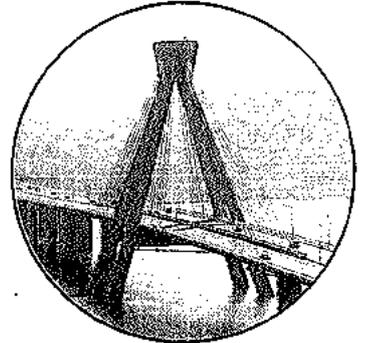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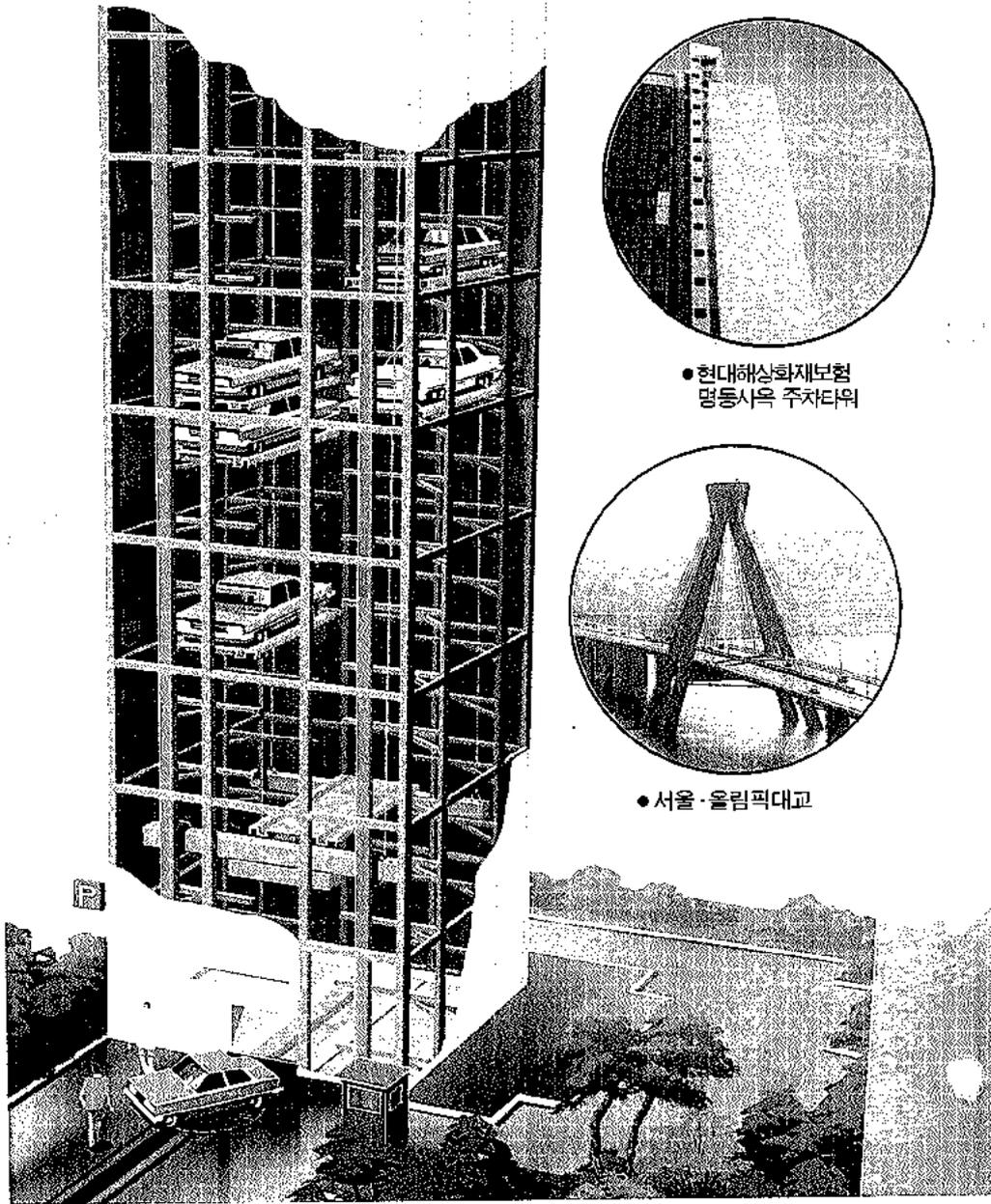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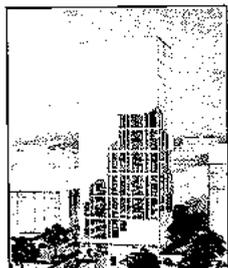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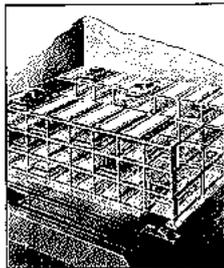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문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P-A연립형



YOP-M형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문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펍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선언! 21세기 신건축문화 창조

인슈파넬시스템



■ 인슈파넬 시스템이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우수한 건축자재로서 Expanded poly-Styrene(ESP)에 우수한 재질의 Pre-coated Steel을 특수접착방식으로 라미네이팅한 Sandwich type 강도높은 조립식 단열 파넬입니다.

(인슈파넬 완공전경)

(인슈파넬 시공전경)

■ 인슈파넬의 특징점

- 에너지절감 / 붉은 벽돌의 21.5배나 되는 단열효과로 냉·난방비를 30%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선택 / 건물용 용도 기능 및 수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 견고하며 다양한 마감 / 매우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강하고 난연성이 탁월하며 간단한 기초 구조물로도 고강도의 견고성이 유지됩니다.
- 공시기간 단축 / 원진조립식 구조로 신속한 설치,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하므로 시공기간 및 시공비를 단축시킵니다.
- 원박한 빔수·빔승 / 습기흡수율이 제로(0)에 가까운 EPS를 사용 결합부분의 기밀이 철저하므로 완벽한 방습·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 고도의 위생성 / 표면에 특수처리되어 변하지 않고, 썩, 벌레가 서식할 수 없으며, 물세척도 가능하여 항상 깨끗합니다.

■ 인슈파넬의 용도

1. 일반 산업용 공장
일반공장, 기계공업공장, 섬유방직공장, 식품공장, 성냥기계공장.
2. 크린룸
부품·무진실, 항온항습실, 병원 수술실, 의약품 제조실, 전자반도체공장.
3. 냉동·냉장 저온 창고
냉동·냉장 급속 동결실, 방열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품저장고.
4. 주거시설
조립식주택, 기숙사, 군막사, 별장 및 방카로.
5. 공공시설
화물터미널, 체육관, 지하철역사, 강당, 복지시설, 각종 집회 시설, 위탁시설.
6. 기타시설
사무실 내부패티션, 도어, 상점, 이동사무실, 토건판매대, 경비초소, 화장실, 각종 건축물, 부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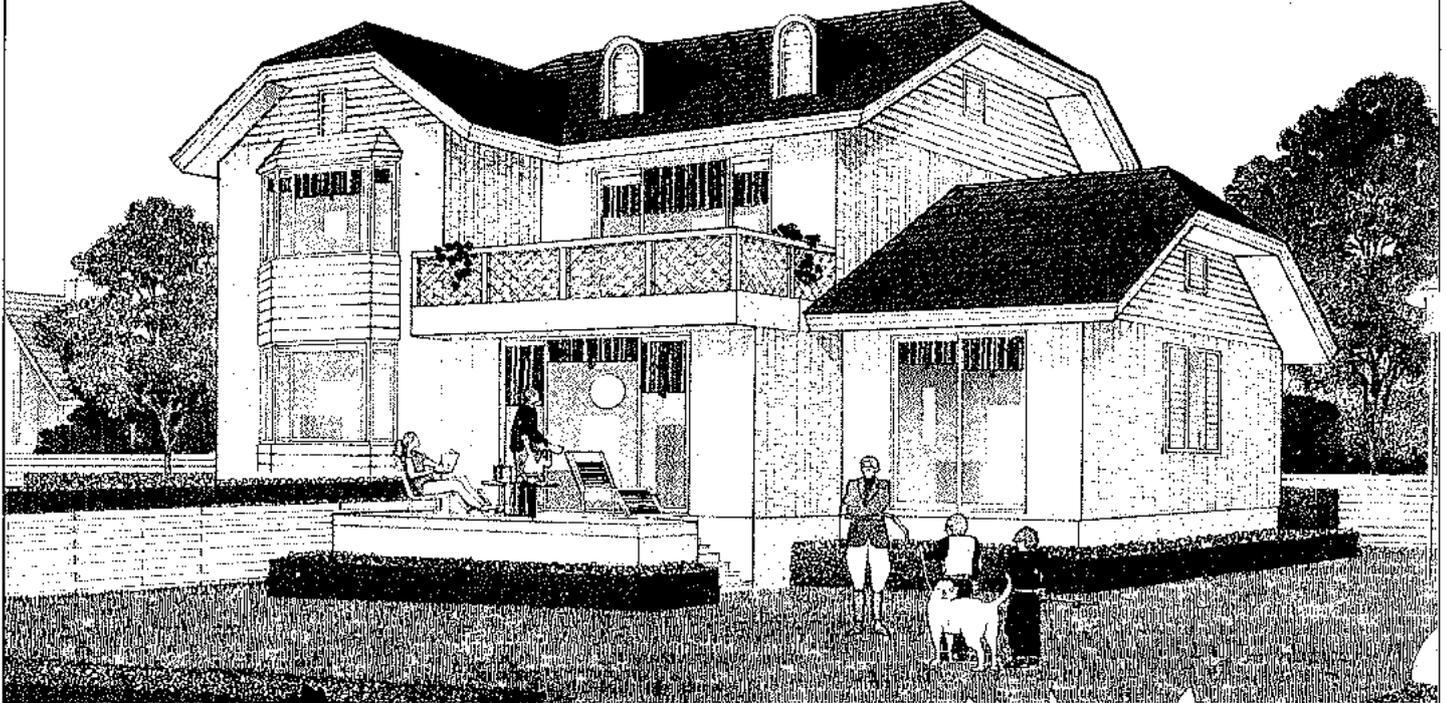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시범공장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39-2
T E L : (02) 745-0687, 이점 : (0336) 32-4635~6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3-6연합인슈빌딩
T E L : (02) 555-5291, FAX: 553-1651

한국에 온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Manville 독점 수입판매권자 (Exclusive Agent) 인 동림산업이 개성있는 주택을 꿈꿔오신 분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130년 전통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 다양한 패턴, 아름다운 색상으로 한국에 지붕재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시대를 선언합니다.



삼익 세라믹 판넬 외벽재와 맨빌 칼라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를 사용한 양재동 빌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

가드레일, 가드케이블등의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등을 제작·판매해오던 東林이 신규 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산업기계, 토목, 무역, 주문주택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을 주목 하십시오.

칼라아스팔트 싱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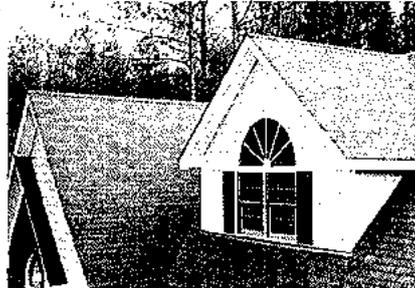
아름다운 외관과 간편한 시공으로 독특한 주택의 미를 살려 주는 칼라아스팔트 싱글은 경제성은 물론 내구성도 뛰어난 유럽풍의 고급 지붕재입니다. 최고급 빌라, 고급주택, 골프장, 클럽하우스, 영입용 건물, 별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주택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맨빌의 칼라아스팔트 싱글이 우리나라 주택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미국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anville

130년 역사를 지닌 ROOFING SYSTEM 전문업체인 MANVILLE은 지붕재 분야에서 쌓은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로 아름다운 색상, 다양한 패턴의 칼라아스팔트 싱글만을 생산함으로써 미국의 아스팔트 싱글 시장을 이미 석권 했습니다.

"맨빌의 명성" - 역시 최고임이 입증됩니다.

1. 맨빌은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붕재 전문회사
2. ROOFING SYSTEM 전문회사인 대형 다국적기업
3. 미국 UL마크를 획득한 보증할수 있는 제품.
4. 25년이상 장기간 품질보증
5. 최상의 화이버글라스 함유로 뛰어난 내구성
6. 미국시장을 이미 석권한 최고급 세라믹 화이버글라스 싱글
7. 완벽한 책임 시공 팀 운영, 전국적인 직영관에
8. 전문건설업, 감리 무역업, 무역대리업 등록 및 제조업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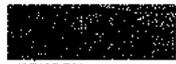
다양한 칼라, 다양한 패턴 - 맨빌

- ☐ WOODLANDS PREMIER
- ☐ WOODLANDS
- ☐ FIRE KING
- ☐ ADVANTAGE 25
- ☐ WEATHER-SEAL
- ☐ FIRE GLASS III

주요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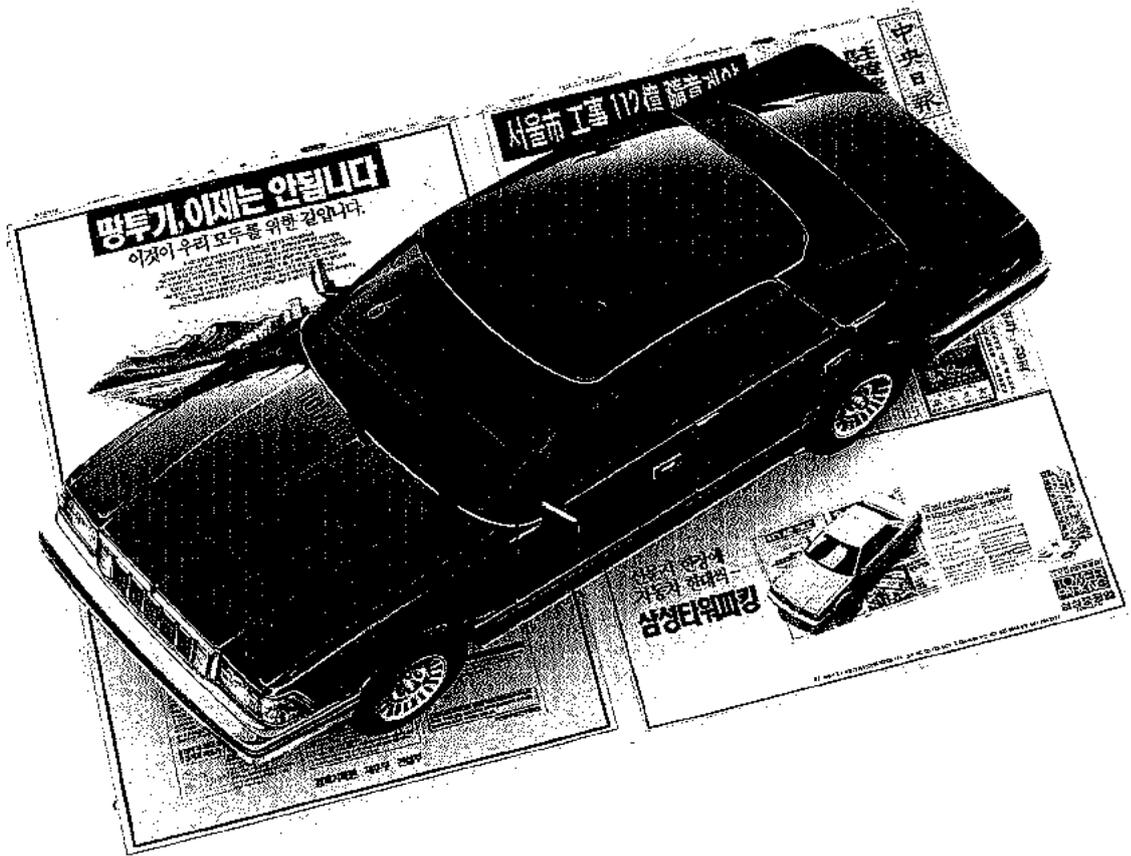
철구조물, 철골제작, 산업기계 제작 및 수출, 토목공사, 아스팔트 싱글등 건축자재 수입, 주문주택사업

COLOR SELECTION

-  SHAKEWOOD TAN
-  HICKORY
-  BROWN BARK
-  CAMBRIDGE GRAY
-  TUDOR BLACK
-  COUNTRY SLATE



특수사업부: 강남구 삼성동154-15 (진술빌딩4층)
TEL: 557 - 1514, 563 - 1431 ~4
FAX: 563 - 1435



신문지 한장에 자동차 한대씩— 삼성타워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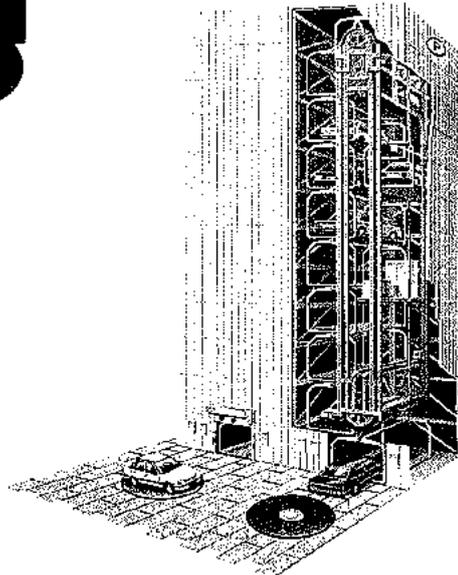
**국내최초로 초고속형, 텐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크 개발!**

10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삼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의 주차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1. 공간이용의 극대화 실현
2. 다양한 기종
3. 컴퓨터로 제어되는 완전주차
4. 국내최고의 기술과 실적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텐테이블 내장형, 이중탑재형 ◦엘리베이터방식
- 다중순환방식 ◦2,3단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싣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 이동시키면서 입고·출고 하는 방식입니다.

1. 초고속형: 입,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텐테이블 내장형: 전, 후, 좌, 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파레트 하나에 2대주차

■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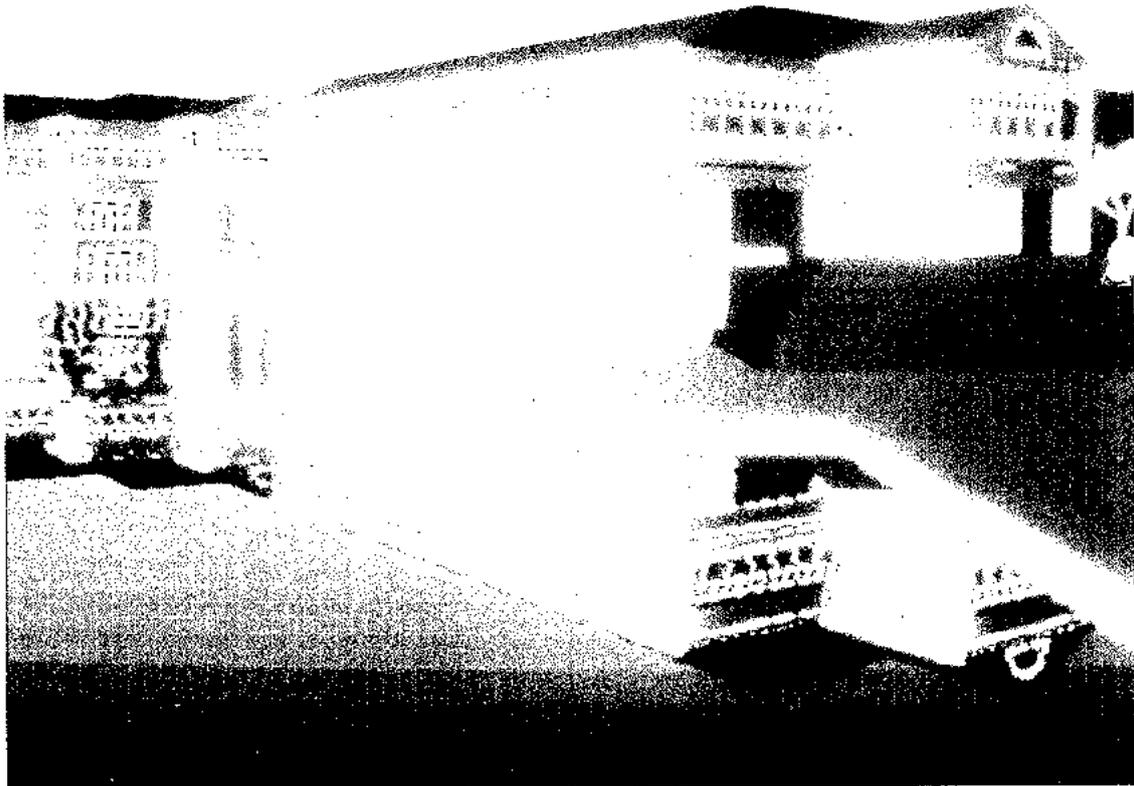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고속으로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방식 (횡식, 종식)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완벽지원, 완벽CAD 썬알파-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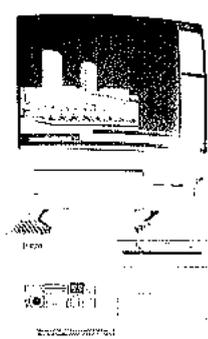
썬파워386과
ARRIS의 만남.

썬알파-플러스 TURNKEY-SYSTEM의 특징

- **HARD WARE FEATUR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서통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그래픽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범 DRAFT전용의 2D-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 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문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효율성, 다양한 기술
 개발등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 **지원분야**
 썬알파-플러스는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 **범 DRAFT전용 S/W**
 Auto CAD, VERSA CAD, MICRO CAD,
 Micro Station
D/A (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기확설계
W/P (Word Processor)
 각종 시방서, 보고서등 문서작성용 S/W

ARRIS의 특징

- 건축 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식
 SEQUENCE로 지원
- XENIX O/S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 극복
- 화면 MENU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등 완벽한 3-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으로 완벽한 음영 CHECK 가능 보유(일조건)
- 건축자료의 DATA BASE화로 입력에 의한 기술 누수 방지
- 2D, 3D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 등
 SYMBOL 지원
- 1,600만 컬러 제공 및 신속한 컬러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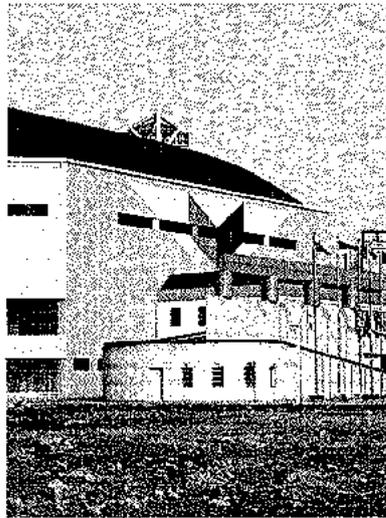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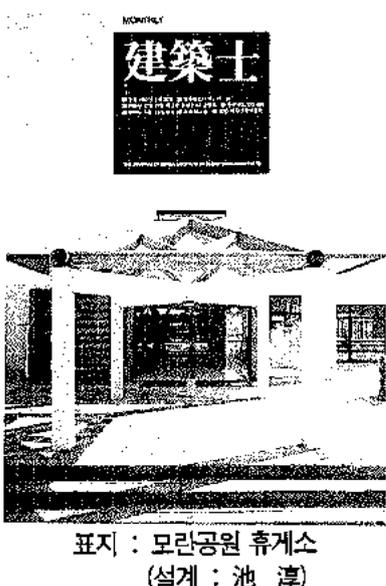
- 국내실정에 알맞는 Detail Library 및
 건축자료 표준화를 위한 기법제공 예정
-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의 완벽한
 교육지원

차례/1990년 6월호 통권 제254호

會員作品	청담동 D빌딩/朴容秀+郭成文	12
	모란공원 휴게소/池 淳	15
	海印齋/金琪碩	18
	목동 실내빙상경기장/文政一+任亨宰	22
	목동청소년회관/李丞雨	24
나의 스케치	채구성/董政根+朴研心	26
寄 稿	대형건물을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관하여 /元鍾一	27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지표에 관한 고찰/嚴泰佑	28
研 究	한국의 전통건축 朝鮮시대의 建築/張慶浩	30
	일본의 현대건축과 해체적 경향/金文德	40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張順鏞	52
	獨逸의 現代建築을 찾아서/閔相忠	58
	도시가로경관에서의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1) /徐輔光	66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4)/金正泰	73
	主從의 絶妙한 結合/韓東洙	82
新入會員		89
資 料	1990년 4월분 도서신고 현황	90
協會消息		92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0612(519)
 印刷人: 全允珪/洗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l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m/ Choi, Myung-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WORKS	<i>Chungdam-dong D' Building/Park, Yong-Soo & Kwak, Sung-Moon</i>	12
	<i>Moran Park Cemetery Resting Place/Gi, Soon</i>	15
	<i>Haerin-jae/Kim, Ki-Seok</i>	18
	<i>Mok-dong Indoor Ice Rink/Moon, Jung-Il & Yim, Hyung-Jae</i>	22
	<i>Mok-dong Youth Center/Lee, Seung-Woo</i>	24
MY SKETCH	<i>Decompose/Dong, Jung-Keun & Park, Youn-Sim</i>	26
CONTRIBUTION	<i>/Won, Jong-Il</i>	27
	<i>/Eom, Tae-Woo</i>	28
REPORT	<i>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Chang, Kyung-Ho</i>	30
	<i>Deconstructive Tendency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i>	
	<i>/Kim, Moon-Duck</i>	40
	<i>Example of H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i>	
	<i>/Jang, Soon-Yong</i>	52
	<i>Modern Architecture in West Germany/Min, Sang-Choong</i>	58
	<i>A Study on the Method of Exterior Color Planning of Building</i>	
	<i>in the View of Urban Street/Suh, Bo-Kwang</i>	66
	<i>A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4)/Kim, Jeong-Tai</i>	73
	<i>Overseas Architecture Report-Taiwan/Han, Dong-Soo</i>	82
NEWLY ADMITTED MEMBER		89
MATERIALS		90
KIRA NEWS		92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5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65-05, 604-7168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소 / 종로구청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 / 마포구 성사동275-1, 333-5251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 / 중구로2가49-1L279-1415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 / 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직분소 / 동직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앙분소 / 중앙구북1동171-12, 973-4921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가(부산대파트내) (051) 246-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 풍동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1) 47-6129~30 ·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8, (031) 42-6190, 7072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1034312-268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민미동74-6,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동5512,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외정부동182, (0351) 1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광동21, (0333) 14-6153 · 고양분소 / 고양구원당유류교리38블럭16북트, (0344) 63-83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관아천유동리276-8, (0336) 1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갈산동404-7, 682-2875 · 인천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82-2828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1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134-3367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0441) 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외림동8-8,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132-990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1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134-336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수송동635-5(대북빌딩508), (0652) 87-6007 ·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553) 1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가10-11,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5-2,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신화관) (0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 / 목포시대인동1,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상천동51-11(0661) 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 1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 동인동171285번지, (053) 42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43-22, (0542) 44-6029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3-3638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52-6351 · 약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2-5703 ·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 2-2541 · 영주분소 / 영주시효천2동295-2, (0572) 2-4566 · 경춘분소 / 점촌시중앙동280-3, (0581) 2-2706 ·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2-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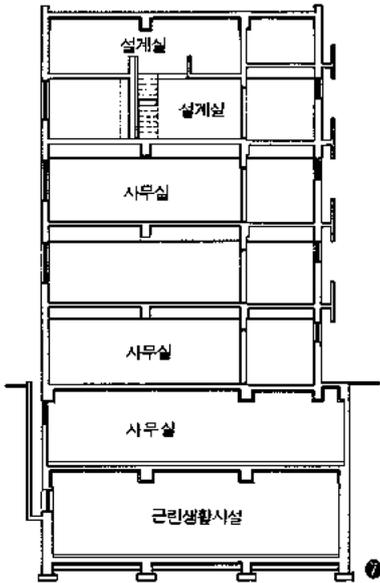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북성동7-20, (0591) 2-6403 · 창원분소 / 창원시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무원동24B-10L, (0594) 2-6114 · 밀양분소 / 밀양관산문동184-108,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농암리274-3, (0598) 2-7090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대방리522-4, (0523) 84-3050 · 거제분소 / 거제군산현읍고리리39-2, (0558) 84-3432, 2-3372 ·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동명동91-6(0593) 2-3591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 32-7777

청담동 D 빌딩

Chungdam-dong D'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0-2
 대지면적/357.3m²
 건축면적/178.4m²
 연면적/1,169m²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지역·지구/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미관지구(4종)
 주요마감/THK 30 화강석 물갈기(보경석+황등석),
 AL - Flvrdon 커튼철+
 12mm 복층유리 Drivit



朴容秀+郭成文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우건축
 Designed by
 Park, Yong - Soo &
 Kwak, Sung - Moon



■ 설계소모

청담동 패션거리의 한쪽에 들어선 본 건물은 높은 지가와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패션가라는 지역적 특성을 수렴하여 강한 개성을 연출해 내도록 계획하였다. 다만 가로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지역 고유 환경에 부응하도록 최대한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설계에 임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양쇼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역의 성장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건물 축을 가로와 직교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중심으로 향한 또하나의 인위적인 축이 내재되도록 하였다.

1·2층 공간은 패션관계의 상점을 유지하고, 3·4층에는 사무실 기능을 수용토록 계획하였으며, 평면구성은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의도하였다. 그리고 보행자와 접촉되는 1층부의 Glass Box 부분은 몇개의 코너로 구분하여 쇼룸과 그밖의 출입기능으로써 충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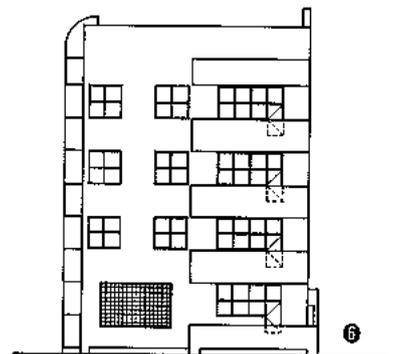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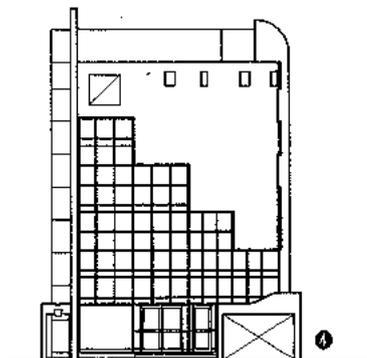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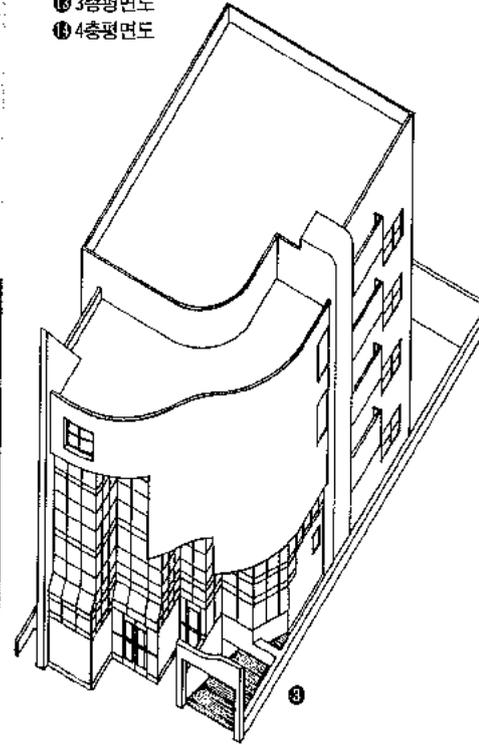
건물의 전면부는 상하를 연결하는 동선공간과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유공간으로서 1층과 2층 사이에 개방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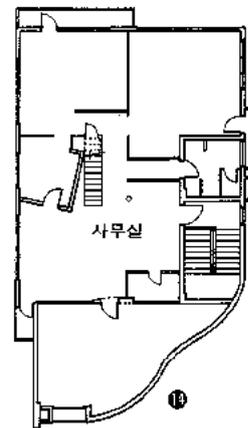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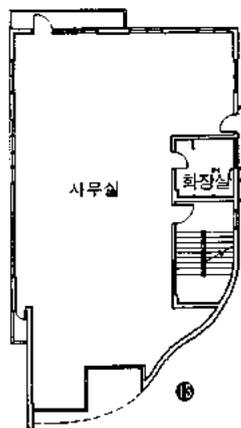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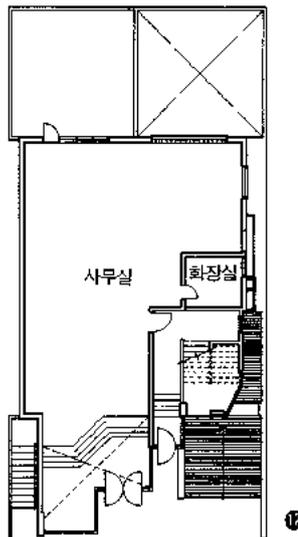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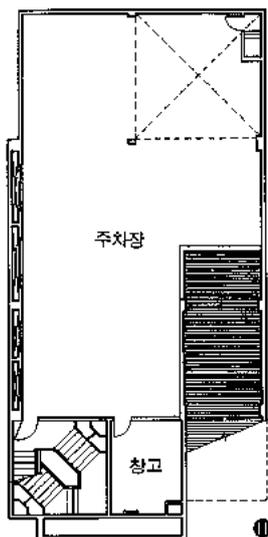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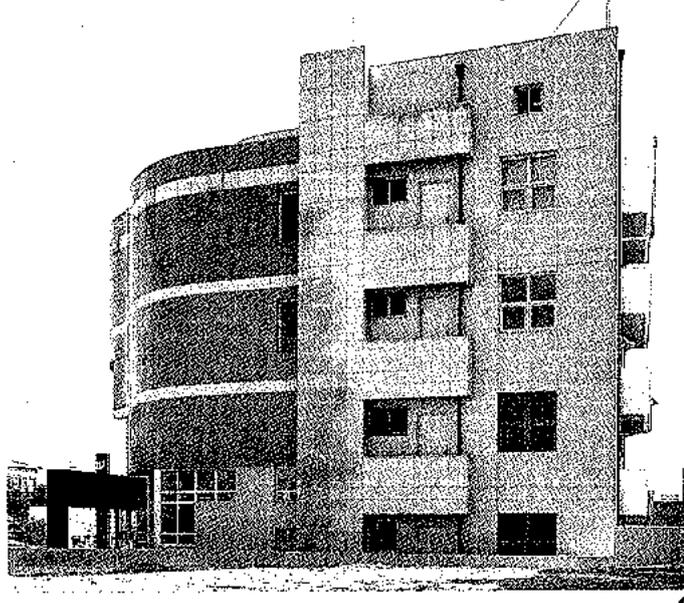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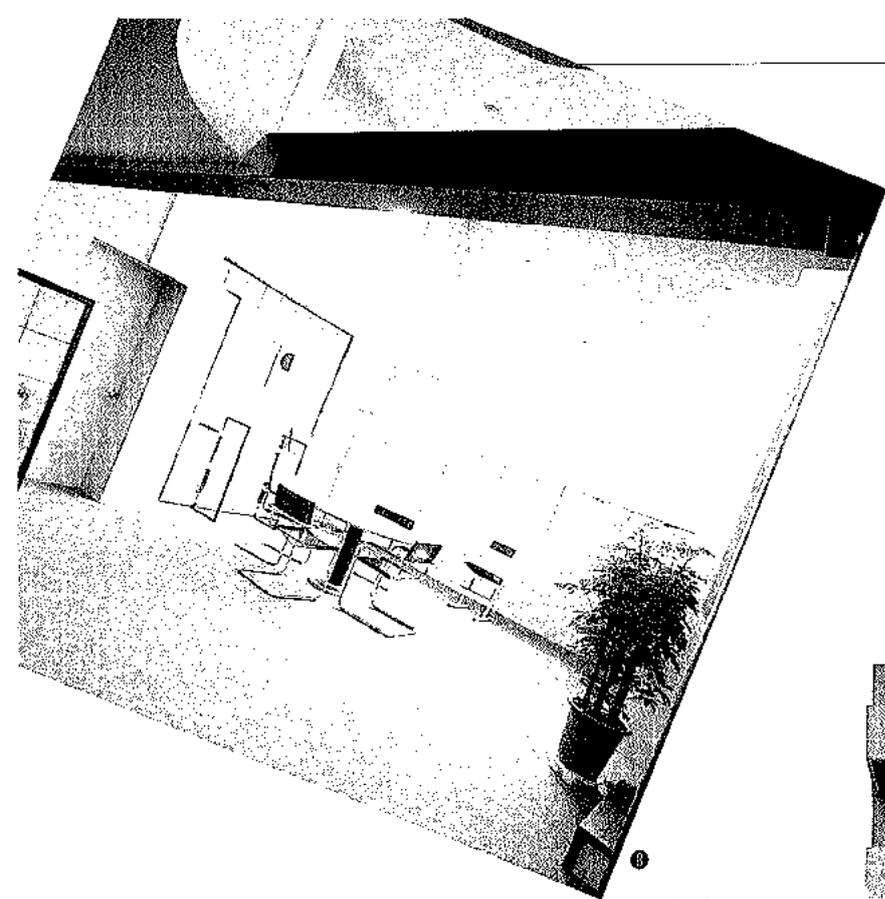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에서는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이곳으로의 접근방법으로써 차량과 보도이용의 스케일을 동시에 표현해 내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매스와 입면결정의 주 안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따라 가로변에 대해 노출된 전면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설정하였으며, 접지면으로부터 각 기능별로 덩어리를 파먹어 들어가는 형식의 안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기능별 요구에 따라 상층부는 2개층을 하나의 매스로 처리하였고, 하층부는 투명한 유리덩어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부의 매스는 부드러운 곡면으로 처리하였고, 하부의 Glass Box는 보행자도로와 접한 몇개의 기능적 Box로부터 상층부를 향해 뻗어나가도록 계획하였다.



- ① 4층설계실
- ② 전경
- ③ 엑소노메트릭
- ④ 북측정면도
- ⑤ 서측입면도
- ⑥ 배면도
- ⑦ 단면도
- ⑧ 설계실 내부
- ⑨ 서측전경
- ⑩ 정면전경
- ⑪ 지하층 평면도
- ⑫ 1층평면도
- ⑬ 3층평면도
- ⑭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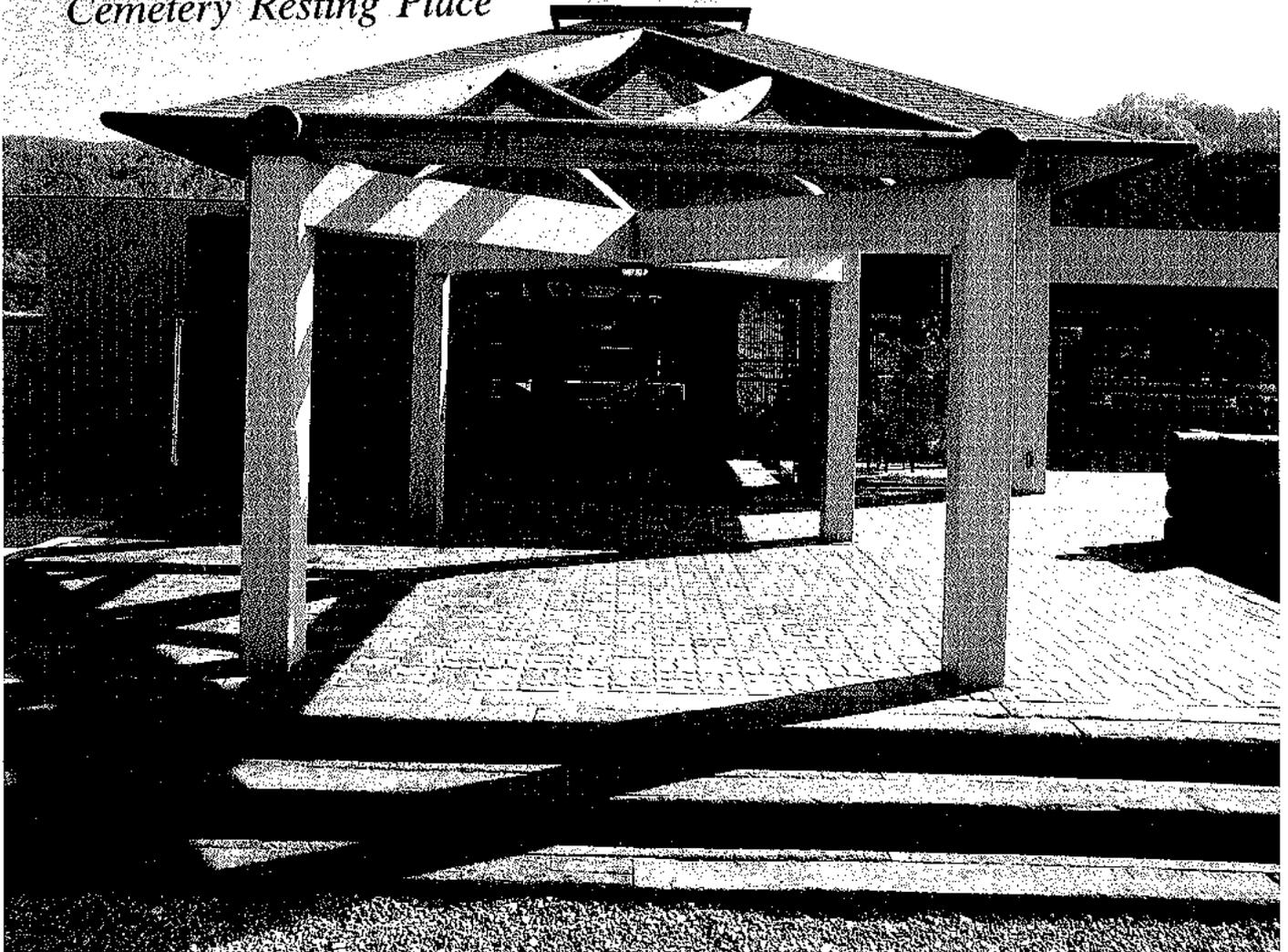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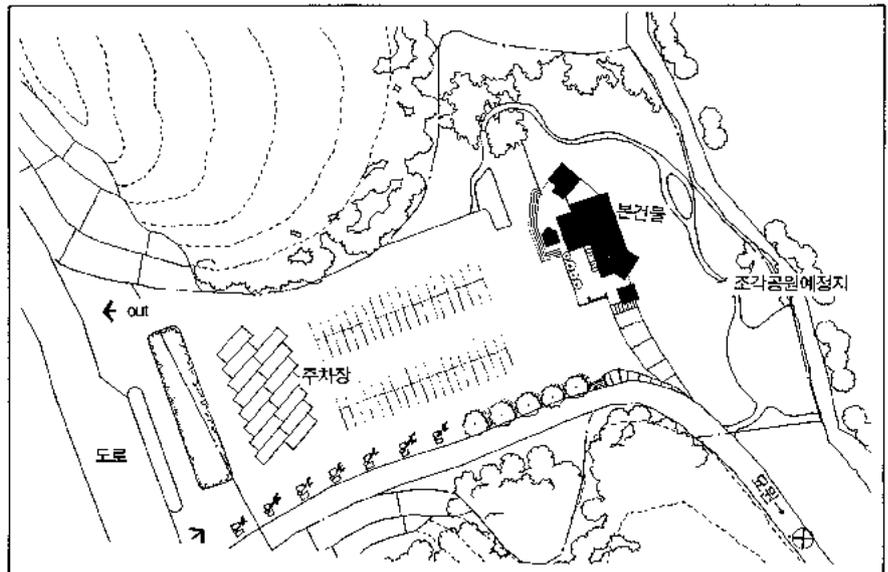
0 1 2M

모란공원 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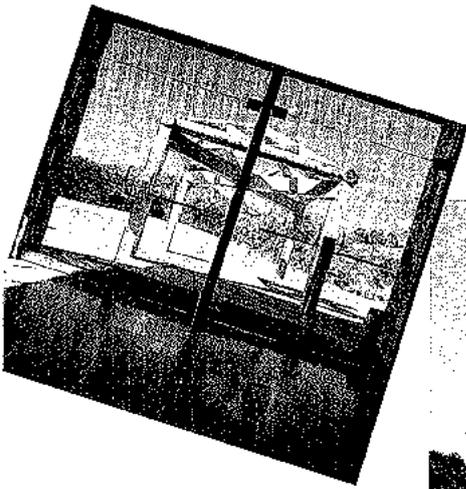
Moran Park
Cemetery Resting Place



대지위치/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월상리
 대지면적/12,261㎡
 건축면적/410.4㎡
 연면적/557.18㎡
 건폐율/3.35%
 용적률/4.54%
 규모/지상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목조
 외부마감/몰탈위 수성페인트, 일부 노출목조



池 溥/(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Gi, Soon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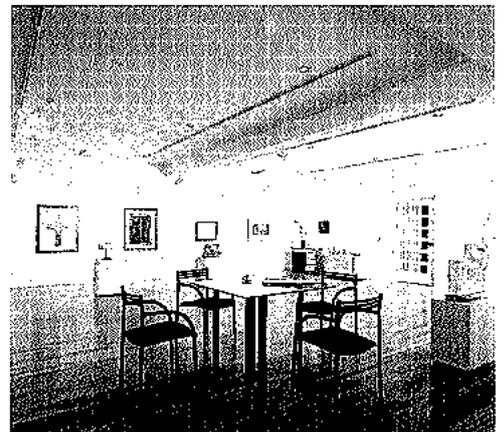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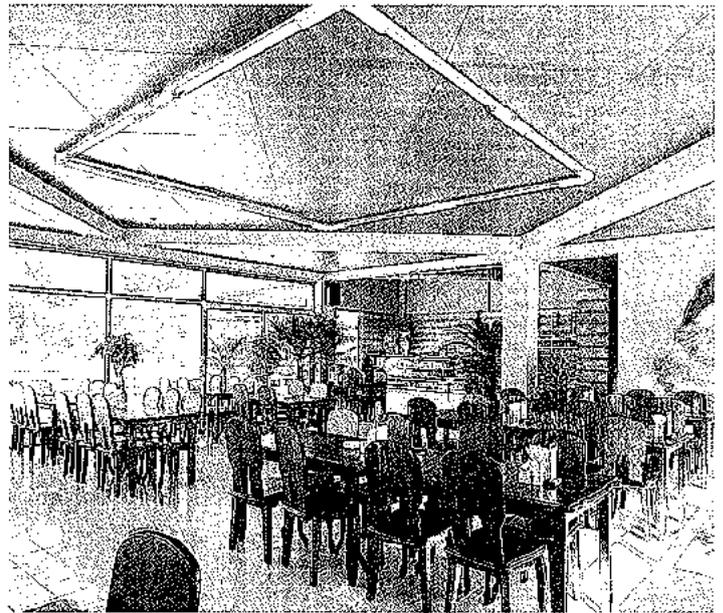
드라이브 코스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춘가도인 구리시를 지나 한국최초의 공원묘지로 유명한 모란공원 묘지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곳곳에 야외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실내에 전시공간도 갖추고 있는 모습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휴게소들과는 색다른 감각을 남기게 한다. 아늑한 주변형세는 양택본과 음택본의 풍수지리설에 따른 대지 양옆에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가 음택본을 말하는 듯 하며 이를 확인이나 하듯 인접대지 전체가 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으로 뻗은 고속도로와 요란한 양옥(?)으로 변모한 농가들 사이를 달리는 차창밖에는 옛시골 정취에 멈추어 마음주고 쉬고 갈 곳이 차차 없어져 간다. 토담에 둘러쌓인 톰으로 솟아보이는 농가 지붕은 구수한 토속냄새에 아늑함을 유혹하는 듯하다. 톰나무로 둘러치고 마당을 만들고, 옛지붕은 아니지만 나란히 밀어져 가면서 주위산과 어울리게 했다. 또한 화장실은 별채로 하고 뒷마당에 정자를 두어 주위 무덤을 양택의 산세와 지세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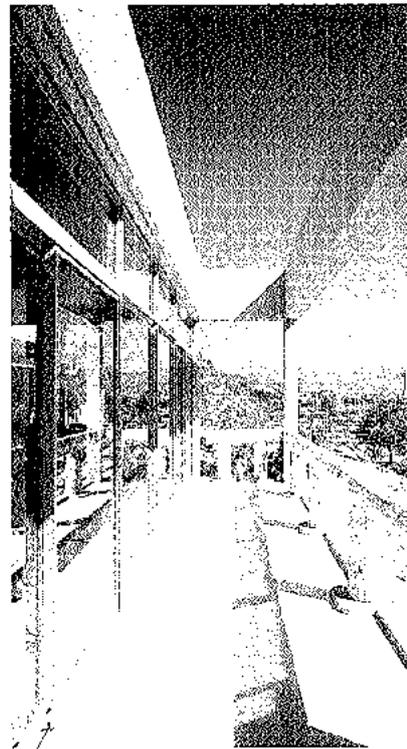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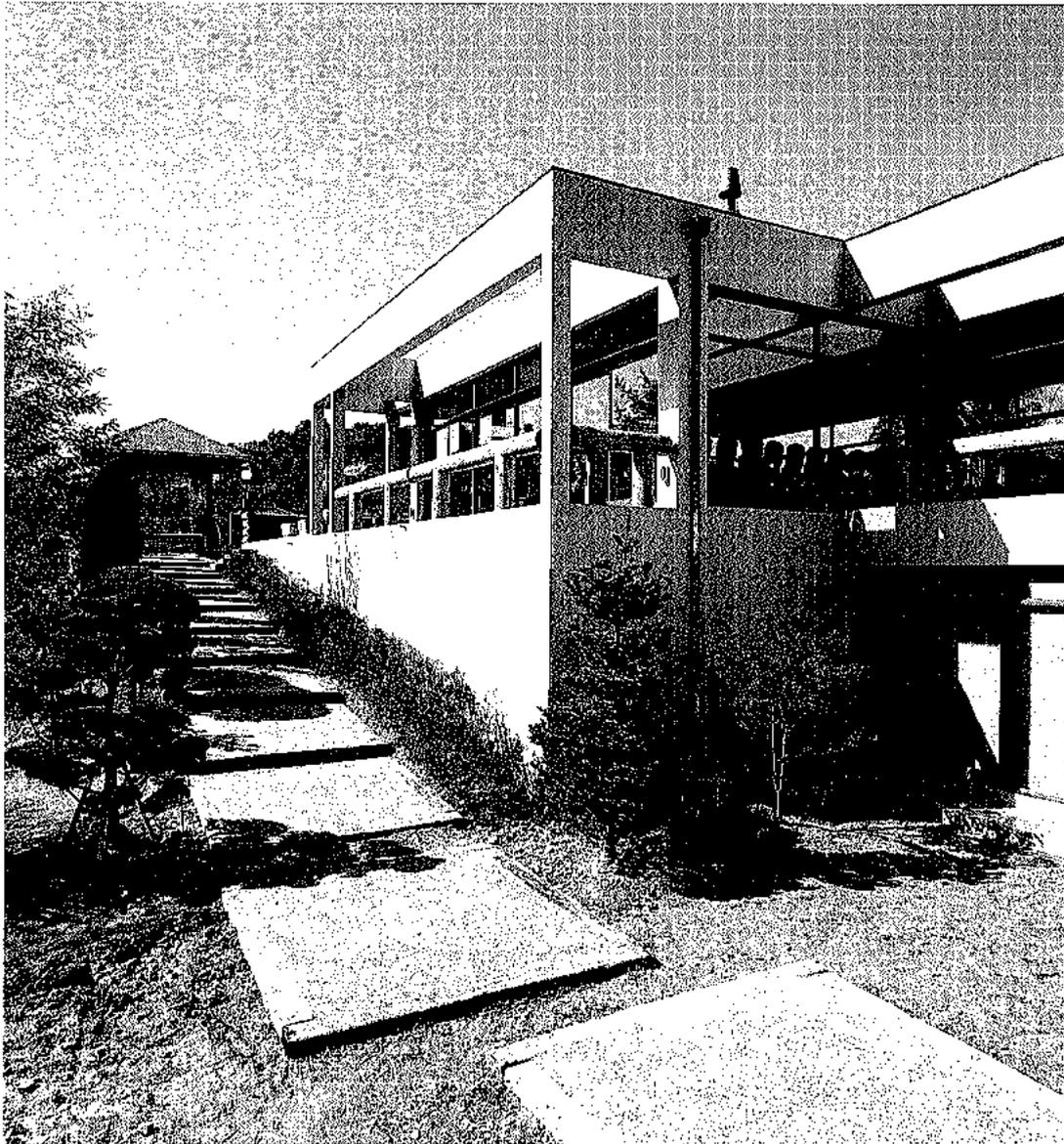
주변에 자연물을 이용한 외부공간의 연출도 이러한 분위기 조화에 부합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실내의 천정은 정자나 대청의 연등 천중의 지붕선을 연상시키며 Top Light는 건축 조형미를 극명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콘크리트 골조와 갈색지붕의 배합이 돋보이는 주홍색 창문 새시가 경쾌한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건물배면의 철도참목과 풍자갈 돌타이 조화된 계단이 정겨운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큐빅과 피라미드의 결합을 건축물에 일괄되게 부여함으로써 넓고 평평한 대지에 친화감을 표출시키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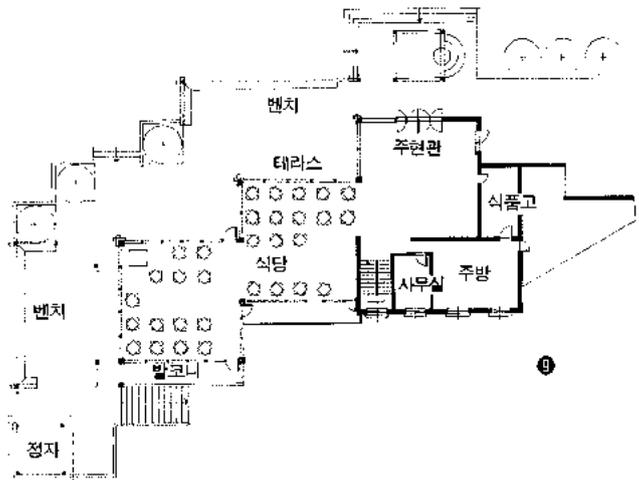


- ① 주출입구상세
- ② 배치도
- ③ 내부에서 바라본 주출입구 캐노피
- ④ 남서측 전경
- ⑤ 1층 휴게실
- ⑥ 2층 전시장 내부
- ⑦ 테라스측 외부상세
- ⑧ 남측테라스 상세
- ⑨ 1층평면도
- ⑩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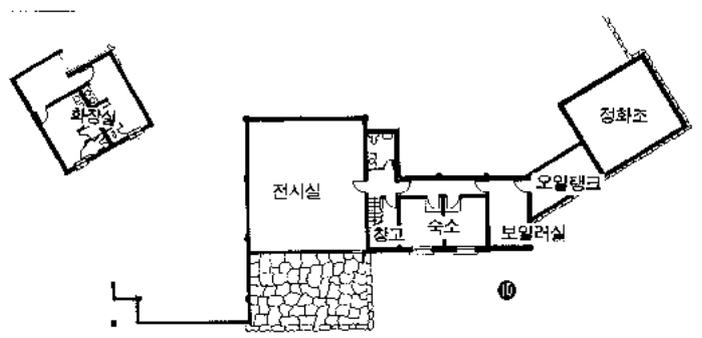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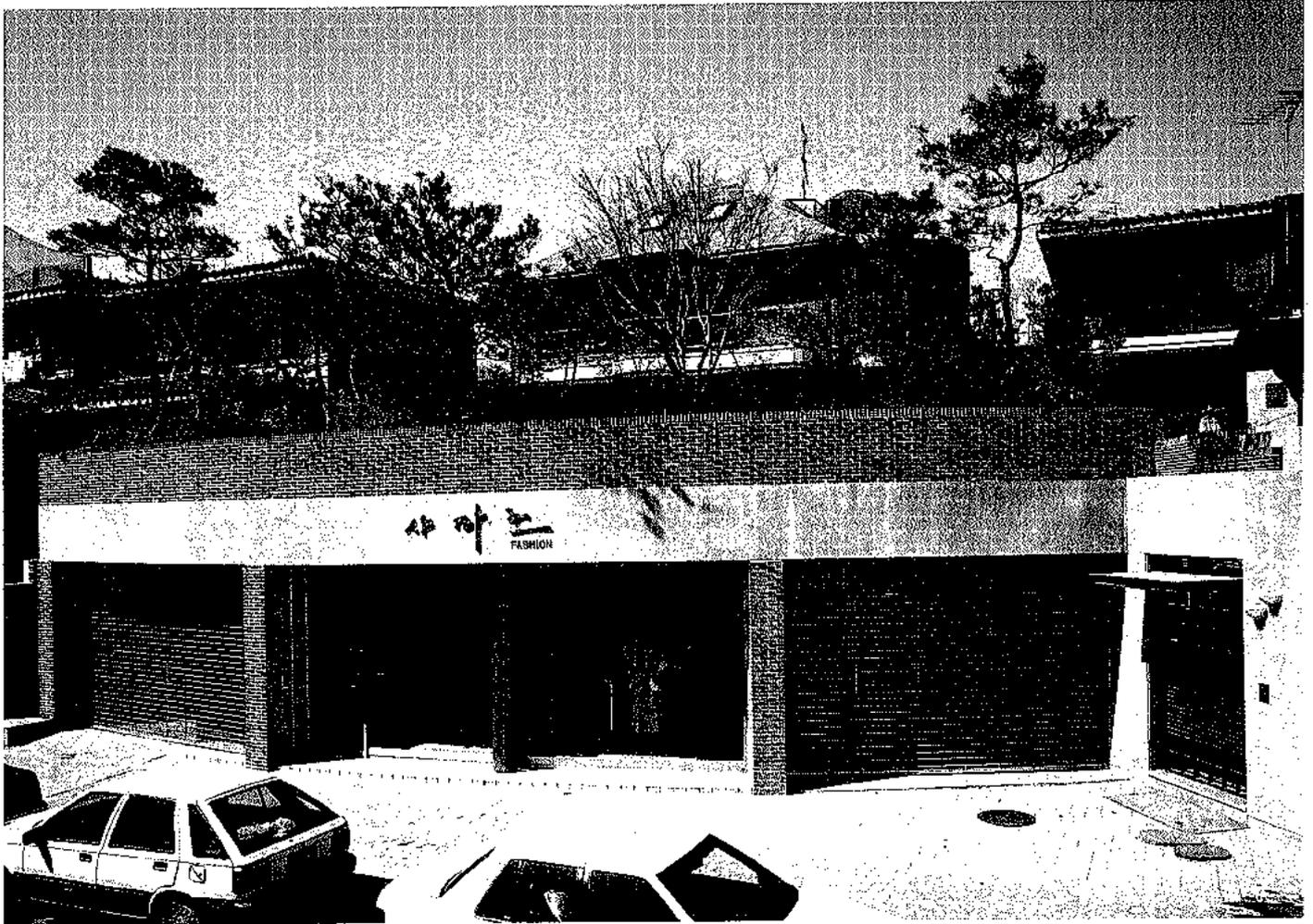
9



10

해인재 (海印齋)

Haein-jae



대지위치/서울 강남구 논현동 38
 건축면적/186.47㎡
 연면적/ 660.77㎡
 용적률/107.23%
 건폐율/41.39%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전벽돌, 아스팔트싱글

■ 설계소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수직적으로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건물이다. 여기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은 마치 전통민가에서의 행랑채와 안채처럼 관계를 맺고 있다. 행랑채인 근린생활시설은 정방형이 기본이 되어 있는 본체의 중심점으로부터 커다란 원호를 그리며 놓여 있어 恒星과 衛星과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대부분은 행랑채의 일부에 있고 이를 뚫고 경계선의 축과 평행한 계단이 본체의 중심점을 향해 각도가 조금씩 조절되면서 현관을 향해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채의 가운데 구성된 마당을 비켜가는데 그런데로 패간 시퀀스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의 매스는 정방형과 반원주, 원호와 피라밋형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기화적인 단위들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짜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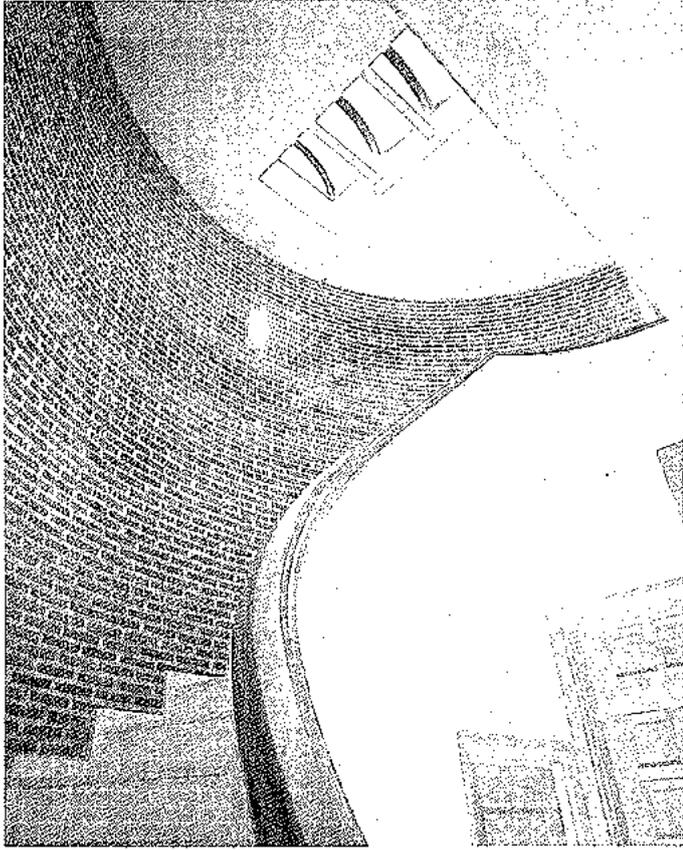
유명한 소설가인 이 집주인을 위해 2층 전부가 할애되어 있는데 실제 창작에 도움이 될만한 다락방이 서재와 작은 나선형계단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아래층은 가족중심의 Zone 이고 중심의 가족실에는 피라밋의 정점에 있는 천창을 통해 밝은 광선이 들어오고, 내부의 마당이라 할 이 Open Space 는 아래 위층 어디에서나 작은 슬리트를 통해 짧은 시선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가족실은 거실과 부엌을 잇는 남북의 중심축과 동서축의 교차점이며 다채와 도단이 방으로 직접 통하기도 한다.

현재 행랑채는 허부만 시공되고 미완성인 셈인데,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 층정도만 더 올라가면 적당한 비례와 의도가 살아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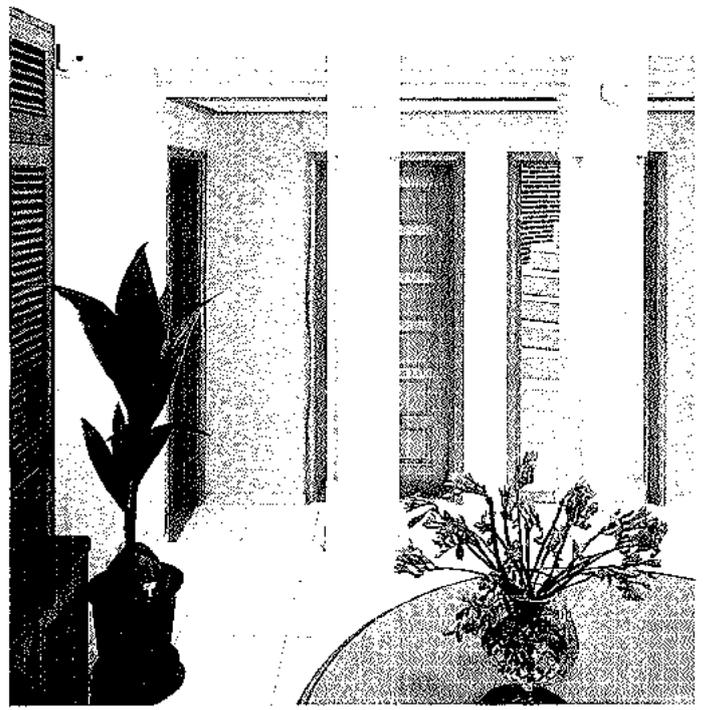
이 주택은 Mass 의 처리가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으며 구성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金珠碩/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Designed by Kim, Ki - 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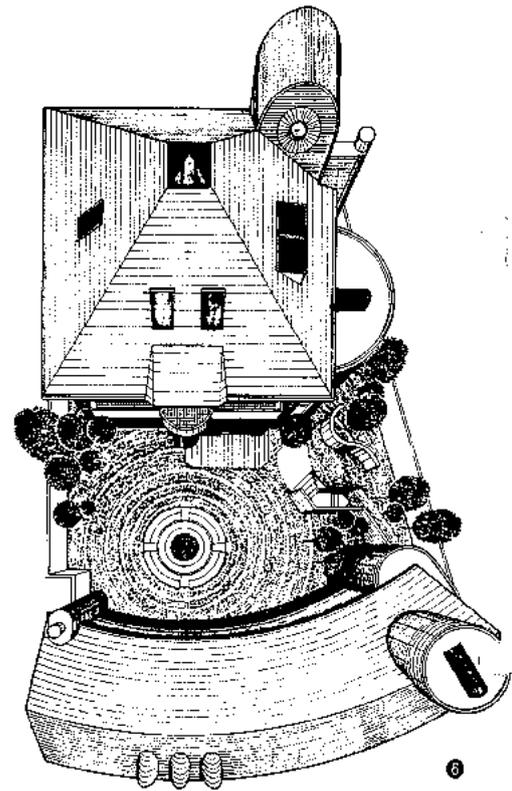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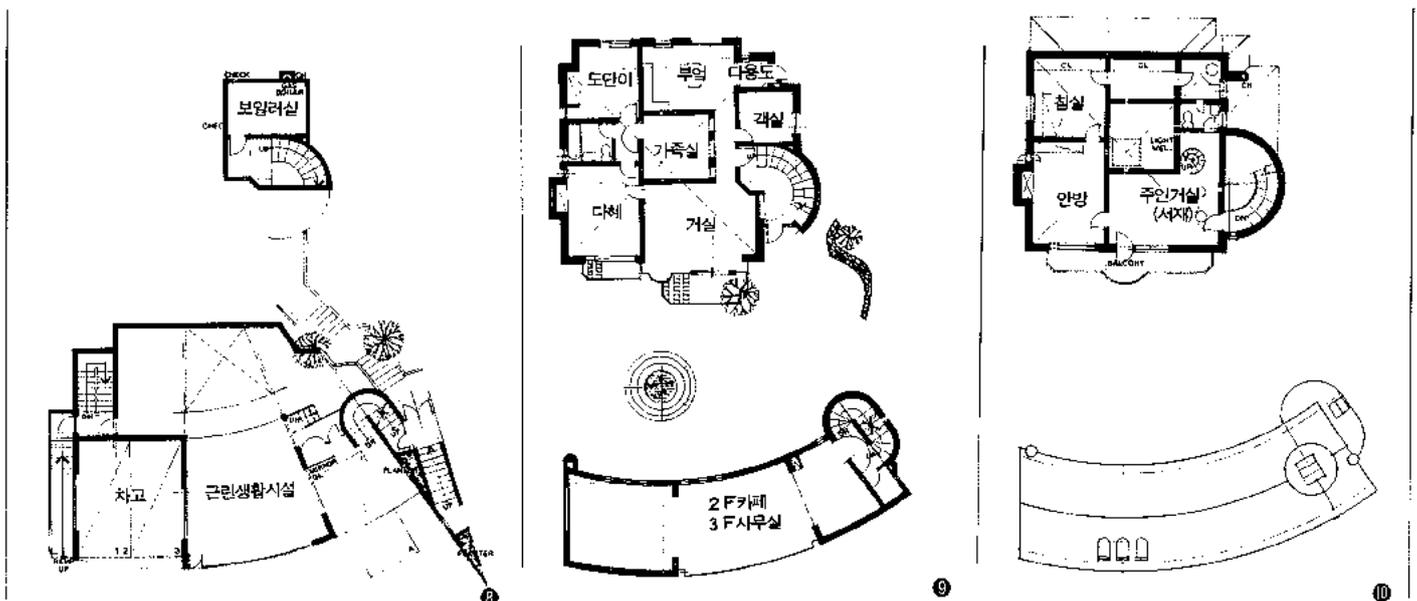


6

- | | |
|----------|--------------------------|
| ① 전체전경 | ⑥ 투시도 |
| ② 주택측 전경 | ⑦ 남측파사드(주택) |
| ③ 계단실 상세 | ⑧ 1층(근린생활시설)+지하층(주택) 평면도 |
| ④ 식당 내부 | ⑨ 2·3층+1층평면도 |
| ⑤ 거실 | ⑩ 지층층+2층평면도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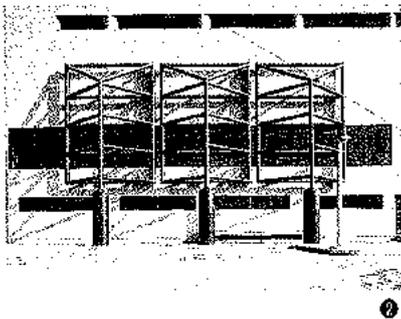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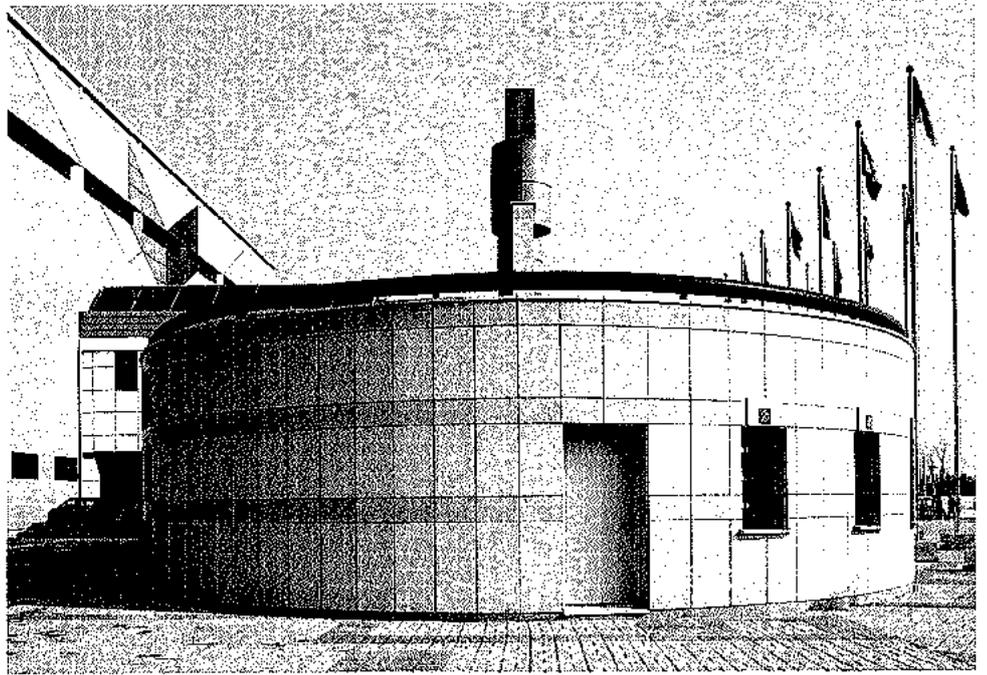


10

목동 실내빙상경기장

Mok-dong
Indoor Ice Rink

대지위치/서울시 양천구 목동개발지구내
 대지면적/13,975.5㎡
 건축면적/6,017.52㎡
 연면적/14,509.74㎡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수용인원/5,023석
 외부마감/외벽-3mm 불소수지 알루미늄 쉬트
 지붕-0.6mm 불소수지 피복강판 + 75mm우레탄



■ 설계소요

배치 및 외부동선 계획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사이의 협소한 대지에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1면, 수용인원 5,000명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배치함으로써 전면광장과 후면 주차장을 모두 건축적인 해결방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면부 건물과의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했으며, 후면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변동없이 해결하라는 것이 설계지침상의 요구조건이었다. 따라서 보조경기장을 계획건물 전면광장의 지하 혹은 후면 주차장 지하부분에 배치하려 했으나 내부기능의 복잡성, 면적의 손실,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주경기장 하부에 수직으로 연결하였다. 그로 인해 전면광장이 손상되지 않았으며 관람객의 동선을 연속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었다. 한편 건물과 건물 사이의 협소함을 벗어나기 위해 후면 주차장 쪽으로 최대한 Set Back 시켰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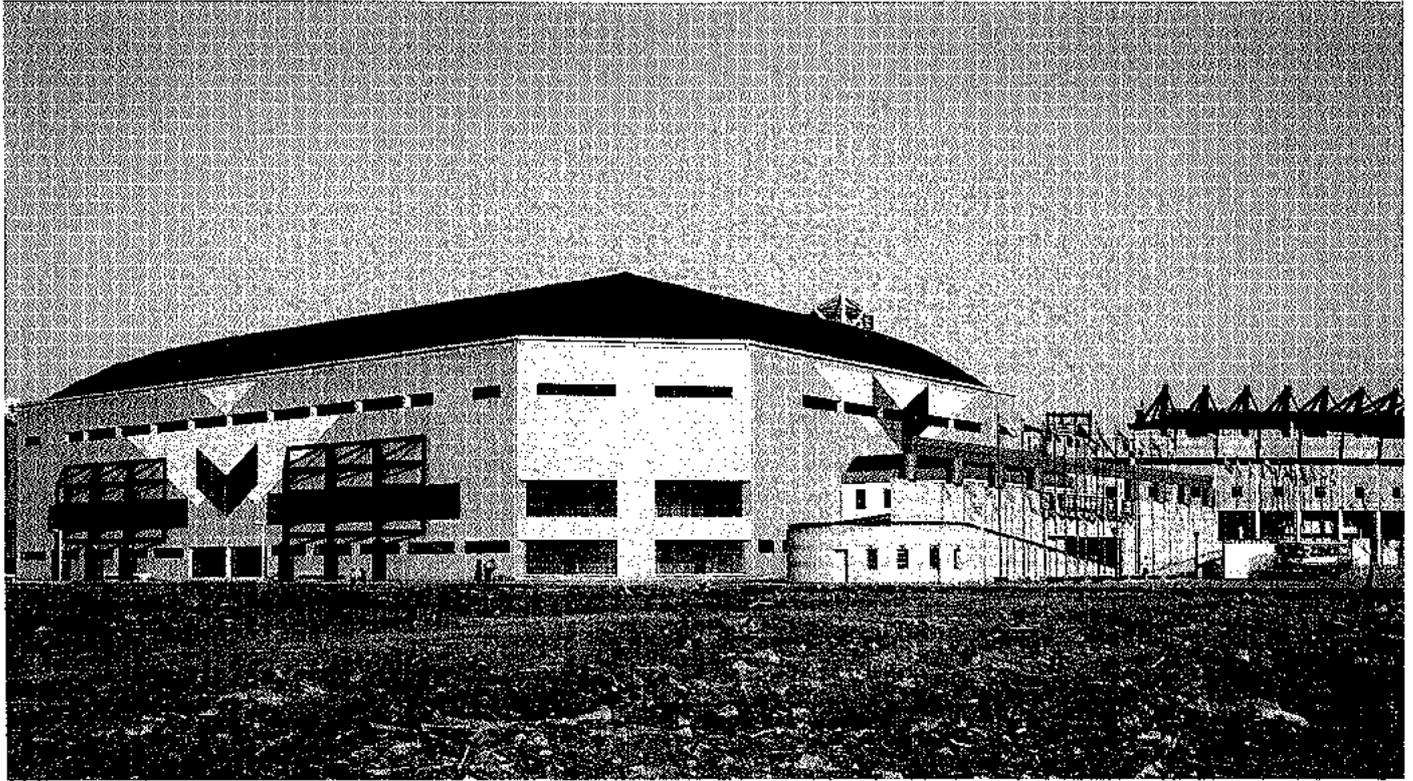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수직으로 연결되며 선수동선·임원동선·VIP 동선·관람객동선 모두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입구를 분리시켰고, 상호간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 내부공간에서 적절하게 연결시켰다. 또한 경기가 없을 때 스케이트 대여지를 위한 동선도 고려하여 다목적 아이스 링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에서 고심했던 사항은 국내에서 처음 설계되는 아이스 링크라는 점과, 기존시설(태릉의 아이스 링크는 수영장을 개조한 것임)을 참고할 수 없어 실별기능 하나하나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였으며, 외국외자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설계에 임하였지만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데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해서 계획한 경기장, 명확한 시선계획, 관객동선의 해결, 음향계획, 에너지 절약 등을 해결하고 복합적인 기능(아이스링크·아시스턴스·피겨·Shot Track 경기)을 모두 충족시키는 명확한 해석이 평면계획의 주요점이었다.

입면계획

주변건물의 구성을 고려하여 아이스 링크의 특성인 에너지 손실방지를 위한 개구부의 축소, 알루미늄이 주는 차가움을 완화시켜 주는 디자인, 단조로운 건물의 매스를 건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면부의 램프와 진입부의 가벽은 현대적인 감각과 인지성이 강하도록 처리하였으며, 외부 Skin 은 정밀도있게 표현하고 시공성을 위하여 Grid 패턴을 도입하였다. 또한 측면부의 지루함과 알루미늄이 주는 차가움의 대비로써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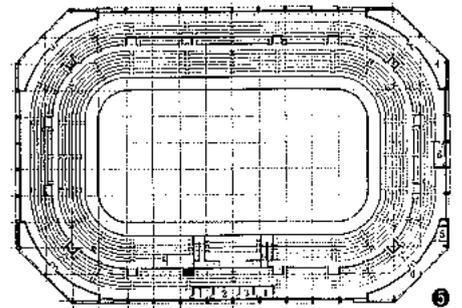
文政- + 任亨宰/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oon, Jung-Il & Yim, Hyung-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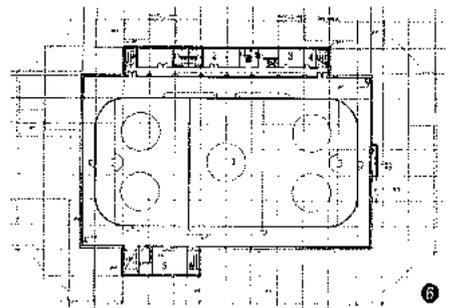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 ① 주출입구 계단측 외벽상세
- ② 외벽상세
- ③ 전경
- ④ 실내방상경기장 전경
- ⑤ 스탠드 평면도
- ⑥ 지하층 평면도

목동청소년회관

Mok-dong Youth Center



대지위치/서울 목동 신시가지 중심지구

대지면적/5,743㎡

건축면적/3,024㎡

연면적/5,204㎡

건폐율/52.6%

용적률/80.3%

규모/지하 1층, 지상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외장타일, 개폐식 글래스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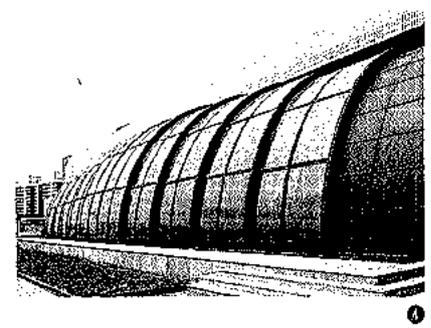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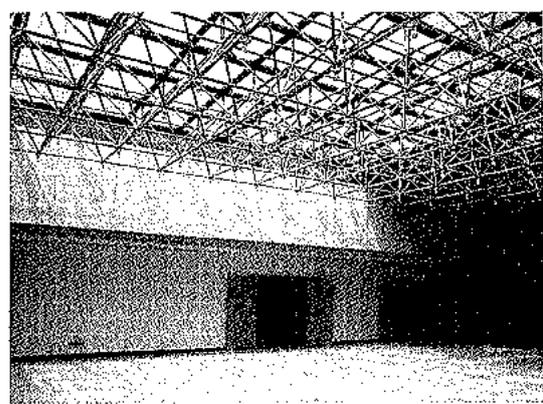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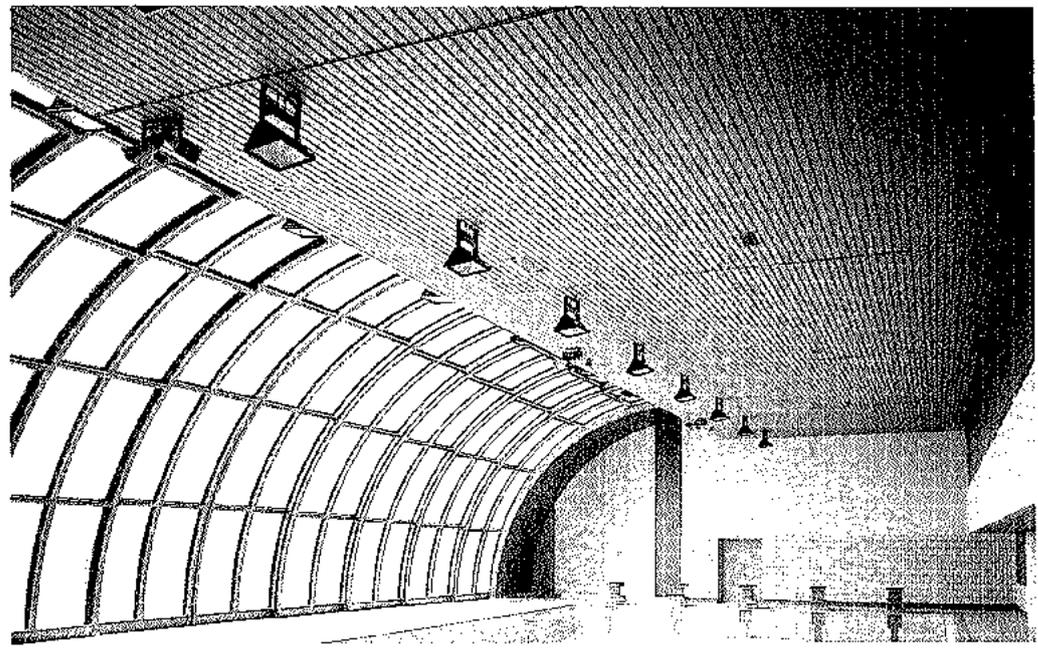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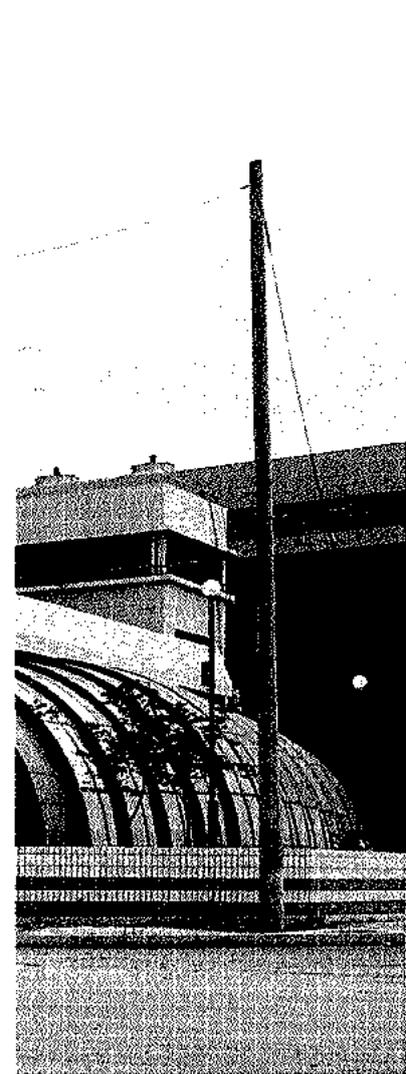
■ 설계소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중심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본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개발된 지역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필수적인 시설의 하나로 건립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 건물과 달리 건축주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계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수용시설의 추출과 규모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설계자의 의도에 건축주(서울시)가 수정없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본 대지는 4면이 도로에 접해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의 배스를 설정함에 있어 일정한 틀에서 탈피해 청소년 성향에 맞도록 자유분방한 평면 및 입면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지층에 배치하고(체육관·수영장·공연장)기타시설(서클룸·도서실)을 2, 3층에 배치하였다. 특히 회관시설 중 수영장은 국내 최초로 개폐식 유리벽을 설치하여 수영장 분위기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하였고, 건물 중심부에 대형천창을 두어 내부공간의 폐쇄감을 극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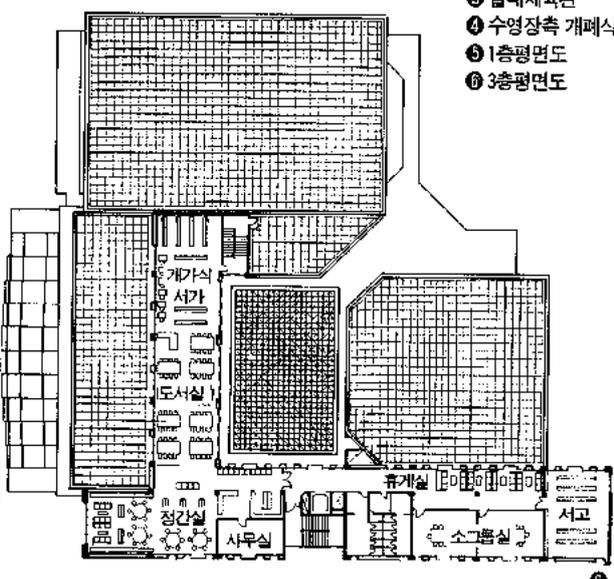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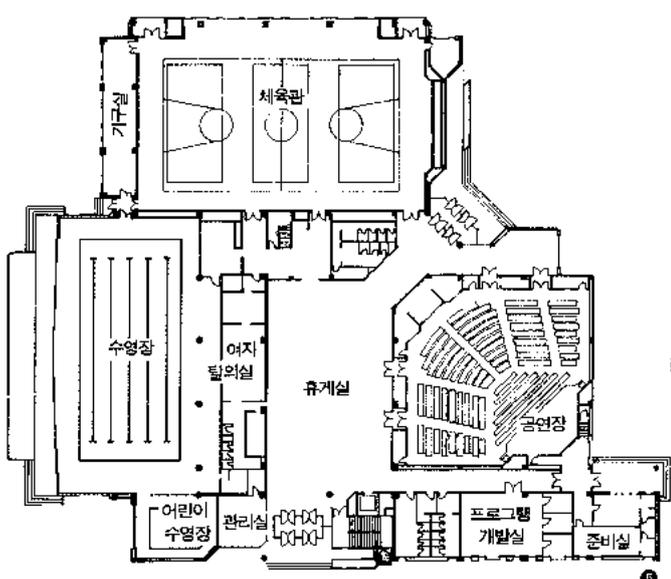
설계과정 및 준공시점에서의 소감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여가 및 선도에 필요한 시설이 적극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기초조사에서 판단되었던 수용시설과 규모가 제한될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목동사업소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李丞雨/(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eung-Woo



- ① 전경
- ② 실내수영장
- ③ 실내체육관
- ④ 수영장측 개폐식 투명유리창
- ⑤ 1층평면도
- ⑥ 3층평면도



나의 스케치

재구성

董政根+朴研心/건축사사무소 장원

D E C O M P O S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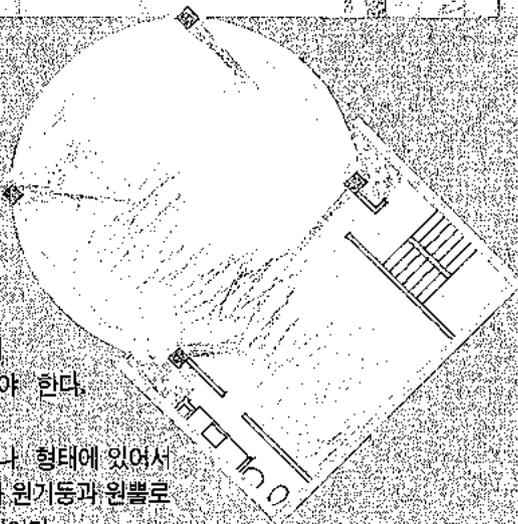


대지를 컨텍스트 속에서 '읽어내는' 작업을 테리다의 '에크리튀르'와 비교해 본다.

읽는 방법의 차이는 시대의 조류일 것이다. 이런 정보화시대에 시대적 조류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제3세계 지식인들의 비극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민족적이고 전통적이며 지방적인 이미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읽어내는 과정에서 문화에서처럼 텍스트를 해체하며 대지와 주변환경과의 사이(the Between)의 보이지 않는 관계와 한계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요인들을 발전시켜 극적 효과를 더해 줄 수 있는 현존(the Presence)의 의미를 되살려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Decompose"라는 테마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추구하는 일련의 시리즈로서, 의미론적으로나 형태에 있어서 기하학의 분해를 통한 재조립은 세진스가 모든 물체를 육면체와 원기둥과 원뿔로 분해해서 보았듯이 재료와 기하학의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줄 것이다.



대형건물을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하여

대형 건물의 설계를 일정 규모의 대자본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로 하여금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근본 취지는 건축행위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사불란하게 좀더 단축된 생산체제로 해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도모코져 하는 정책으로써 현재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의 생산효율성 재고 정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문명화라고 간단히 정의한다면 문명화를 빨리 시키기 위하여 노동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좀더 적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으로써 똑같은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사회관리 제도의 개발은 그 사회를 "물질적으로 문명화"시키는 목적으로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문명화 즉 물질적 풍요만 염두에 두어 사회생활 전반에 대하여 오직 능률적인 행위에만 지고의 가치를 두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간이 목표로 하는 물질적 문명화에 도달하는 데에도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숙된 물질적 문명화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문명화 즉 정신문화의 향상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물리적 욕구의 독주는 스스로 물질문명 사회적 병리현상(물질 탐욕으로 인한 각종 범죄, 대기 및 수질의 환경공해 나아가서 소음 및 건축환경의 시각적 공해 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오직 경제적 능률성에만 가치를 두려는 것은 좀더 향상된 정신문화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불질문명적 병리현상에 대한 사전대비가 염두에 두어진 연후가 아니면 맹목적이고 위험한 의지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건축행위에 있어 미 즉, 예술성의 추구는 바로 이 향상된 정신문화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물리적 이익(능률성)과 무관하며 물리적 욕구의

독주(과다한 건축공간의 확보 욕구)로부터 오는 시각적 공해에 외견상 절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예술행위를 경제적 행위의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고 또한 건축문제를 경제원리로 풀어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 국가가 처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경제적 딜레마조차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래서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에 임하는 사람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노동으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의 상대적 양적 우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애착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정신 가치적 분화가 노동 현장에 배양된 풍토 속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양한 정신 가치적 문화의 창달이 역으로 노동효율성 향상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관을 획일화하여 한 방향으로만 강요했을 때 스스로 한계와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책이나 가치관도 다원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행위의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사를 대형 건설업체의 고용인으로써 종사케 하는 것은 능률적인 건축을 하고자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언정 예술적 창의가 있는 건축을 하려는 의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정책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에 무관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의 예술성은 건물의 임대업이나 분양업을 하는 건설업체와는 될 수 있으면 좀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건축가가 설계함으로써 더욱 많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주택업자나 건설업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대중의 인식까지도 건축예술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좀더 많이 이해해 주다면 건축가는 더욱더 독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축작업의 단기적인 작업효율 제고 효과만을 염두에 두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설계직업까지 맡기려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다양한 가치와 여기서 비롯되는 가치관이 사회에서 같이 숨쉬기 여유조차 없이 한곳으로 매진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물질문명 향상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경제건설 지상주의의 시각 지대에 있는 여러 정신문화적 가치들 즉, 도덕성, 철학, 예술정신 등이 사회의 한편에서 대중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시도되지 않는한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명사회적 병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元鍾一
종합건축사사무소
세종

주택건설 촉진법의 입법 지표에 관한 고찰

嚴泰佑/자산종합건축사사무소

本稿는 本誌9004호 誌上中繼란에 게재된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을 위한 건축계의 제안” 토론회 내용중 관련법 개정의 방향에 대하여 자산종합건축 업체우 회원이 기고한 글임

《編輯者 註》

1. 개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축법)이 제정 시행후 약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주거환경을 관찰하고 이 법의 입법목표가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법 제1조의 목적은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 수준의 향상, 건설공급을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3가지로 표현된 바 그 중 주거수준의 (질적)향상 부분을 집중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제정 시점에서의 상황

70년대 중반은 그 이전의 약 10년간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농촌 인구의 대량 도시유입으로 급격한 도시팽창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전통적인 단독주택 중심에서 집단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는 여의도 및 강남지역에서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때였다.

지방도시에서도 아파트형의 집단주택 붐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서울의 일부지역의에는 거의 5층 이하의 건물이었다.

건설업계에서도 중동의 건설붐으로 회사의 규모가 대형화하였고 해외 수주의 감소로 국내의 주택사업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많은 주택공급 전문회사가 등장할 시기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점에 주택의 건설공급에 질서를 부여할 필요성을 절감 하겠다고 하겠다.

3. 중간단계의 진행상황

제정 이후 주축법의 법령은 매년 수정보완을 거듭하였는데 그 결과는 개정목표와는 관련없이 아파트 단지의 규격화와 표준화, 다시 말하여 전국적으로 유사한 주거단지를 형성하여 지역환경의 특수성 또는 지방도시의 전통적 개성이 무시되는 무표정한 균일성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서울에서 완공된 건물이 그대로 몇년 후 지방도시에서 복제되었다.

법령에 세부적인 수치가 도입되므로써(동별이격거리등) 설계의 창조적인 면에는 전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못하여 양이 질을 구축한 결과가 되었다.

더욱이 공급가격의 장기간 제한으로 마감자재의 선택폭까지 줄어들어 주거환경의 다양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쟁발전의 기회도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4. 현재의 상황

80년대 후반에 와서야 아시아게임 및 올림픽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시범지역 또는 목동, 상계동 등 공기관 주도사업 및 최근의 신도시 개발등의 필요성으로 질적 전환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사회적 필요성으로 다양성을 되찾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주택의 건설, 공급”이라는 초기의 단일목표에는 소득계층의 다양성에 따른 주거환경의 “다양한 선택”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병행 설정 되어야 한다.

5. 장래의 입법지표

주거환경을 위한 새로운 입법지표(주택건설촉진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망라하여)는 아래의 사회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주시하여 그 내용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가. 기존시가지

오래된 구 시가지의 주거지역은 대도시의 경우 단일필지 면적이 50평 정도이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100평 이상이 평균적일

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하여 행정체계의

지도 단속으로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표는 그 역기능으로 인하여

창의성, 다양성 등

법규화할 수 없는 개념과 상충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이룰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새로운 법체계를 위한

연구와 토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것이며 70년대 전후 구획정리 후 환지등이 시행된 지역은 역시 50평에서 100평 내외로 필지 분할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일부는 창고 및 공장등의 용도로써 몇 천평의 필지도 산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 도로는 비교적 좁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을 것이다. 그 대부분은 개별건물이 한 동씩 개축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나. 신 시가지

구미, 반월, 안산, 창원 등 신도시와 기존도시 주변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등 최근의 도시계획으로 정비된 지역으로 필지가 몇 백평 또는 천평 단위이고 도로도 넓게 지정되어 있는 지구로 절반정도가 기존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공터로 남아 있는 지역이다.

다. 신도시 예정지역

분당, 일산과 같이 장래 도시화 계획이 확정된 지역으로 새로운 입법목표를 현실화하여 새로운 구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상기 구분은 필지의 크기와 도로폭 및 공지의 비율 등으로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별개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령의 물리적 제한 설정(예 : 건폐율, 용적률, 동별기리, 건축물의 높이 등)에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이 불합리함을 나타낸다.

라. 소득향상에 따른 복합기능

노동시간 단축추세(주 5일근무등)와 문화적 여가선용의 욕구등 소득향상에 따른 도시사회기능의 다양성은 단순 주거지역 설정보다 복합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거리 및 교통인구의 축소를 위한 복합기능인 슈퍼블록의 형성 필요성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등 도시간선 시설의 24시간 활용에 관한 관점, 장래의 통신망 등 참으로 다양한 제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마. 건설자재와 공사방법

현재 주거용의 모든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시멘트 몰탈로써 마감하고 외부는 페인트 내부는 도배시라는 자재 및 공법의 획일화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목인될 수 없다. 목조 및 철골조, 방수필름과 단열판넬

등 저가격, 공기단축, 경량의 자재와 시공방법이 다양하게 채택, 발전되지 못한 것은 법령의 일반구조와 내화 및 방화자재의, 간단한 몇 개 조문으로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이었다고 하겠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61조까지의 간략한 내용은 건설자재와 공법의 다양한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수백페이지의 책으로도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바. 건축의 공학적 부분과 미학적 부분

건축에는 문장과 수식으로 설명 가능한 공학적 부분이 있는 한편 개성과 감정의 조형화와 같은 건축 그자체 이외의 다른 설명 방법이 없는 미학적 부분이 실재한다. 최고높이, 인동거리 등 계량화된 법령이 미학적 표현을 심히 제한하는 현상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 미래의 도시발전

해상도시 또는 지하도시와 같은 장래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전천후 가로형성을 위한 도로지붕 또는 지하상가, 인공대지 조성과 같은 다층의 옥외 공간 계획등 당면한 도시발전에는 민법상의 재산권, 지적법 등 소유개념이 단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법령에 반영하여야 하는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상기 복잡한 문제점을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소론의 강조점이며, 주축법이 제정되던 70년대의 사회적 관점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주거수준을 억제하는 지표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6. 일반상식과 전문성

주택건설 촉진법이 광범위한 국민 주거생활을 개선 또는 지도한다는 입법목표에 따라 구체적 조문을 추가할수록 더욱 창의적 발전이 억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사회현상의 일단을 피려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도시계획법의 평면적인 용도지구 설정이론과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률 등 실제로 토지자에게 예민하게 반영되는 개념을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한 유사한 법령에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규를 조문화함에 있어 일반상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외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은 훨씬 방대한 분량의 별도 지침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즉 법체계를 일반인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주축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설비기술사와 같은 고도전문인의 용역행위를 중간 매개로 하여 관청의 허가수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령 전체가 쉬운 내용으로 단순화하고 압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또 다른 한가지의 체계는 전문지식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인 부분을 위임하고 심의과정에 이해관계 일반인의 입회를 허용하여 결정과정을 공개화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각 지방 또는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법령에는 가급적 전국적으로 일을 적용하는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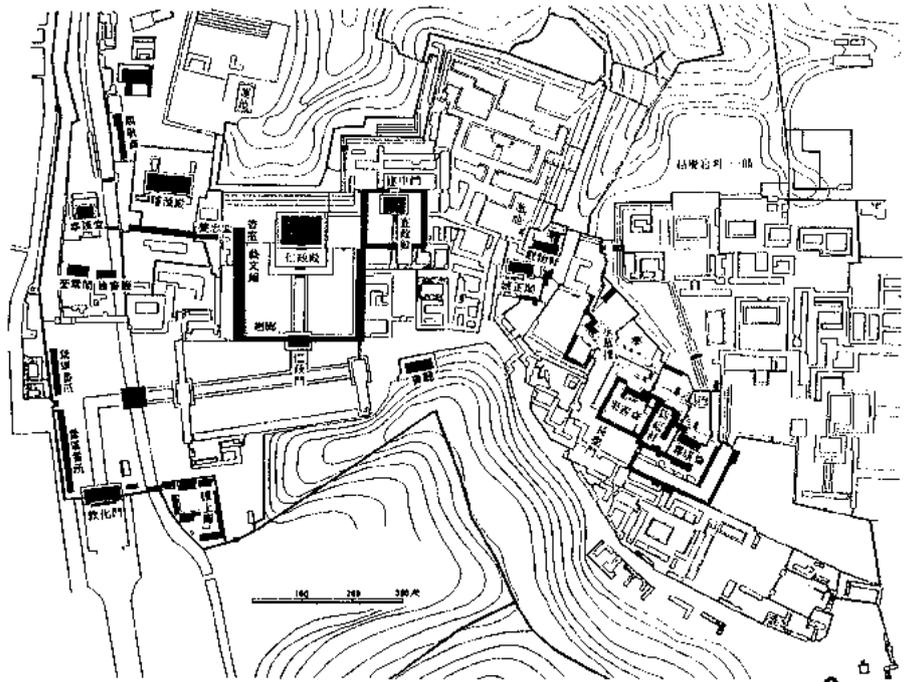
7. 결 론

이상으로 주축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정 시행이 국민주거 환경의 형성발달에 미친 부정적인 면을 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6항에 적시하였다. 그 결론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하여 행정체계의 지도 단속으로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표는 그 역기능으로 인하여 창의성, 다양성 등 법규화할 수 없는 개념과 상충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이룰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새로운 법체계를 위한 연구와 토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4. 朝鮮時代의 宮闈

2. 昌德宮

1394년 조선 태조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王都로 營爲하였으나 제2대 定宗 즉위년(1399)에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고 1404년 10월에 李穡, 辛克禮 등을 漢京離宮造成提調에 임명, 창덕궁 조성을 하명하고 그 위치를 鄉校洞 즉 지금의 臥龍洞에 자리잡아 공사를 그 다음해 10월에 마치고 昌德宮이라 이름을 붙였다. 조선의 正宮은 원래 경복궁이므로 이 궁은 처음부터 離宮으로 조성되어 경복궁 동쪽에 자리를 잡아 흔히 '동관대궐'이라고도 불렀다.

정전인 仁政殿과 그 門은 초창기에 건립되었으나 1419년 朴子菁에게 改營토록하여 다시 조성하고 이 즈음에 進善門, 錦川橋, 敦化門 등이 건립된 바 있다. 세조7년(1461)에는 각 殿閣의 이름을 붙이었는데 宣政殿, 昭德堂, 寶慶堂 正殿은 兩儀殿, 寢室에 麗日殿, 淨月殿, 澄光樓, 玉華堂 등이다.

이렇게 어궁으로서 잘 가꾸어 가던 창덕궁은 1592년 壬辰倭亂을 당하여 경복궁과 창경궁, 종묘까지 왜군에 의하여 모두 불타 버리니 폐허의 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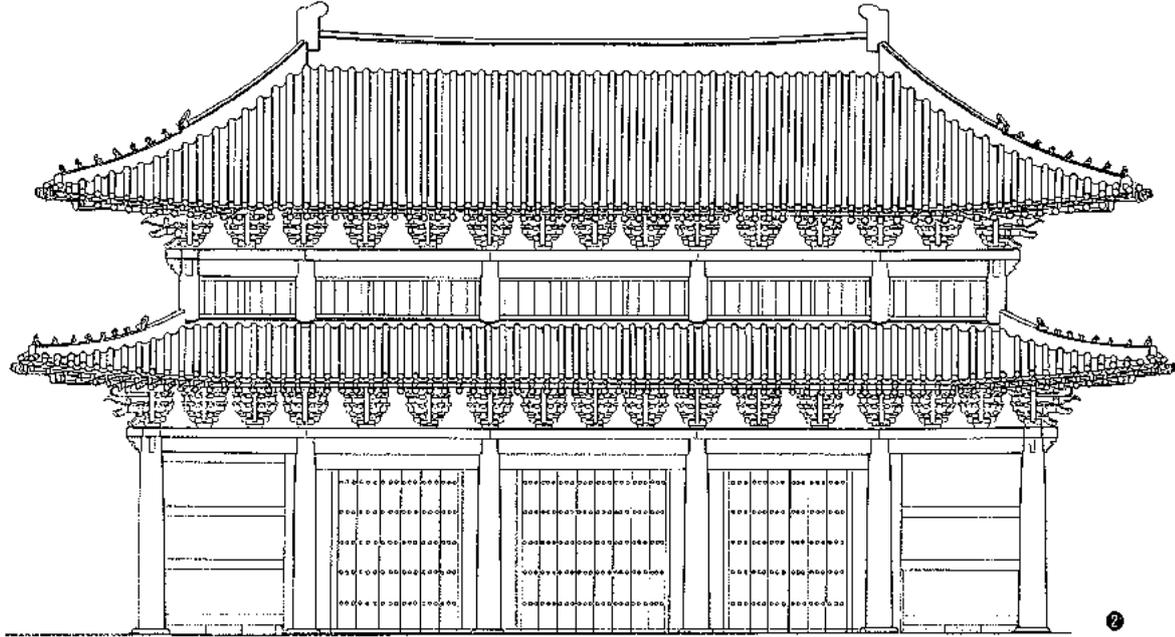
광해군 원년(1609)10월 제1차 공역때 주요 전각들이 재건되었고 다음 광해군 2~3년에 제2차 복구공사가 착수되어 동5년에 완전히 복구되었다. 그러나 1623년 仁祖反正때 인정전을 빼놓고 모든 전각이 불에 탔다가 다시 1647년에 복구되었다. 이때 복구된 건물은 大造殿, 宣政殿, 熙政殿, 靜默堂, 集祥堂, 寶慶堂, 玉華堂, 泰和堂, 연화당, 燈光堂 등이다. 이후 1656년(효종7)에는 萬壽殿, 春輝堂, 千慶殿 등을 새로 짓고 1776년(영조52)에는 禁苑에 奎章閣이 새로 지어졌으며 1782년 重熙堂, 1785년 壽康齋가 세워졌고 1803년 12월에 仁政殿에 불이 나서 그 이듬해 복원되고 1833년에는 대조전을 위시하여 내전이 모두 불에 타고 그 이듬해 중건되었다. 또 1846년에는 樂善齋를 세웠다.

1908년 일본인들에 의하여 궁전 일부가 변형되고 인정전은 서양식 가구와 실내장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17년에는 상공거처에 불이 일어나 대조전을 중심으로한 內殿 일곽이 모두 불에 타자 일본인들은 우리의 正宮인 경복궁의 交泰殿과 康寧殿 등·서행각, 延吉堂, 慶成殿, 延生殿, 膺祉堂, 欽敬閣, 含元殿, 萬壽殿, 興福殿 등 여러 건물을 헐어다가 1920년 창덕궁 대조전과 熙政殿을

세웠다. 그 당시 인정문과 그 행각도 전시장으로 꾸미기 위하여 왜식으로 개조하였다. 즉 행각의 지붕틀은 트러스로 짜고 벽은 양회벽치기를 한 것이다.

한편 1405년에 창덕궁이 처음 조성되면서 그 이듬해 궁의 동북쪽에 後苑을 만들어 연못가에 解亭을 짓고 신하들과 유연을 이곳에서 베풀었다. 이 당시의 후원은 협소한 곳이었는데 1459년에 세조가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겨오면서 대대적인 후원의 조성사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연산군은 이곳에서 궁녀들과 유연하고 禽獸를 길러 사냥을 하며 동·서쪽의 민가를 계속헐어 후원을 넓혀 백성들의 눈을 피하여 담장을 높이고 여기에 인접한 成均館 옮기게 하여 유림의 원성을 사고 현 창경궁 순남지 부근에 瑞恩臺를 만용을 새긴 石欄干을 돌리고 樓앞에 연못을 파서 뱃놀이를 하도록 공사를 하다가 중종이 즉위하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후 임진란으로 궁과 함께 20년간을 폐허가 되었다가 1610년 광해군시에 暎花堂과 정자를 세우고 화려한 원유를 만들었다. 또 인조때에는 歎逝亭(현 逍遙亭), 雲影亭(太極亭)등과 玉流川을 만들고 翠微亭(觀德亭), 六面亭(尊德亭) 醉香亭(喜雨亭), 碧荷亭(清漪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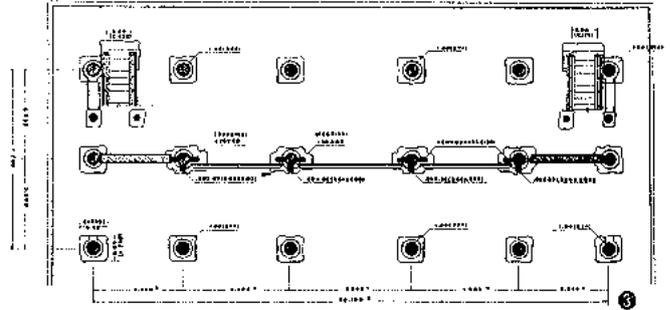


聚勝亭(樂民亭) 등을 건립하여 지금과 거의 같은 모습의 원유를 꾸민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에도 숙종때(1704)에 大報壇 이루어졌고 영조52년(1776)에는 奎章閣을 세웠고 정조때는 芙蓉亭을 개축하였다. 또 1828년에는 純祖가 사대부의 평민 생활을 그리워 民家형식 演慶堂을 건립하였는데 안채와 사랑채 서계와 행랑채 그리고 정자 등 지금 잘 보존되고 있다. 지금 불리우고 있는 秘苑이란 명칭은 1904년에 붙인 것이고 원래는 後苑, 北苑, 北園, 또는 禁苑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곳에 현존해 있는 중요한 건물은 宙舍樓, 芙蓉亭, 映花堂, 演慶堂, 濃繡亭, 勝在亭(泛愚榭), 尊德亭, 觀攬亭, 愛蓮亭, 寄傲軒, 書香閣, 滄漪亭, 逍遙亭, 魚水門 등이다.

창덕궁의 배치를 살펴보면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 북에 백악을 배산으로 남북축에 따라 정문인 광화문으로 부터 흥례문, 근정전, 상경전, 강녕전, 교태전 등이 직선상에 놓이는 형식을 취한데 비하여 여기서는 지형에 따라서 불가피한 탓인지 이렇게 정면한 직선상의 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문인 敦化門을 들어서면서 하천을 따라 길은 동쪽으로 꺾이고 錦川橋를 건너게 된다. 이 흥예석교를 건너면 進善門이 있고

- ① 昌德宮 배치도
- ② 敦化門 정면도
- ③ 敦化門 1층평면도



이 문 맞은 편에 金虎門이 있었고 이들 문 사이에는 행각이 둘러져 있었다. 이 공간을 진입하다 왼편에 인정문을 남향하여 새우고 인정문을 들어서면 正殿인 仁政殿에 닿하게 되며, 이곳은 행각으로 둘러져 폐쇄공간을 이룬다. 이 인정전의 바로 동쪽에는 便殿인 宣政殿이 있고 그앞에 선정문과 주위 행각이 둘러있다. 또 이 선정전 동북쪽에는 남북축을 비스듬히 하여 寢殿인 大造殿과 熙政堂이 놓이고 그 북쪽으로 嘉靖堂과 비원이 펼쳐지게 된다. 다시 이 침전의 동남쪽으로 內醫院과 좀 떨어져서 樂善齋의 건물군이 놓이게 되고 그 동쪽으로는 창경궁에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치를 볼 때 창덕궁은 경복궁과 같은 평지에 남향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북악의 동쪽 鷹峯줄기의 구릉지를 이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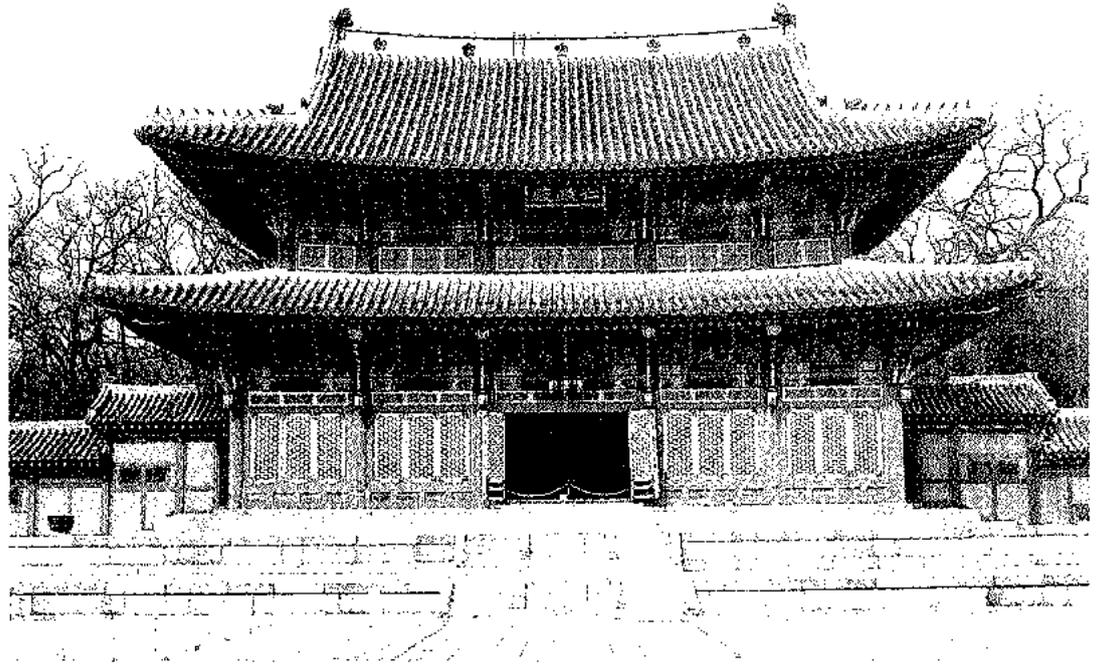
자연굴곡 위에 배치를 꾀한 것으로 그 특성은 오히려 우리나라 건축을 상징하는 자연적 배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덕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 후원을 아름답게 결들인 가장 특징적인 건축으로 평가된다.

창덕궁의 현존하는 중요 건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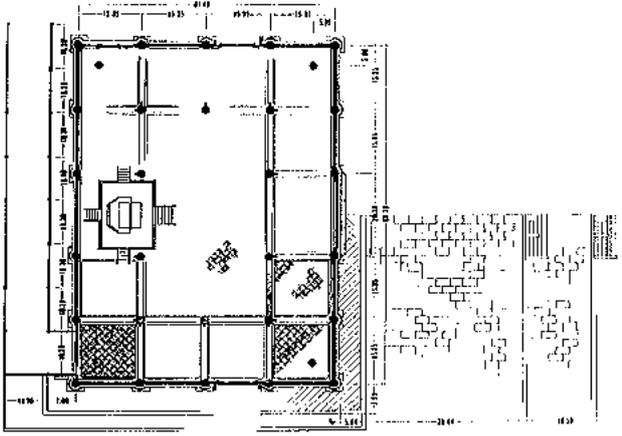
1. 敦化門

창덕궁의 정문이다. 지금은 거의 기단이 없이 바닥에 바로 초석을 놓고 문을 세운 듯하나 이것은 문 밖에 도로포장을 위하여 기단을 묻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단과 기단으로 오르내리는 긴 계단이 땅 밑에 묻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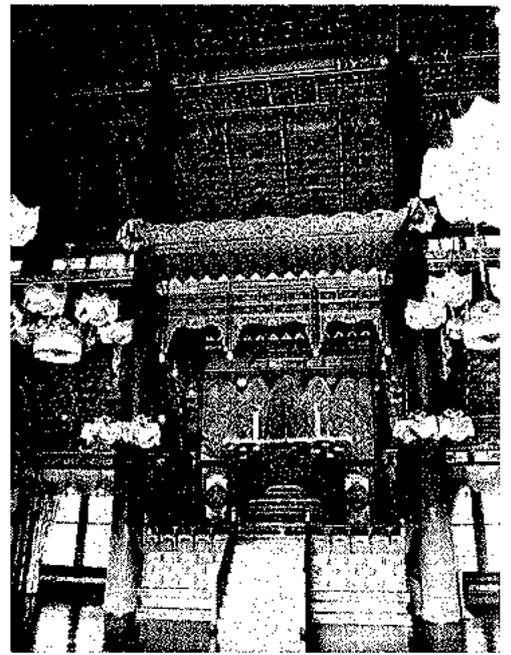
이 문은 1412년에 초창되고 임진왜란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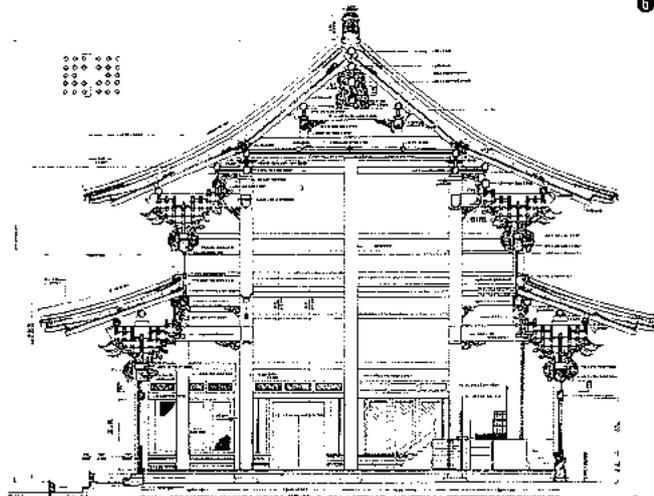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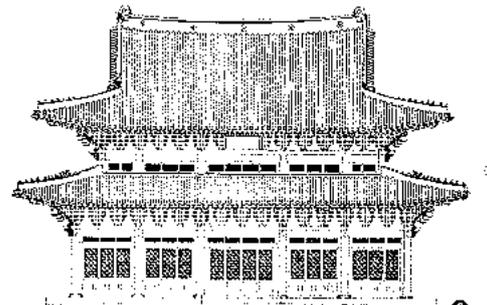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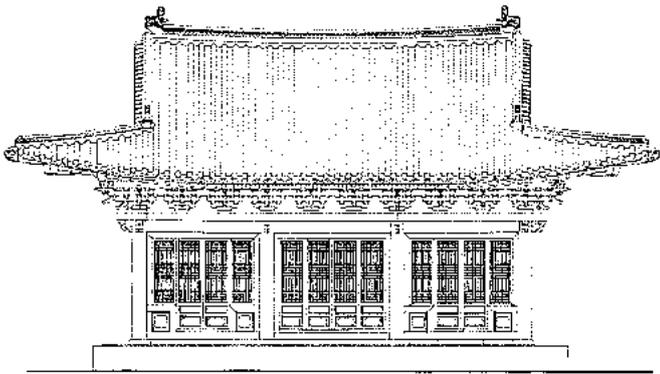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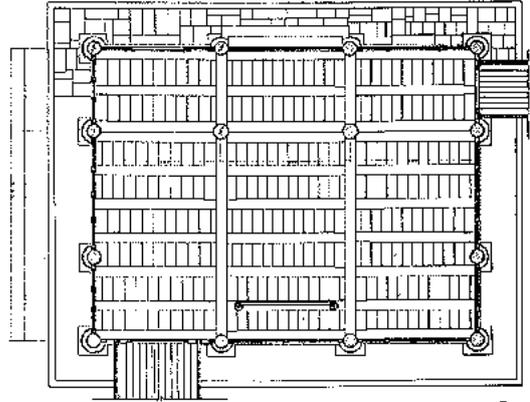
8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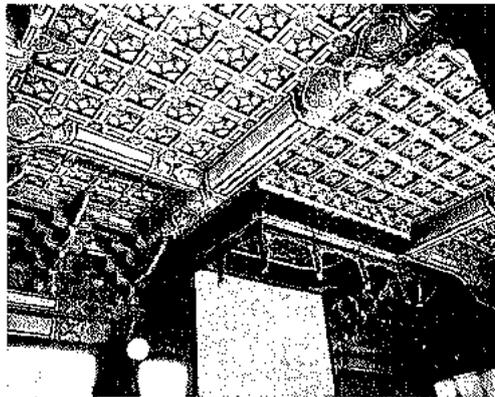


⑥



⑩

소실된 것을 선조41년(1608년)에 재건하였음이 1976년 돈화문 보수공사시 얻어진 상량문에 의하여 밝혀졌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2칸 중층의 우진각 지붕을 한 다포계의 형식이다. 정면 5칸중 중앙 3칸에는 판문을 닫아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양협칸은 벽을 쳐서 막았다. 공포는 아래윗층이 모두 內3출목 外2출목으로 쇠서는 강직하면서도 섬세한 특징을 갖고 3분두를 이룬 한대끝은 익공형으로 뾰족하게 변하고 그 위에는 당초문으로 조각된 초공을 외목도리 밑에 받치고 있다. 또 공포의 내부는 교두형으로 된 쇠서 끝단과 그 위에 唐草刻을 한 보아지를 만들어 보를 받치고 있다. 문의 架構를 보면 하층의 邊柱는 건물 주위에 놓이어 창방과 평방을 연결하여 돌리고 그 위에 포작을 포백없이 짜았다. 그리고 내측에 분짝을 단 信枋柱는 御間



⑫

- ④ 仁政殿 전경
- ⑥ 내부
- ⑦ 평면도
- ⑧ 종단면도
- ⑨ 정면도
- ⑩ 宣政殿 전경
- ⑪ 정면도
- ⑫ 평면도
- 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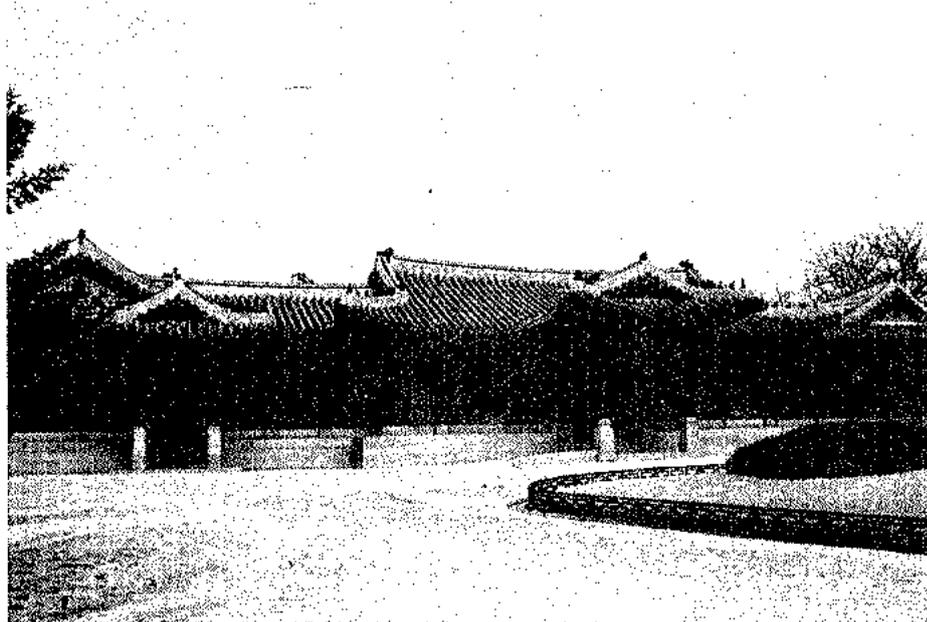
양연의 기둥은 1층 대들보의 중앙을 밑에서 받고 그다음 側間의 놓인 기둥 각 하나씩은 고주로 올리어 1층을 지나 2층의 대들보를 밑에서 받치고 있다. 그리고 2층의 邊柱는 1층 내목도리 부의 대들보 위에 놓이도록 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 견고한 重層構造를 보인다.

또 문지방은 차량의 출입이 있어 근세에 없었고 門上 枋 위에는 나무 살을 꿰어 막았다. 이러한 장치는 다른 일반적인 문루에서 흔히 있는 것이다. 1층의 반자는 우물반자를 꾸몄으나 2층은 반자를 두지 않은 연등천장을 하였다. 그리고 2층의 외벽쪽은 다른 성문 樓에서와 같이 판문을 달아 방어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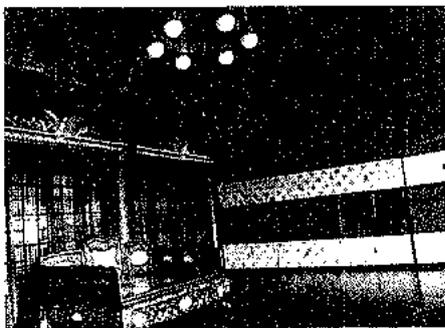
2. 仁政殿

태종5년에 초창되었으나 임진란때 불타고

다시 복구되었다가 1744년에 불타 다시 재건되고, 1803년에 또다시 화재를 입어 1804년에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二重月臺 위에 외벌대 기단을 놓고 그 위에 정면5間 측면 4間 2층 팔작지붕 다포계 형식으로 세워졌다. 기둥의 배치는 1층에서 内外陣을 두어 外陣은 변주고 內陣은 고주로 2층까지 뻗었다. 또 1층 內四隅에는 고주를 하나씩 배치하여 이것이 2층의 킷기둥이 되도록 하여 힘받이의 중요 구조재로 기능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중층구조인 경복궁 근정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근정전과 같이 밖으로 볼 때 2층이지만 내부로는 통층으로 되어 上層에 우물반자 등을 화려하게 꾸미었다. 내부 중앙 후측에는 龍床을 꾸미어 높이고 그위에 御座를 놓고 그뒤에 배경으로 日月五獸圖의 병풍을 두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잔재인 전등갓과 카텐이 변조된 창분과 또 쪽마루와 함께 어울리지 않게 꾸며져 있는데 원래는 1층 벽은 모두 전통식의 꽃살문이 돌려져 있고 상층은 교창으로 돌려 달은 것이다. 공포는 上下層이 內4출목, 外3출목으로 안초공과 낙양, 그리고 섬세한 쇠서 등을 둔 화려한 다포형식을 꾸미고 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이므로 월대 앞에 踏道와 3층의(3구획으로 구분한) 계단을 두고 그 앞에는 三道를 두고 이 양 옆에는 역시 品階石을 배열하였다.



15



16



17

3. 宣政殿

이곳은 인정전 동쪽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창덕궁의 便殿이다. 보통때 임금의 신하들과 政事를 집행하는 곳인데 주위에 행각으로 둘러져 그리 넓지 않은 아늑한 공간을 이룬다. 단층의 월대와 외벌대 기단 위에 정·측면 각 3間的 다포계 팔작 집인데 유일하게 청기와를 얹힌 건물이다. 기둥의 배열은 변주와 前面 內高柱 2개를 두고있어 창경궁의 명정전과 유사하다. 내부의 후측에는 어좌를 간소하게 꾸미고 그 배경으로 日月五獸圖를 그린 병풍을 둘러었다. 건물의 4면은 세살 분합창을 하고 후측에는 출입문을 두어 복도를 통하여 인정전과 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제시 개조된 것이다. 공포는 內3출목, 外2출목을 짜았는데 쇠서의 끝이 비교적 뾰족하고 그



18



㉞ 熙政宮 全경
 ㉟ 내부
 ㊱ 大造殿 내부
 ㊲ 전경
 ㊳ 演慶堂 사랑채 전경

위에 익공형 한대 뿔목이 섬세한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형식을 갖는다. 내부 역시 화려한 반자와 함께 당초문 보아지 그리고 교두형 살미끝단 등 조선후기의 선행형식도 흔해지고 있다. 이 건물 역시 임란시 불탄 것을 인조때에 재건하였고 다시 현종때(1674)에 수리하여 지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4. 熙政堂

燕山君日記 2年(1496)6月條에 ‘大造殿을 重修하고 修文堂을 改作할것을 命하였다’하였고 同12月條에 ‘崇文堂을 改하여 熙政堂이라 하도록 命하였다’하여 이때부터 회정당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당시 승문당이 어느 건물이었는지 修文堂을 誤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회정당 역시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광해군때 재건되었다가 仁祖反正時 화재를 입고 1647년에 대조전과 함께 복원되었다가 다시 1833년에 대조전과 함께 불탄 것을 재건했다가 1917년 다시 화재를 입고 일본인들에 의하여 1920년에 경복궁의 건물들을 뜯어다 재건한 것이다. 당시 純宗實錄 本末에 보면 ‘本殿 重建殿閣은 景福宮內 諸殿閣(交泰殿, 康寧殿...)의 舊材를 移建할 것을 總督府의 議定後 啓稟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왕이 평소 정사를 볼 수 있게 꾸미어 실내에는 서양식 가구와 장식 등을 꾸미었고 유리창문과 쪽마루 위에 카페트 등 변형된 것이 많다. 건물은 높은 장대석 기단 위에 角柱로 세워졌는데 정면 11間 측면5間이며 二翼工형식의 단층 팔작지붕이다. 건물내부를 거실과 응접실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응접실 동벽과 서벽 상부에는 金圭鎭이 그린 「金剛山萬物像圖」와 「海金剛圖」가 그려져 있다.

5. 大造殿

이 건물의 연혁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회정당과 거의 같은 것이다. 회정당 북쪽에 있는 창덕궁의 寢殿으로 中宮殿 즉 王妃의 寢所이었다. 세자가 뚜렷한 큰 인물을 낳으라고 대조전이란 명칭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경복궁의 교태전을 헐어다 재건한 건물로서 원래의 이곳에서는 成宗, 仁祖, 孝宗이 승하하고 翼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정면 9間, 측면 4間 二翼工 팔작집인데 지붕에 종마루대가 없는 것이 창경궁의 通明殿과 같다. 이것은 正위에 龍마루가 놓일 수 없는 格上의 뜻이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있는 大造殿扁額은 純祖의 御筆이다.

전면 중앙 3間쪽의 月臺를 두고 여기서 기단을 통하여 전면 退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양쪽 전면으로는 덧마루의 퇴를 두어 난간을 설치하였다. 건물 중앙 3間은 거실 겸 응접실로 사용하고 그 左右 2間씩은 王과 王妃의 침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침소 측면과 후면에 각각 5개씩의 작은 방을 두어 시종드는 나인들의 처소로 사용하였다. 또 거실의 바닥과 전후 退間 바닥은 현대식 쪽마루를 깔았고 왕과 왕비의 침실 및 작은 방들은 온돌방을 꾸미고 왕비의 침실에는 침대를 놓았다. 居室과 각 침실과의 사이에는 각각 8짝의 불발기 문을 달고 그 위 거실 동벽에는 「鳳凰圖」가 서벽에는 「群鶴圖」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 吳一道, 金殷鑄 등 네 사람이 덕수궁에 그린 것이라 한다.

6. 演慶堂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순조28년(1828년)에 사대부집을 모방하여 창덕궁 안에 세운 유일한 民家形의 건물이다. 그래서인지 정자인 濃齋亭의 익공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도리집이다. 그러나 일반 사대부집의 꾸밈보다는 섬세하고 세련된 가풍이다. 비원의 부용정과 주함루보다 더 북쪽인 깊은 숲속에 위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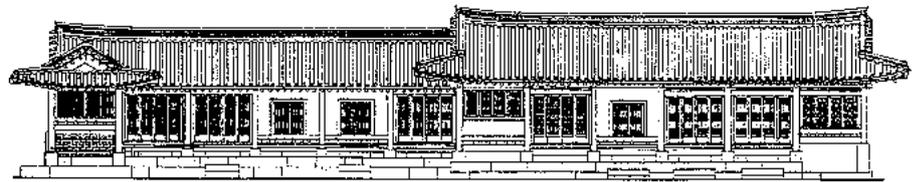


18

그 전체적인 평면을 보면 대체로 남향하여 중앙부에 안채와 사랑채가 左右로 붙어있고 그 남쪽과 서쪽에 행랑채와, 사랑채와 통하는 중문인 長陽門과 안채와의 통하는 脩仁門이 있고 동쪽에는 善香齋가 있고 이 동북에 농수정이 있으며, 안채의 바로 북에는 別堂이 담장으로 가려져 있다. 그리고 중문 남쪽에는 문간채가 가로 놓여 가운데는 대문인 長樂門이 놓여있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안채와 사랑채間に 낮은 담으로 隔牆을 시설하고 여기에 通碧門이란 일각문을 두어 필요시에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랑채와 처마 밑으로 안채로 통하는 관문을 두어 주인이 드나들 수 있게 꾸미고 사랑채의 동쪽끝에는 마루를 한층 높여 시원하게 꾸민 樓마루를 만들었다. 원래 연경당이라 함은 이 사랑채의 堂號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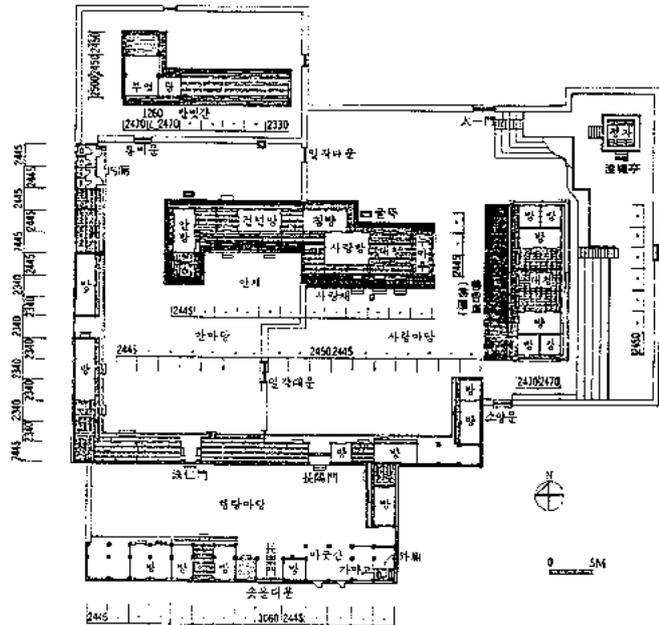
선향채는 독서와 書庫를 겸한 서향한 일자집이다. 서향을 해서인지 건물의 서편에는 遮陽間을 본채와 겹쳐서 시설하여 지붕에 동판을 이었다. 이러한 차양시설은 강릉의 선교장에서서도 볼 수 있어 조선시대에도 일부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농수정은 정·측면이 單間인 이담한 정자건물로 잘 다듬어진 기단 위에 높은 초석을 배열하고 세운 것으로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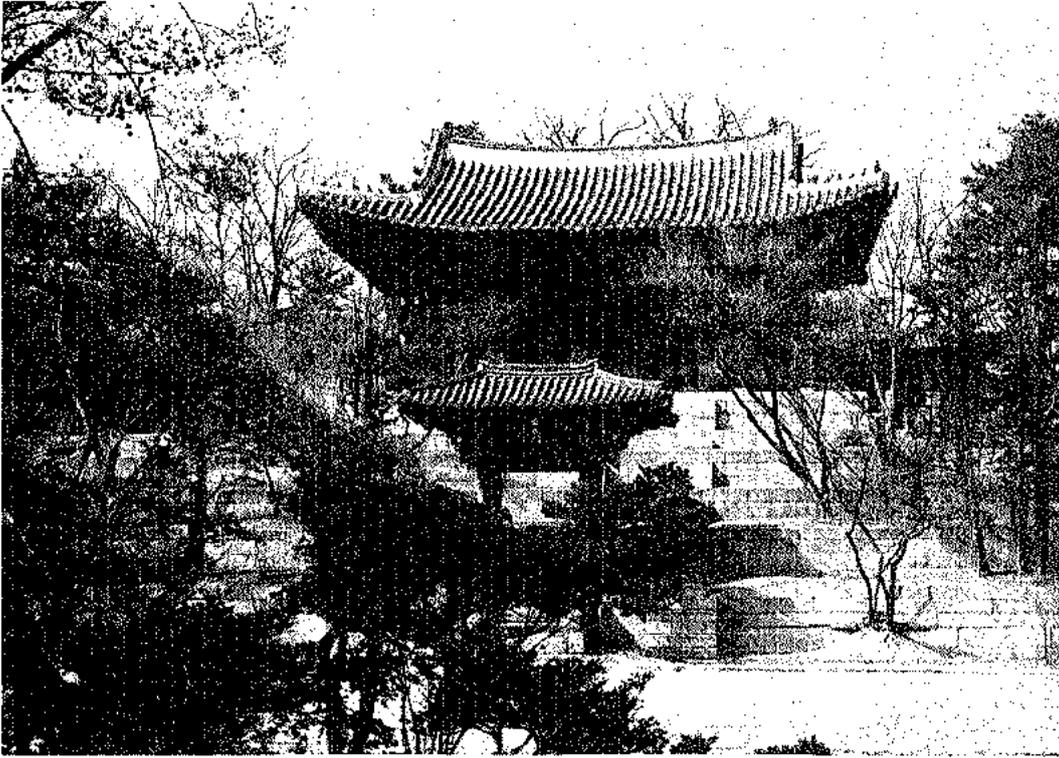


1/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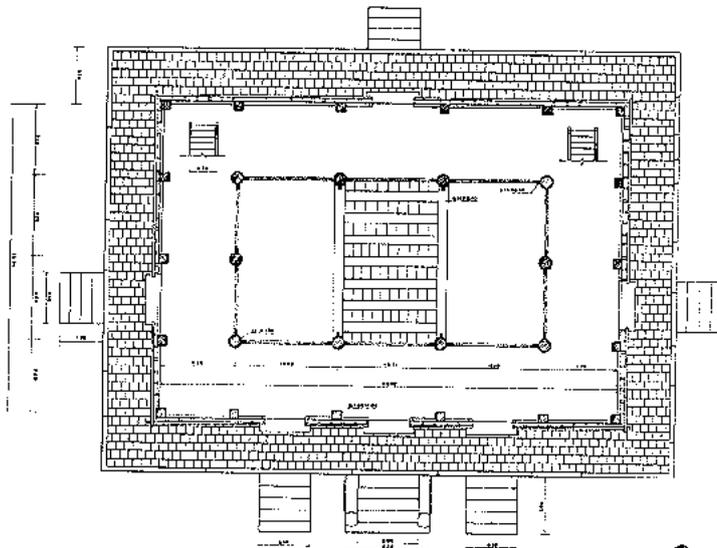


20



- ㉑ 演慶堂 안채전경
- ㉒ 정면도
- ㉓ 평면도
- ㉔ 魚水門과 宙舍樓 전경
- ㉕ 宙舍樓 1층평면도
- ㉖ 단면도

㉑



㉒

외부에는 退마루를 두르고 완자살 난간을 두었다. 전면과 서측면에 계단을 놓고 전면에는 濃繡亭이란 편액을 달고 기둥에는 주련을 달아 식위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건물의 사방에는 완자살의 四分閣을 달았는데 문살은 상당히 세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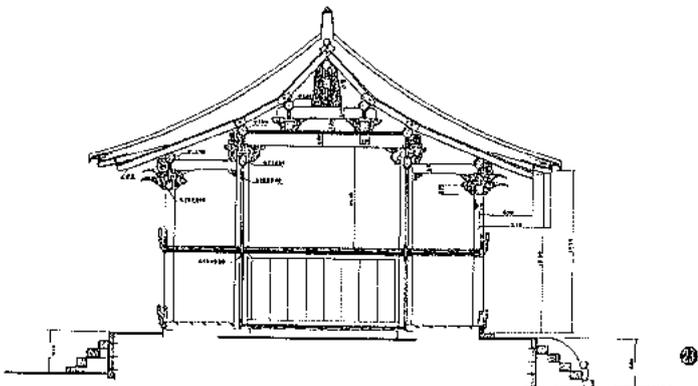
7. 宙舍樓

창덕궁에서 비원으로 넘어서면 바로 낮게 위치하여 펼쳐지는 것이 네모 반듯한 연못인 芙蓉池가 있고 그 가까운 쪽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로 噴花堂, 芙蓉亭 등이 보이고 이 반대편 높은 대지에 宙舍樓, 書香閣, 喜雨亭 등이 있고 이 花階처럼 쌓은 高臺에 오르는 출입의 문으로 '魚水門'이란 일각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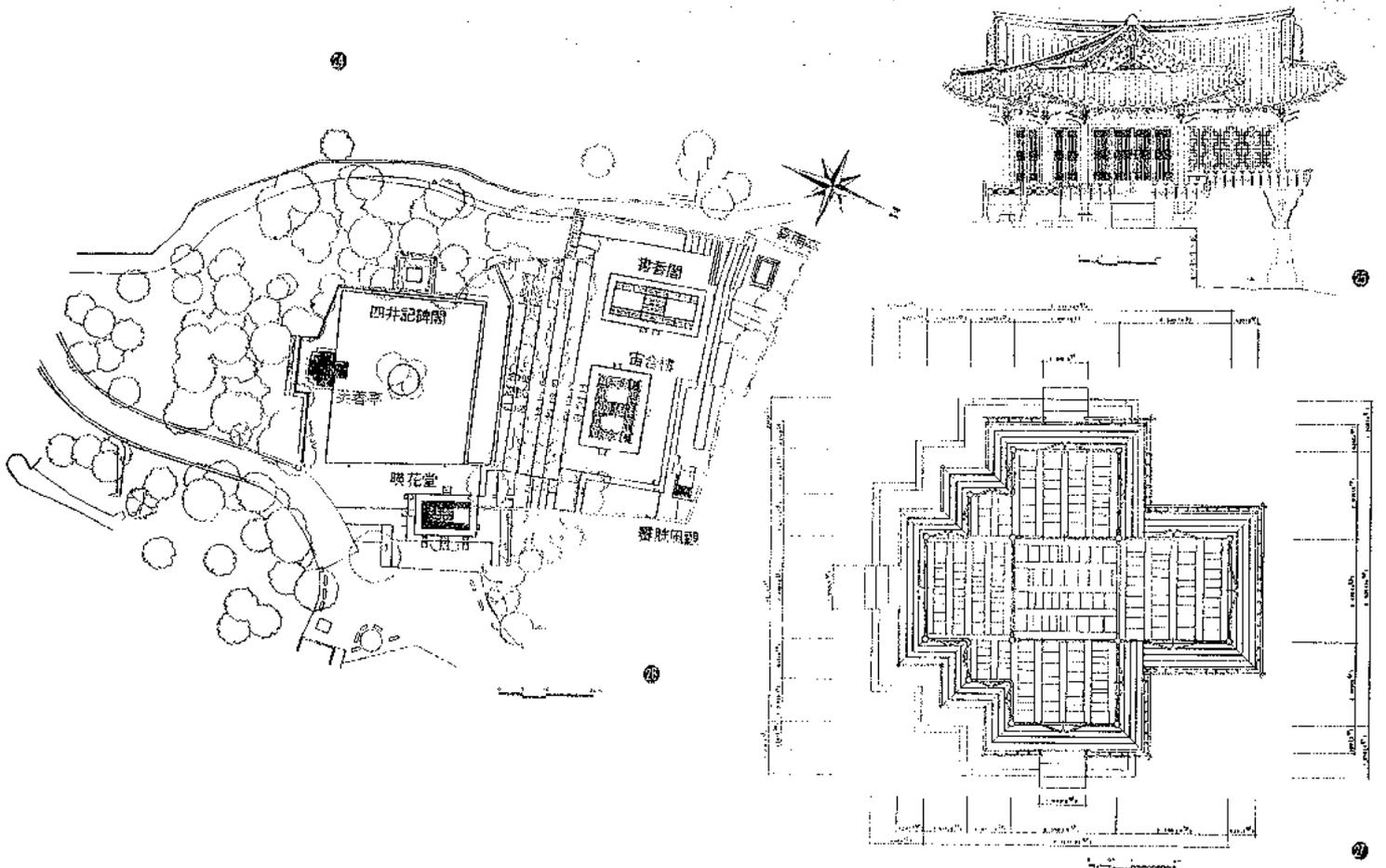
주합루는 원래 경복궁의 경회루와 같은 연회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건물은 正祖가 즉위하던 해에 완성된 것으로 정조는 이 주합루 아래층을 奎藏閣의 正室로 꾸미었고 이곳에서 朴齊家를 비롯한 柳得恭 등 실학을 연구·추구하는 무대가 되었었다. '宙舍樓'란 현액은 정조의 親筆이다.

그후 정조가 승하한 후 御眞과 御製, 御筆, 寶冊, 印章 등을 이곳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어수문 또는 그 양측에 지붕없이 꾸며진



㉓





작은 힘문을 통하여 이곳에 달하게 되어 있는데 문 양쪽에 아무런 담장도 없이 외부공간과 시각적으로 터져 있으면서 段築을 이용하여 실제적 접근을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게 만든 기묘한 방법으로 内外의 건축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대체로 남향하여 정면 5間, 측면 4間인 2층樓 팔작집이다. 기둥은 外陣角柱와 內陣圓柱로 되어 上下層 내진에 세살문을 달아 둘러막고 방으로 사용함이 보이도록 했다. 외신의 기둥밖으로는 上下層 다같이 鷄子欄干을 하고 있음도 다른 곳에서 보기도 못한 것이다. 공포는 2翼工의 간결한 형식을 취하고 바닥과 천장을 우물마루와 우물 천장으로 하였다.

8. 芙蓉亭

芙蓉池 남측변에 세워진 정자로서 그 평면이 특이하게 '亞' 지형을 기본으로 하여 변형시킨 것이다. 연못쪽으로는 8각의 돌기둥으로 된 두 다리를 물에 삼그고 이쪽으로 뻗은 層높은 樓間을 지지하고 남쪽으로는 平面上 '十'자로 잡힌 귀에

- ㉔ 芙蓉亭 전경
- ㉕ 정면도
- ㉖ 배치도
- ㉗ 평면도
- ㉘ 暎花堂 전경

註)

1) 文化財管理局, 朝鮮朝王宮重要建築物指定報告書(1), 1984.

2) 서울특별시, 서울의 傳統文化 제1권, 1982, p. 360.

轉角의 들출부를 두어 이들 깃기둥을 연결하면 마치 八角의 평면을 이룬 듯하다. 건물 외부로는 난간을 들렀는데 鷄子와 띠살난간을 혼용하였다. 지붕 가구 역시 전각구조에 맞추어 교묘한 기법을 사용했다. 이 건물은 정조때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포는 2翼工의 간결한 형식이다.

비원에는 이와 같이 건축기법이 특이하고 기묘한 정자가 여러 동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9. 暎花堂

1692년 숙종때 이 집을 짓고 후에 이 집은 文武百官의 과거장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정면 5間, 측면 3間的 2익공 팔작집이다. 높은 기단 위에 一자집으로 세워진 건물은 방 한칸만 온돌이고 대청과 뒤킴으로 되어 동쪽과 남쪽으로 계자난간을 두른 집이다. 必要에 따라 대청 三面の 문짝을 터서 날아 올리면 三面的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외형으로 소박하고 꾸밈이 없어 그 주위의 자연경치와 어울린다.



일본 현대건축과 해체적 경향

Deconstructive Tendency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어떻게 하여 ‘자신’을 파괴하는가?
이것이 가설의 최종목표이다. 시스템의
자율적인 전개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다. ...
시스템 내부에 ‘자신’이 융합하는 순간,
가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을 파괴하는 자신, 을 파괴하는 자신, 을
파괴하는 자신, 을 파괴하는...”

난바 가즈히코(難波和彦)

1. 해체인가? 가설인가?

포스트 모던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건축적 경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설득력있는 대답은 현대계에서는
해체(Deconstruction)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이 테크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의 건축비를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채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역시 포스트 모던의 열풍이후 많은
건축가들이 해체적 경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있어 가장 건축적
경향(유행?)에 민감한 건축가로 필자는
필립 존슨(Philip Johnson)과 이소자키를
거론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최근작에서
해체적 경향이 농후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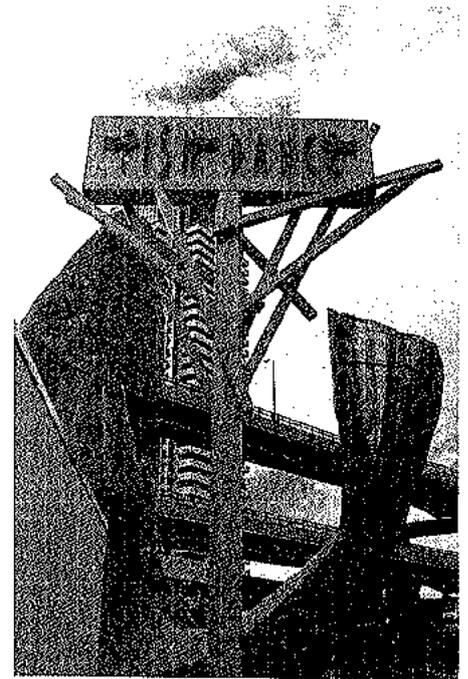
존슨은 포스트 모던풍으로 디자인했던
타임스 스퀘어 센터(Times Square
Center: 1983~)를 해체풍으로 다시
재조립한 계획안을 선보였고, 이소자키는
그가 기타큐슈 시에 건립했던
서일본종합전시장(1975~77)
부속국제교류센터(1987~)계획안을
해체주의풍으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건축에 있어 포스트 모던이나 해체나 하는
것은 이제는 Ism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건축적 상품목록의 일부 리스트에 불과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민감한 세태를 대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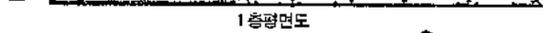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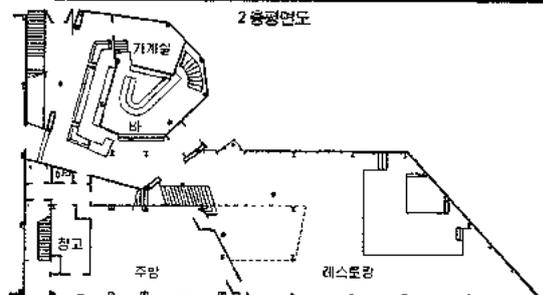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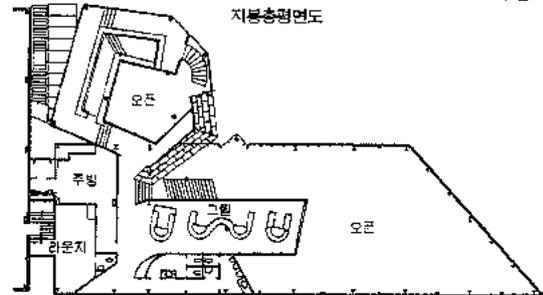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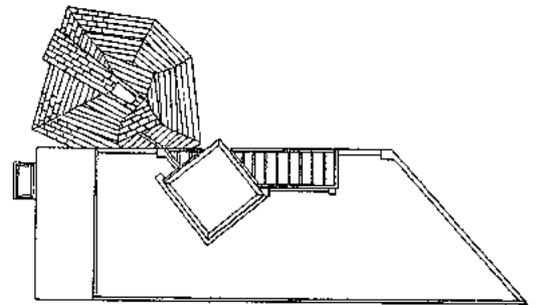
전술한 국제적인 건축가가 해체주의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해체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건축경향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현대건축에서 거론할 수 있는 해체적
경향의 건축물로는
스즈키 료지(鈴木了二)의
물시시행 20-아자부(麻布)에지(1984~87),
기타가와라 아쯔시(北川 原温)의
라이즈(RISE: 1984~86),
고미야마 아끼라(小宮山 昭)의 4Th
(1984~86), 후지히로미(藤井 博巳)의
우시마도(半窓)국제예술제 사무국
(1984~85)과
시바우라(芝浦)공업대학 제2체육관 등과
나카이 후미히코의 스파이럴(1982~85)이나
시노하라 가즈오의 토오쿄오 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도 해체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해체보다는 가설이란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를 보게되는데 그 사례로
도시주택 86년 12월의 특집
“가설(假設)감각”에서 가설의 정의와 그
징후군들을 건축 및 타분야와 연결시켜
해설한 경우를 거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설이란 개념은 해체적 현상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풍피두센터나
로이드보험회사빌딩같은 하이 테크건축의
시각적 가설현상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 이
시대의 포괄적 현상을 해설한 것이다. 이
특집에서 구류우 아끼라(栗生 明)는 가설의
감성은 공간의 제외성, 미로성, 시장성,
연극성, 유희성, 허구성, 비밀상성, 애매성,
효과성, 즉흥성 중에 표현되고 있으며
건축과 도시는 장소의 부동성과 시간의
영원성이라는 기념적인 신앙의 대상에서
순간순간 변용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욕구의
대상을 이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건축적으로는 기성(器性)이 용해된 건축,
완결성을 거부한 건축, 제도화된 감성을
파헤쳐버린 건축, 오브제화한 건축,
단위공간당의 부가가지와 공간밀도를
상승시킨 건축, 약의와 불쾌 및 불안의
건축'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가설이라는 현상은 데이빗 호이(David
Hoy)가 “데리다의 해체주의”라는 글에서
“데리다는 형이상학적 가정들이 결코 이제는
순수하게 신뢰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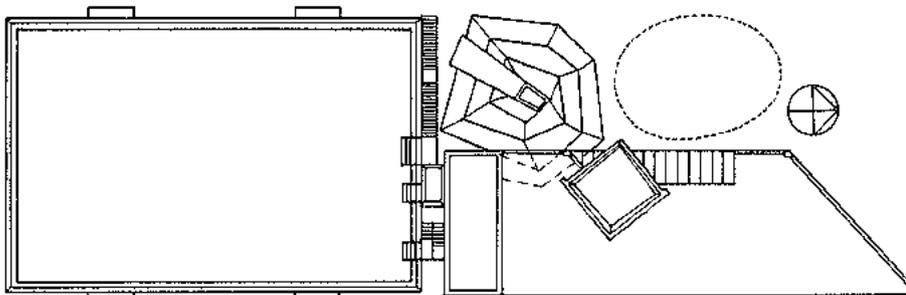
金文德/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by, Kim, Moon-D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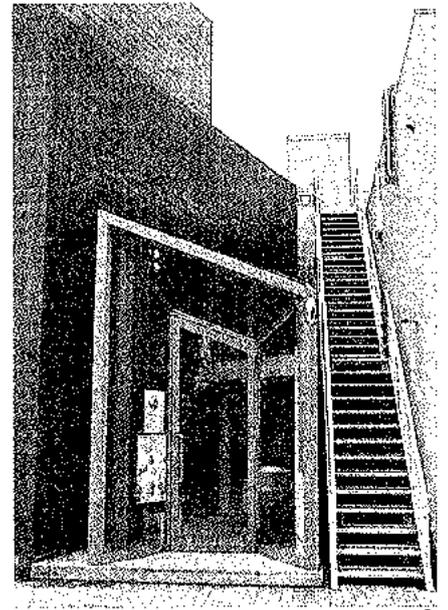
1



2



3



구조주의자들에 동의하며, 이런 까닭에 거대한 전통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형이상학을 극복하려는 오늘날의 시도들을 오히려 해체한다. 말하자면 그는 말하기와 글쓰기, 정신과 육체, 내부와 외부, 선과 악, 우연과 본질, 동일성과 차이, 현전과 부재, 공간과 시간, 지구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 남성과 여성 등등의 대립쌍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형이상학적 성향들을 폭로함으로써 오늘날의 시도들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²¹ 라는 말과 서로 오버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설적 현상의 원인을 60년대의 고도성장 및 근대합리주의와 구별하여 70년대 오일쇼크 등의 대사건후 성장에의 회의와 근대합리주의의 종말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론적 시각이 80년대 건축가들의 표현행위로 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의 해체주의 건축가의 작품이 몇 개 실현된 사례가 있으며 그것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코오베(神戸)에 설계한 피쉬댄스(Fish Dance: 1987)라는 식당점 미술관과 코프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가 토오쿄오에 설계한 코노산테(Kon'yo Shente :1987)라는 의상점의 실내설계이다. 코오베의 포트피아 박람회장이 개최되었던 인공섬 포트 아일랜드(Port Island)가 바라다 보이는 해변가의 메리켄

◎ Fish Dance빌딩

- ① 광장에 설치된 물고기형 오브제의 이중 체인연결망 구조
- ② 뱀이 꼬아리틀튼 형태를 추상화 한 바 측에서 본 전경
- ③ 물고기가 튀어 오르는 형태의 오브제가 인상적이다. 후면에 인접한 고기고속도로가 보인다.
- ④ 배치도
- ⑤ 위로부터 지붕층, 2층, 1층 평면도
- ⑥ 주출입구 부분상세
- ⑦ 입구 홀 부분
- ⑧ 간이식당 출입구부 상세

공원에 위치한 피쉬댄스는 바로 인접해 한신(阪神)고기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건축물 전면에 튀어오르는 듯한 물고기 형태의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식당은 중이층의 레스토랑 및 바, 간이식당과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적으로 전면에 설치된 물고기 형태와 뱀이 꼬아리틀튼 형태를 추상화시킨 바, 그리고 사다리꼴형 평면을 지닌 레스토랑이 기존의 직교체계를 지닌 건물과는 다른 특이한

인상을 부여한다. “나는 물고기 형태의 다양함과 완벽함에 매료되었다.”고 신술하는 게리에게 있어 이 물고기 형태의 오브제는 그에게 친근한 형태인 동시에 이 해변에 위치한 식당의 존재를 고속도로 등에서 인지시키는 상징적 간판의 역할, 그리고 그와 같이 여러해 작업을 같이한 오브제 조각가 클레이스 올덴버그(Claes Oldenberg)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구상적 조각이다.

이 65ft (약 20m)높이의 이 물고기형 오브제는 올덴버그의 거대하게 확대시킨 야구방망이나 편처럼 충격과 당혹감을 유발시키는 형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식당의 부정형적인 공간은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삶과 공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예기치않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자 의도하고 있다. 즉 게리는 규격화된 공간을 해체함으로써 형식화된 삶에서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프랭크 게리의 이 식당건축물과 코프 힘멜블라우의 작품은 일본건축가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해체주의 건축가인 피터 아이젠만이나 몰포시스, 자하 하디드, 렘 쿨하스 등이 일본내의 프로젝트에 관계하고 있는 것에 의해 일본현대건축에 해체적 경향을 확산시키는 촉매적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필자는 마끼의 스피어럴을 비롯해

스즈키의 물질시행 20-아자부 예지, 기따가와라의 라이즈, 고미야마의 4Th 등의 해체적 성향의 건축물을 방문했으며 이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일본현대건축의 해체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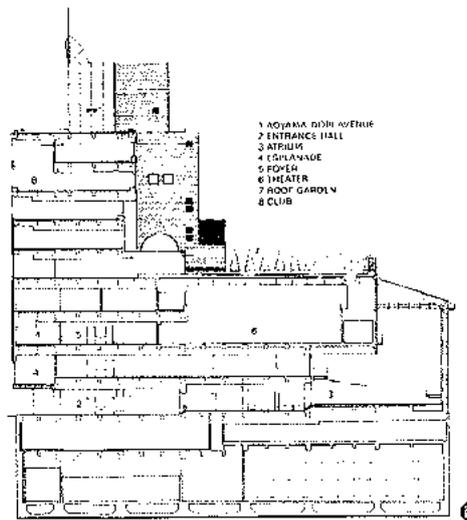
2. 스파이럴(Spiral)빌딩

마끼 후미히코의 스파이럴 빌딩(1982~85)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해체주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해체적 징후가 공간적 측면보다는 형태, 그중에서도 입면에 국한하여 그 징후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쿄오의 시부야(涉谷)와 아카사카(赤坂)를 연결하는 패선의 중심가인 아오야마(青山)거리에 위치한 여성용 의류메이커인 와콜사를 위한 건축물인 스파이럴은 "좀더 가볍게 좀더 일상적으로 예술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것인가?"라는 테마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로 전시관과 다목적 홀, 카페, 비디오스튜디오, 행위에술공간이 있는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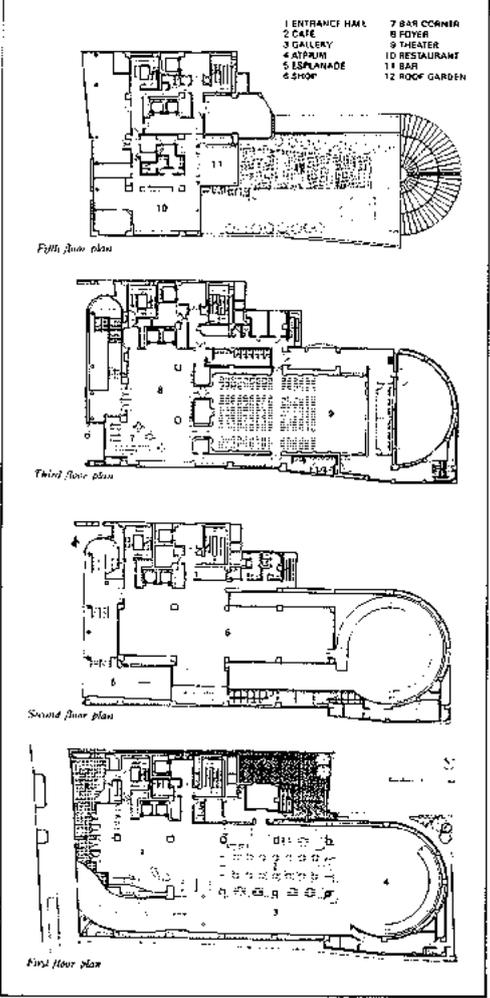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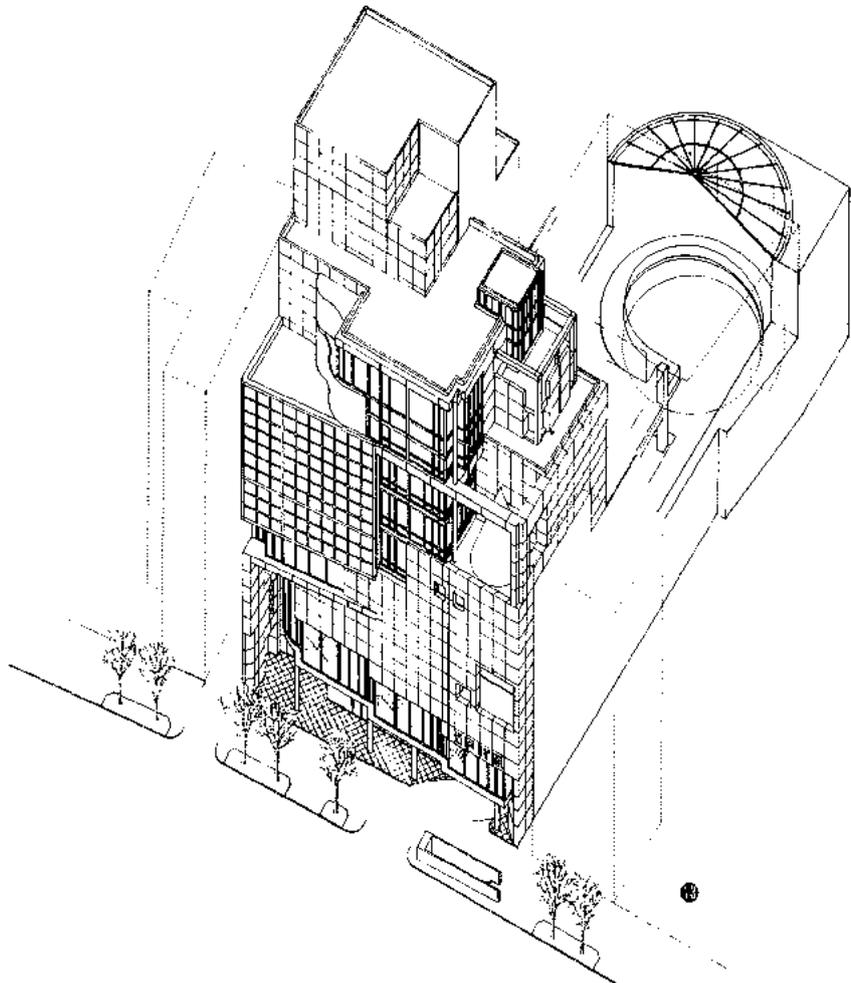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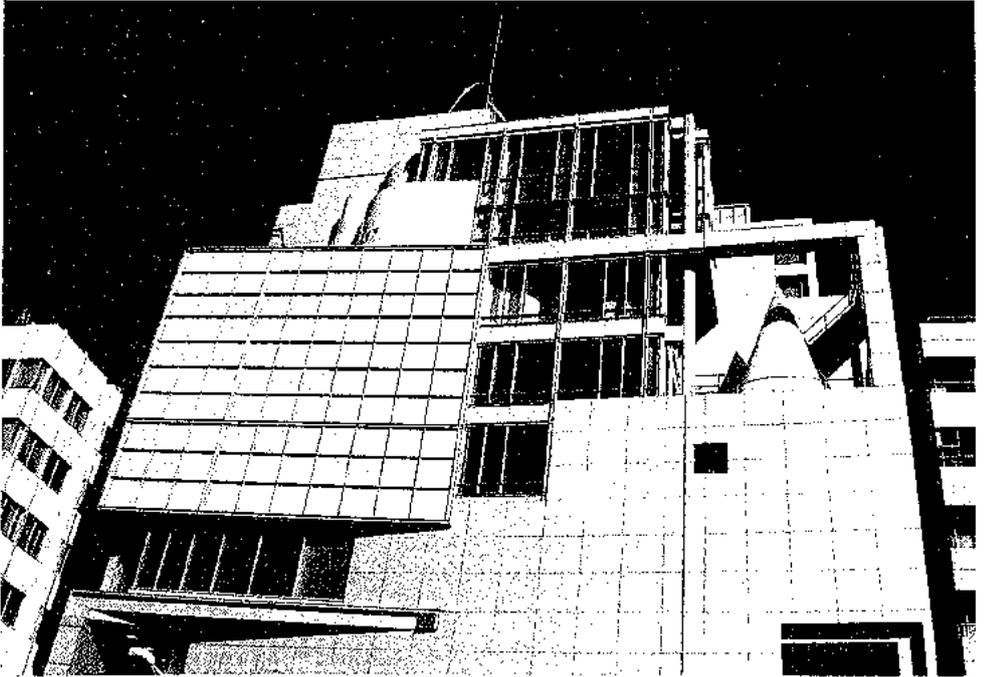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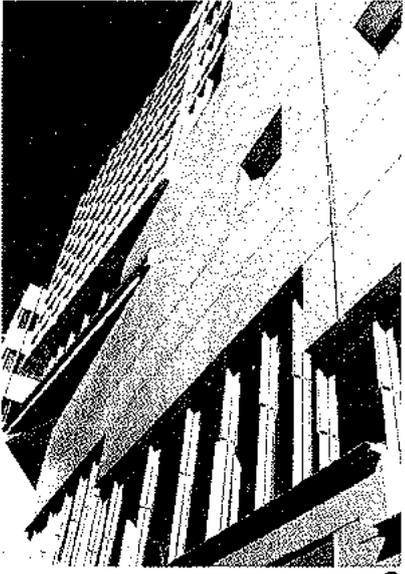
마끼의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르게 설계된 이 건축물(특히 외관에서)은 후면에 상부가 톱라이트로 이루어진 1·2층을 연결하는 커다란 스파이럴(나선)경사사가 특징적이며 이 건축물의 명칭도 이 나선형 경사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나선이란 건축물의 명칭은 근대건축에서 비이스의 전원조벽돌주택 계획안(1924)이 방사형 구성을 취함으로써 중심성과 방의 개념의 해체를 시도했던 것처럼 명칭에서조차 해체를 상기시키는 뉴앙스를 풍기고 있다. 마끼는 이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표층을 구성하는 부품의 자립성만이 아닌 그 배후에 존재하는 공간군의 의도적 자립성도 추구하고 있으며 하나의 건물안에 갖가지 성격을 지닌 공간체를 내포시키는 것에 의해 각각의 자립성 그리고 전체로서의 복합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건축물 내부의 복합적 성격이 입면에서 그 복합성을 암시하는 입면적 단면들이 콜라주되어 구성된 것이 이 건축물의 입면의 구성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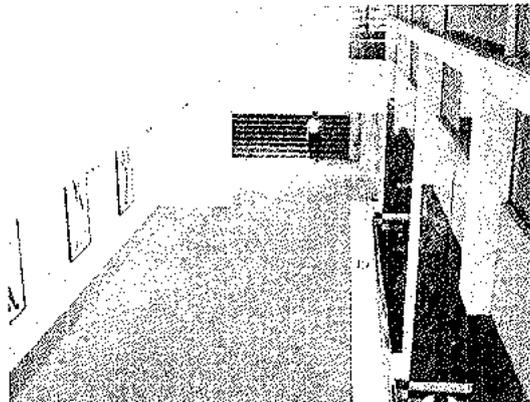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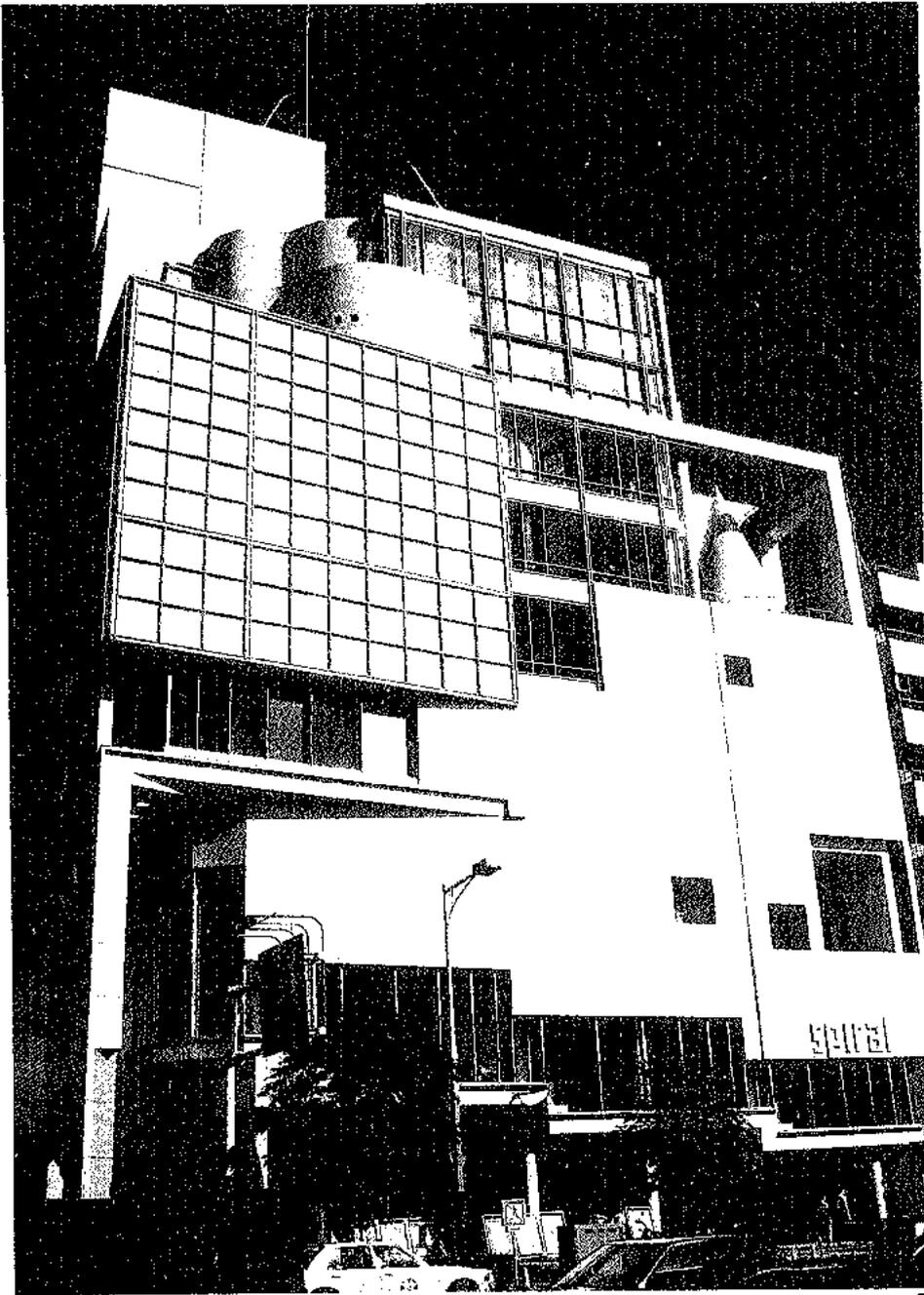
어반디자인·내부기능·외피로서의 성능



◎ Spiral빌딩

- ① 아오야마거리에서 바라 본 전경
- ② 주단면도
- ③ 입면요소들은 약간씩 엇갈리면서 불협화음적 구성을 보인다.
- ④ 근대적 형태요소가 적용된 상부입면구성
- ⑤ 엑소노메트릭
- ⑥ 위로부터 4층, 3층, 2층, 1층 평면도





- ⑫ 여러가지 다양한 입면요소로 콜라주로 구성된 입면형태
- ⑬ 2층부분 Shop 전경
- ⑭ 1층의 다목적 홀 공간
- ⑮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겸 휴게공간, 입면에서 단형구성이 표현된 실내공간
- ⑯ 나선형 경사도가 보이는 1층 실내전경
- ⑰ 저층부의 단형 개구부는 실내계단에 그대로 형상화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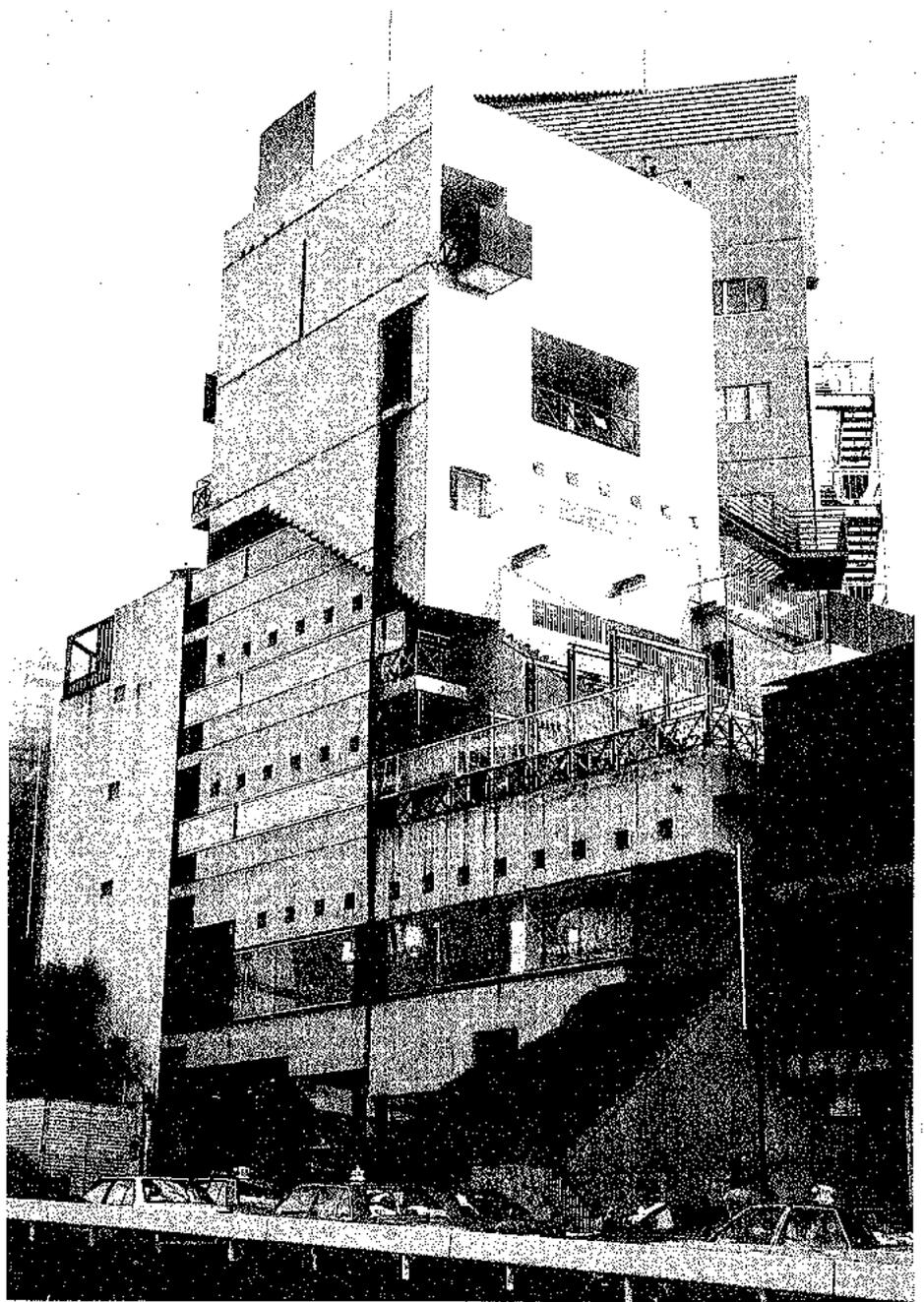
등을 고려하여 저층부에 단연구성의
 개구부는 나선형 경사로를 통해 2층의
 숲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는 출구부분의
 계단이 형성화된 것이고, 중간부의 1.4m
 알루미늄 격자판넬의 모듈이 10개씩
 정방향으로 구성된 프레임은 혼란스러운
 입면의 시각적 균질성을, 원주형 구조물은
 여성의 브레이저를 형상화한 상징성을
 부여한 자립적인 요소들의 콜라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측면에서 이 건축물이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 성격과 토오요의,
 그리고 혼란스러운 야오야마 거리의
 불협화음을 반영하는 거울로 이 스파이럴은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다.

3. 물질시행 20—아자부(麻布) 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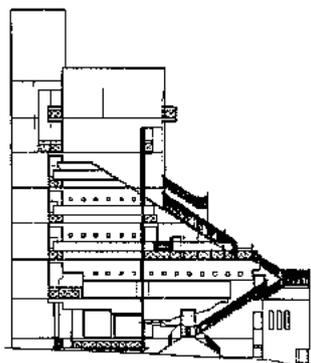
스즈키 료찌라는 1944년생의 건축가는
 물질시행이라는 건축물 연작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아자부(麻布)
 예지(Edge)는 그의 연작 중 20번째
 건축물로 외국대사관들이 모여있어 미국적
 분위기를 지닌 아자부
 일각(一角: Edge)에 자리잡고 있다. 이
 상업용 건축물이 위치한 이 지역은
 롯폰기(元本木)와 아자부의 경계지역으로
 고속도로, 터널, U턴 도로, 미군의 헬기
 착륙장, 고도성장기 이전의 낡은 주거 등
 잡다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몇 겹의 절단된 지대의 일각이며
 대지 형상 역시 부등변 5각형으로 정형화된
 건축물이 들어설수 없는 상황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작품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이 건축가가 화가나 조각가와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스즈키 료찌는 상업용 건축이란 기능을 가진
 설치미술과 같은 가설장치를 의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중 가장 강력한
 것은 계단이며 이 계단형 구조가 상부에서는
 엇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이
 위치에 롯폰기와 아자부가 서로 엇물려
 있듯이...서로 틈니로 엇물려 있는
 부분에서는 엇물려 돌아가는 불협화음이
 들릴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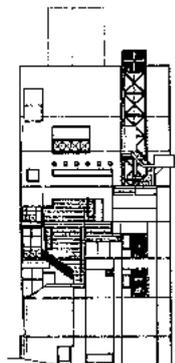
건축가는 이 건축물에서 계단이 강조된
 이유로 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업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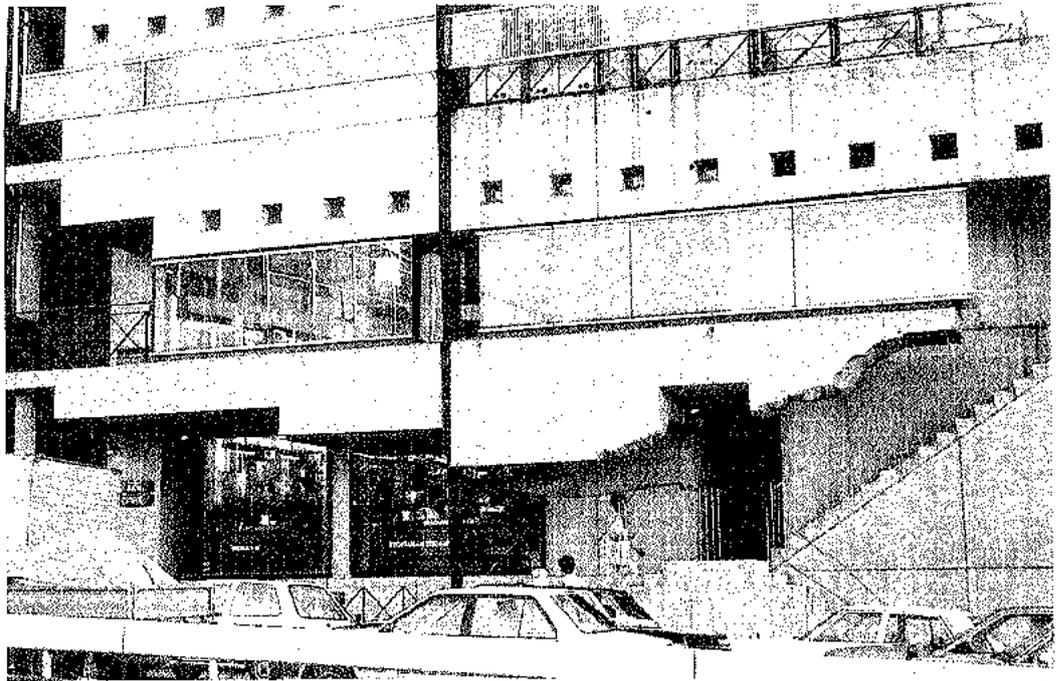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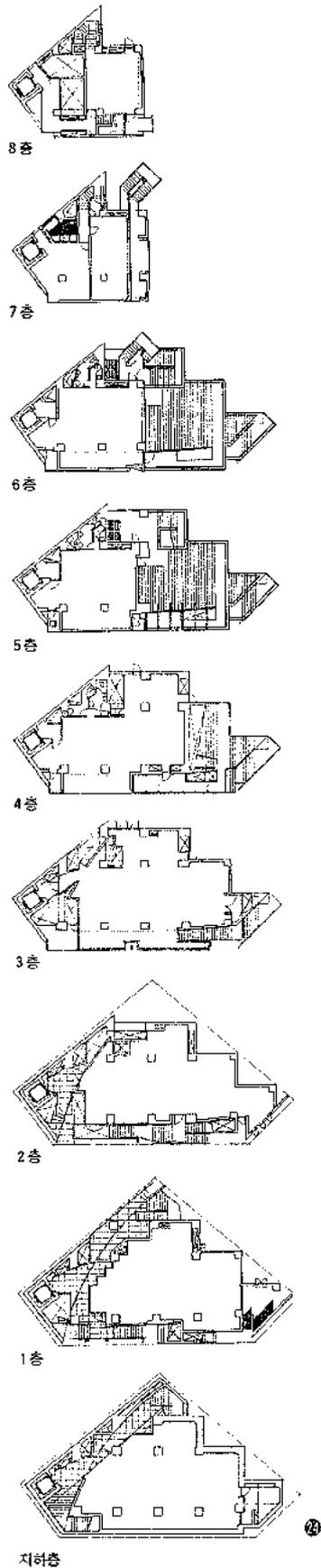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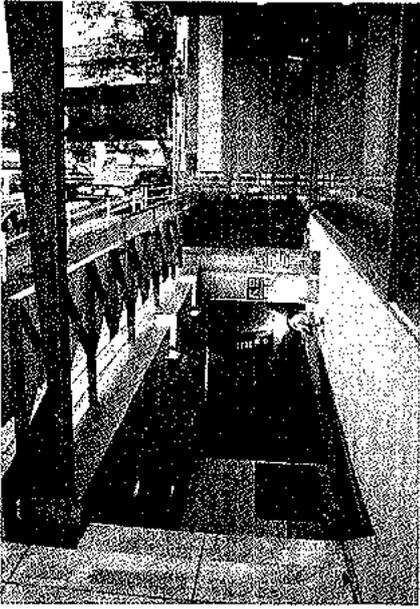
22



23



- ◎ 아자부 예지 빌딩
- ㉑ 상부에 계단구조가 엮어린듯한 형태가 인상적이다.
- ㉒ 동측입면도
- ㉓ 북측입면도
- ㉔ 각층평면도
- ㉕ 저층의 출입구부분 옥외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상부는 일부러 콘크리트를 깨놓았다.
- ㉖ 강한 인상을 부여하는 계단부
- ㉗ 지하층 연결통로
- ㉘ 전경
- ㉙ 전면과 후면의 레벨차를 연결하는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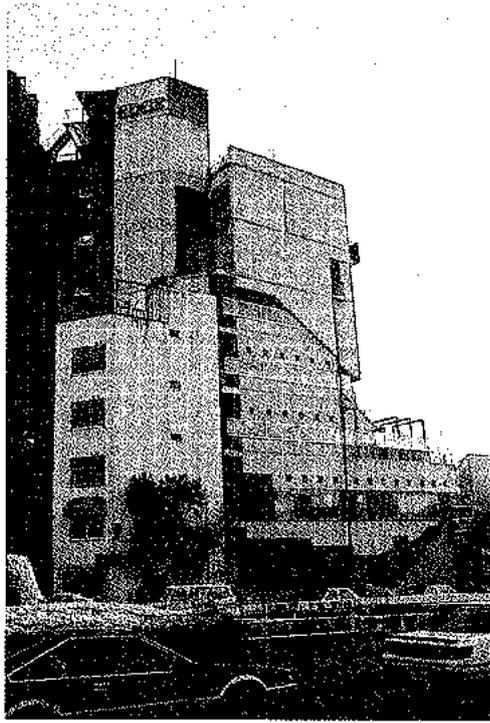
27

건축의 성격상 계단 및 통로 등의 공용부분을 외부화함으로 임대비를 높이려고 한 시도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계단은 수익성을 방패로 한 형태적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가 임대공간이고 7·8층이 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면도를 보면 계단이 우측의 한 점에서 대각선으로 뻗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단형 구조는 이 건축물의 전면과 후면도로의 레벨차도 암시하고 있으며 건축가는 전후면도로의 반층차이의 고저를 이용하여 법규상의 문제와 지하 1층을 후면에서는 1층으로 느끼게 하도록 고려하는 건축적 편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노하라 가즈오가 그의 건축물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하는 랜덤 노이즈(Randon Noise)가 들릴 것같은 건축물이 바로 아자부 에지이다

이 건축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노출콘크리트의 외벽에 돌출된 P형강이다. 콘크리트와 철관이 지닌 황량하기까지 한 공격성은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철골오브제를 연상시킨다. 스즈키 묘찌에게 있어 물질시행 20-아자부 에지는 건축적 조각으로 토오쿄오라는 도시의 황량함을 표시시키는 공간적 장치이며 독일의 영화감독 빔 벤더스(Wim Wenders)의 "파리-텍사스"에서 보여지는 현대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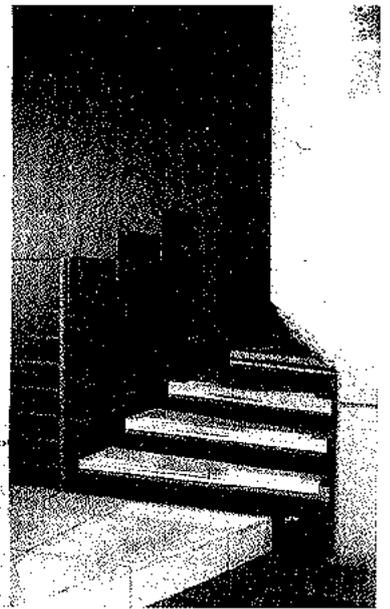
28

대형사의
슈프리더만을 사용해서
발을 하고
각자가
나·내일·저쪽이라고
말할 뿐, 고유명사적인 것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자유를—
차이의 애매성이야말로
언어의 가장 위중한
가치가 되는
그런 자유를?
발하자면
예로부터의 유동상태를?

공허를 상징하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4. 라이즈(RISE)

시부야의 대표적인 거리로는 역에서 NHK로 향하는 코오엔도오리(公園通川)와 세이브(西式)백화점 뒤에서 파르코 본관까지의 스페인 거리 등을 거론할 수 있고 이 거리는 최신 유행의 패션 전문점과 음식점 그리고 젊은이들로 붐비는 장소이다. 특히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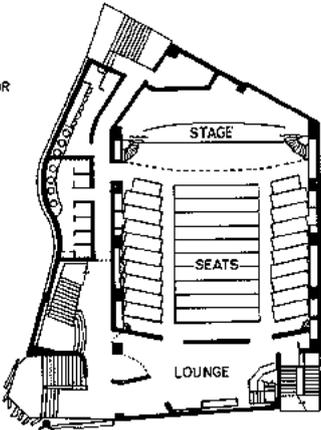
라이즈가 면해 있는 스페인 거리는 지난 10년간 변화가 현저한 곳으로 고저차가 있는 장소에 라이즈가 위치해 있다.

스파이럴이 도시의 복잡성을, 아자부 에지가 도시의 균열과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다면 라이즈는 도시의 침식작용이나 부패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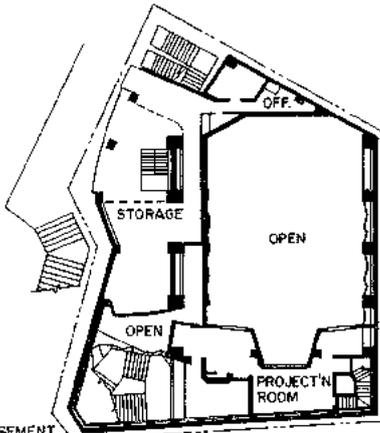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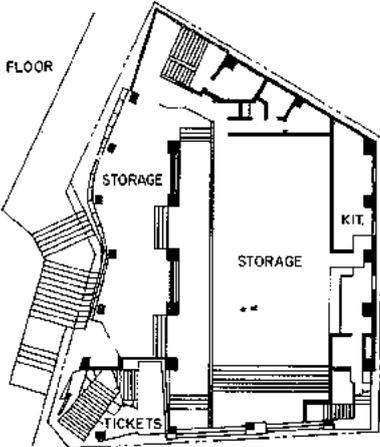
외형상 지붕의 알루미늄판이 열을 받아 흘러내리는 듯한 용해된 형상과 건축의 완결되었다기 보다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듯한 완결성을 거부한, 어딘가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대표하고 있는 듯한 건축물이 바로 라이즈이다. 이런 시각은 건축가 기마가와와의 말이 잘 대변하고 있다. "라이즈는 건축이기에 앞서 도시의 단편이고, 갖가지 도시 내면의 집적(集積)과 그림자이며 밤의 정원이다."¹¹

토오쿄오 시부야지역의 화려한 듯한 혼란함과 잡다함뒤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이 이 건축물로 표현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외형은 보는 사람마다 여러가지로 해석가능한 상징적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서리부분의 입구상부에 몇개 철관오브제와 연결된 유리 캐노피와 계단형 콘크리트 구조물, 우측의 벽과 지붕이 구분되지않는 곡선형 동판마감, 좌측의 고저차를 연결하는 계단에 면한 곡선형 커튼 월과 환기탑같은 오브제, 그리고 스텔레스판을 종이를 구겨버린듯하게 구성한 단편의 부착,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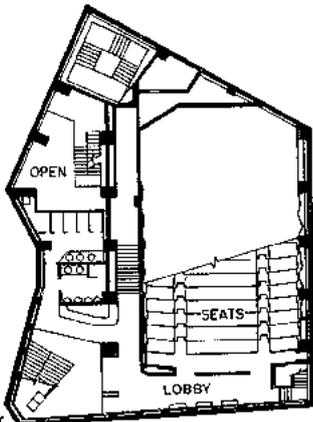
SECOND FLOOR



FIRST FLOOR



FIRST BASEMENT



SECOND BASEMENT



31

◎ Rise빌딩

⑩ 위로부터 2층, 1층, 지하1층, 지하2층 평면도

⑪ 알루미늄 캐스트판이 용해되어 흘러내리는 듯한 형상을 한 지붕면과 오브제와 건축이 결합된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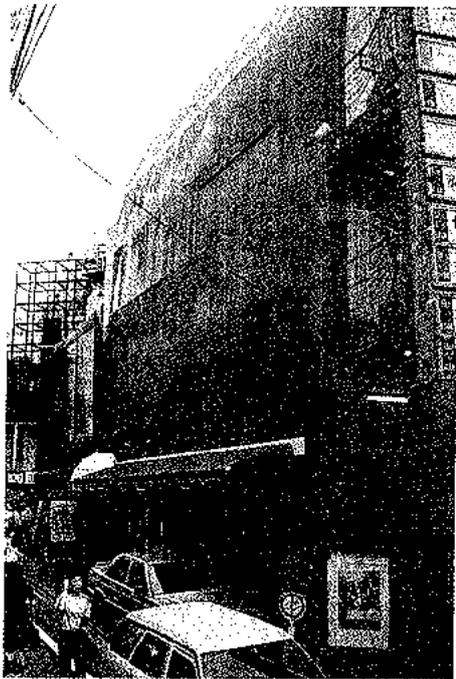
⑫ 측면 전경

⑬ 시부야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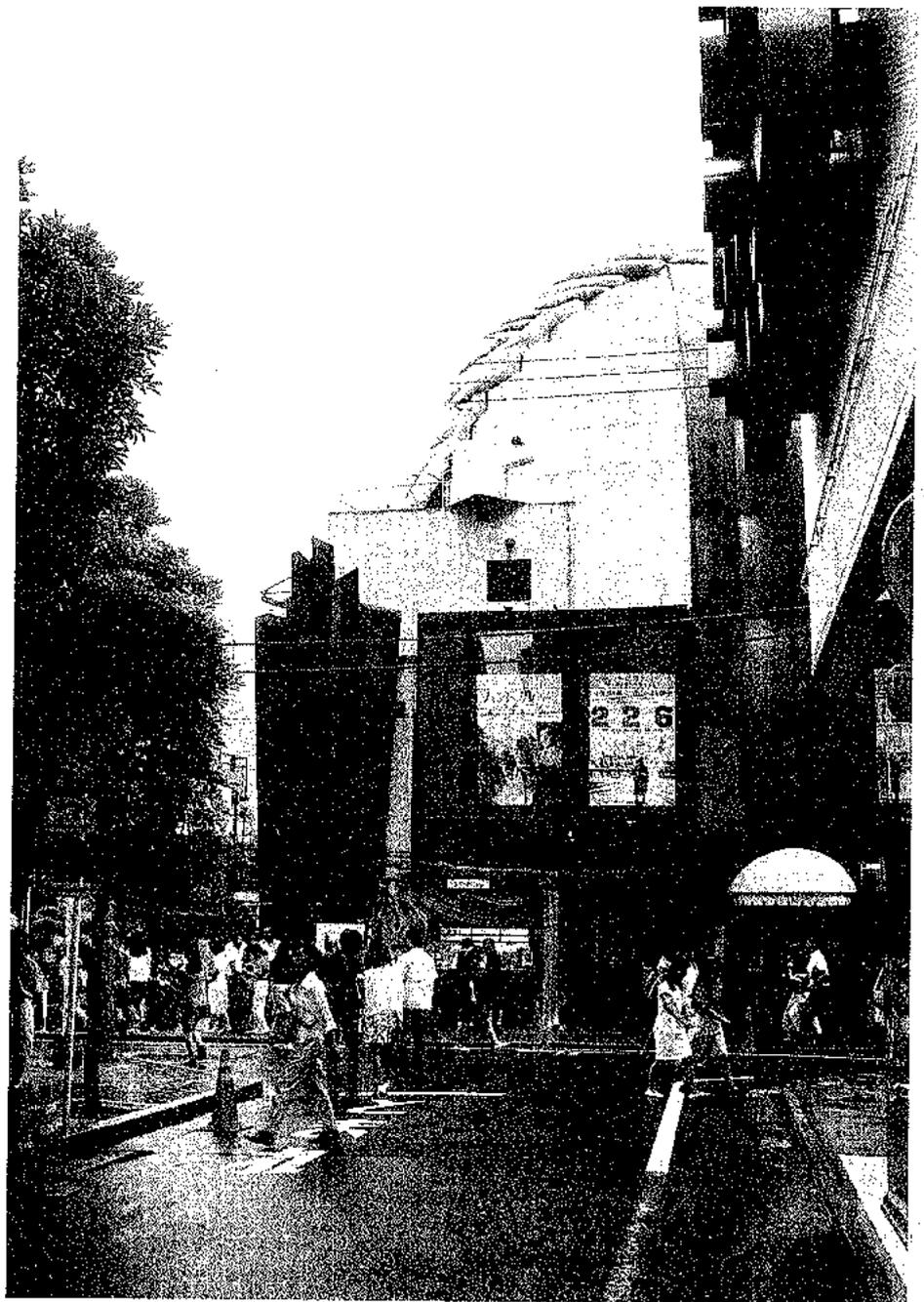
⑭ 레벨차를 연결하는 옥외계단에서 바라볼.

⑮ 미완성의 이미지를 질게 풍기는 지붕면

30



92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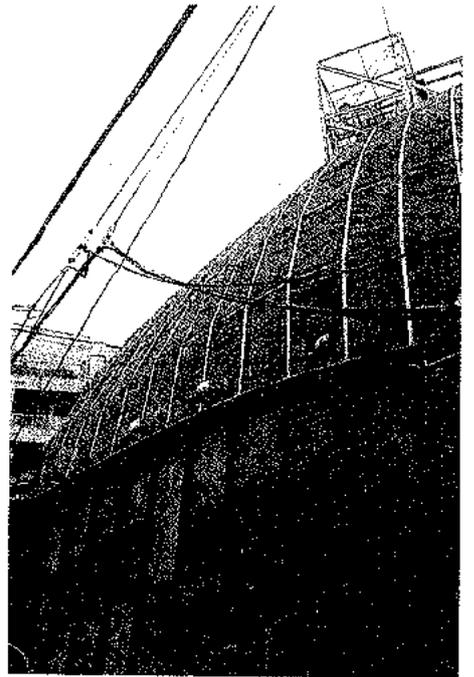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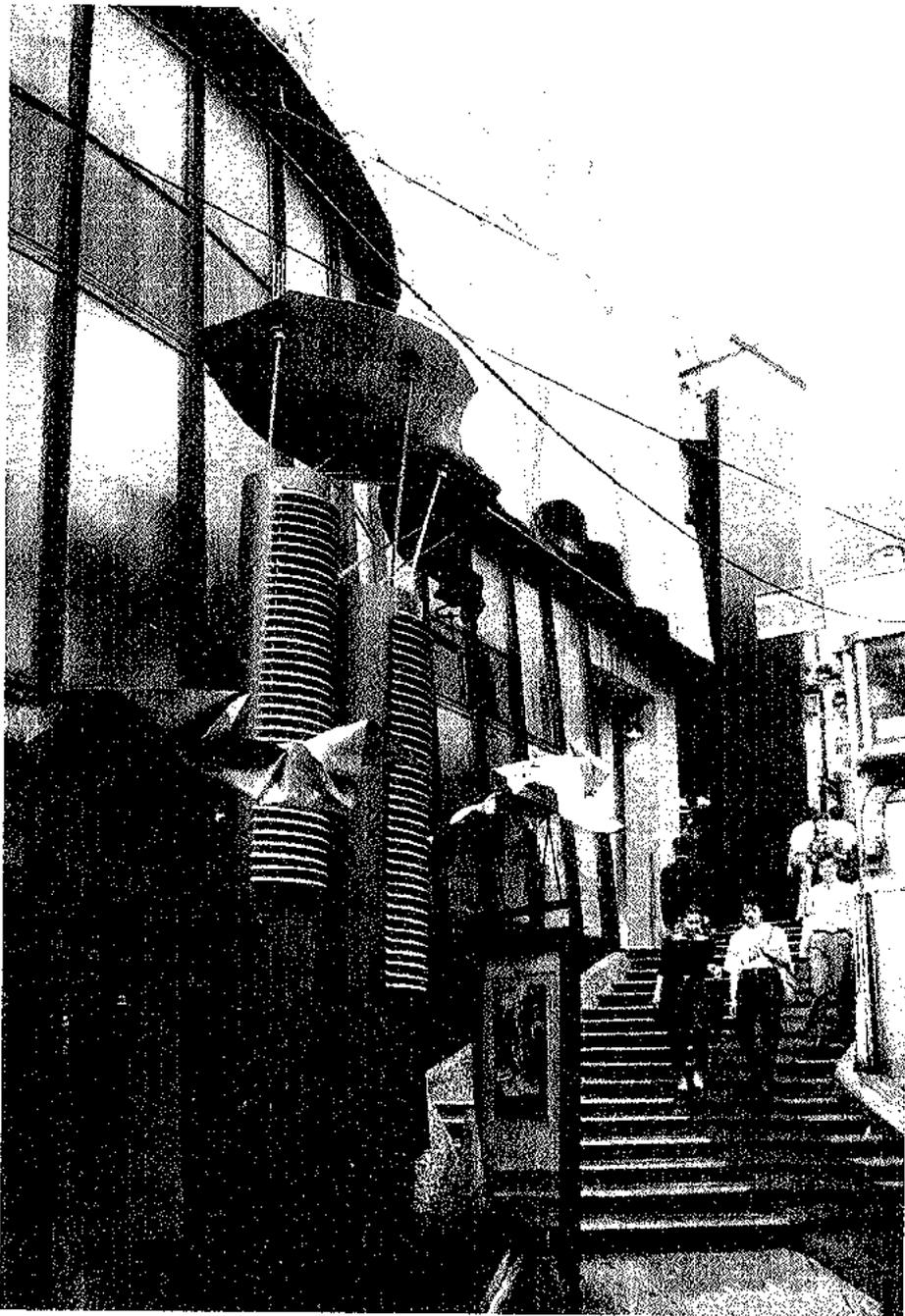
지붕부분의 옷자락을 연상시키는 겹겹의 알루미늄 캐스트 판과 그 사이로 노출된 보온재와 프레임구성의 지붕... 마치 프로이드에 의해 발가벗겨진 인간 내면의 잠재의식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형상화한, 그리고 퇴폐적 아름다움을 극단까지 추구하려한... 이 건축물 기획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상업시설로서의 새로운 해답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특징인들의 인식하에 의도된 건축물이 바로 라이즈인 것이며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테"의 멜로디가 들릴 것같은 퇴폐적인

근적근적함이 이 건축물에 배어 있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큰 줄기인 192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성주의는 건축의 전통 즉 고전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파괴시켰으며 그것은 고전주의에서 보여지는 안정과 조화 및 그것에 의해 전체를 통합하고 있는 형태간의 위계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에 의한 일견 무질서하게 보이는 형태적 상황의 초래를 시도하였다. 이 상황에서 그 당시 진행되었던 사회구조의 변혁과 보조를 맞추어 건축 역시 그 자체구조(시스템)의 변혁가능성을 추구하였으나, 철저한

고전주의건축의 파괴는 오히려 그 전통에 의해 차유된 상흔을 남기면서 종식되었던 것이다. 즉 1920년대의 러시아 구성주의나 이탈리아 합리주의는 고전주의와는 전통앞에서 패배했던 운동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해체주의는 러시아 구성주의시대의 이즘이나 사상과는 관계없이 나타난 자기분열적, 그리고 자기해체적 현상인 것이다.

1920년대에서 70년을 거친 시공(時空)은 "건축에 있어서 복잡과 대립"이라는 책이 나올만큼 다양성과 복합성에 의한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세계를 만들어 놓았고, 이



현실세계는 자기해체적 징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 자본주의의 밝은 면에 가려진 모순성과 화려한 도시의 배면에서 보이는 그림자, 끊임없이 발신하는 불협화음... 이 시대의 다양성, 복잡성, 단편성 등이 어느날 건축이라는 구체적 형상을 하고 드러난 것이 바로 스파이럴, 아자부 에지, 라이즈, 4Th 인 것이다.

이런 시대적 자연스러운 현상인 자기분해적 현상에서조차 서구적 분해현상이야말로 더 진정한 분해이며 해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자신에게 있어 자체생산된 분해체에

의해 해체적 작용을 하고 있는 일본현대건축계의 현상은 해체적 현상에서조차 서구의 이유를 답습하는 건축물을 대하지 않았던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즈를 바라볼 때,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말이 떠올랐다. “대명사와 쉬프터터만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각자가 나·내일·저쪽이라고 말할 뿐, 고유명사적인 것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자유를—차이의 애매성이야말로 언어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자면 에로틱한 유동상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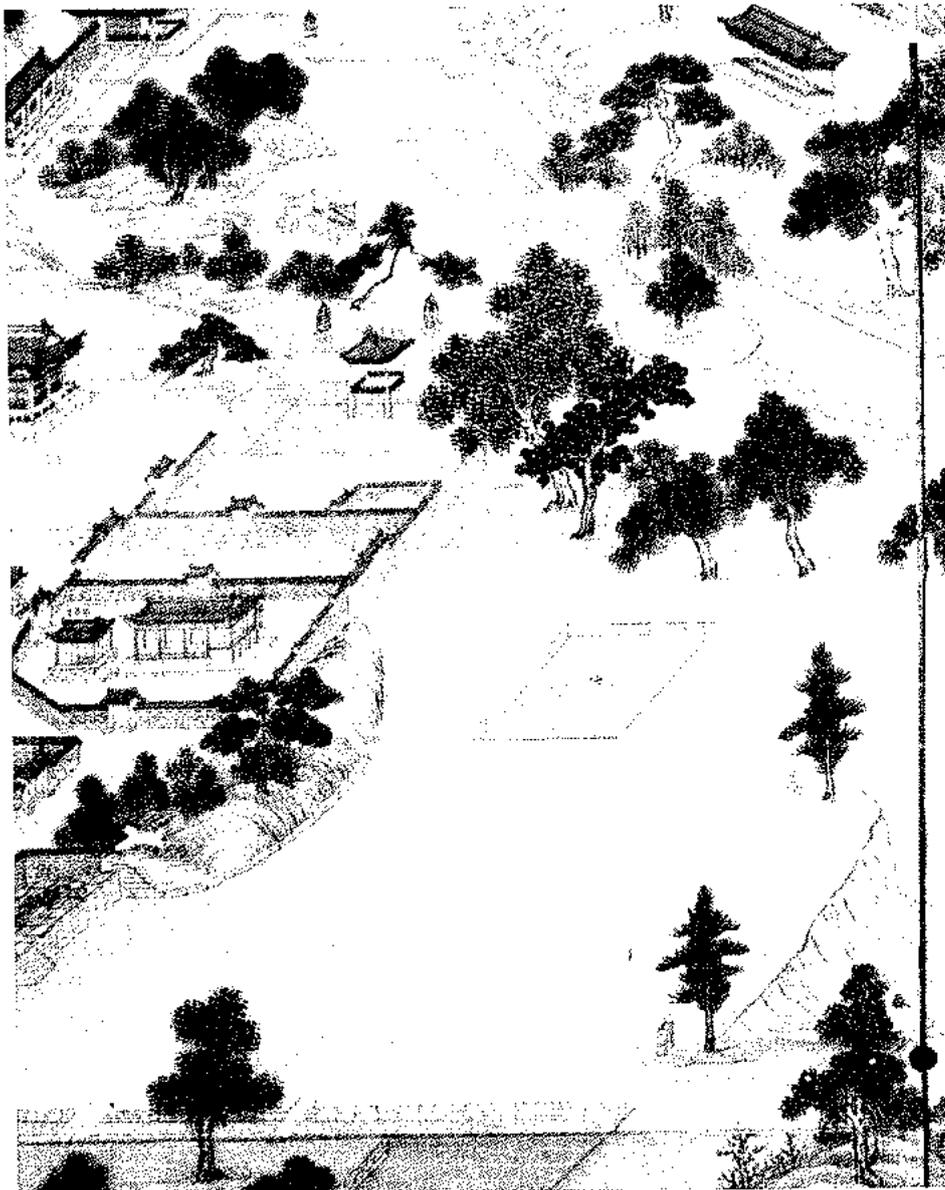
註)

1. “假設感覺の時代”: 栗生 明(都市住宅 1986. 12), p. 18
2. “데리다와 해체주의”: 네이빗 호이(해체주의란 무엇인가/李光來 編. 1989), p. 115
3. “近代建築の光と影”: 榎 文彦(新建築 1985. 10), p. 168
4. “都市の影”北川 原温(新建築 1986. 6), p. 165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

Example of 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 Point

張順鎭/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by Chang, Soon-Yong



3. 昌德宮 寄傲軒 및 倚斗閣

창덕궁 후원에 영화당과 애련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오헌은 북쪽으로 낮아지는北向의 대지에 자리잡아 주방향은 북향건물이 되어있다. 건물의 형태가 너무 소박해서 얼핏보면 궁궐의 창고건물 정도로 인식될 그런 모습이다.

궁궐지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전부터 글공부하는 장소였으며, 순조27년(1827)에 翼宗이 동궁으로 있을 때 고쳐지었다고 하며, 익종이 지은 기오헌 상량문과 의두각 十景詩가 전하여 지고 있으며, 160여년전에 이룩된 건물이다.

동궐도와 동궐도형에서의 표현을 살펴보면 기오헌 동편담의 金馬門과 서편담의 石渠門 남측으로 별도의 기오헌 북편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방의 담장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었다. 특히 영화당 앞에서 언덕을 올라 들어오는 남측담장의 문을 農雲門이라 명칭하고 있어 동궁이 학문을 닦아야 하는 이유와 장소성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는 북편의 담장은 제거되고 없다.

그런데 동궐도형에서는 이 건물의 남측면에서는 寄傲軒이라 적고, 북측면에는 倚斗閣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궁궐지에서는 동측 누마루에 익종의 御筆인 「迎春樓」라는 편액이 걸려있었다하니, 한 건물에 세가지 명칭이 방향에 따라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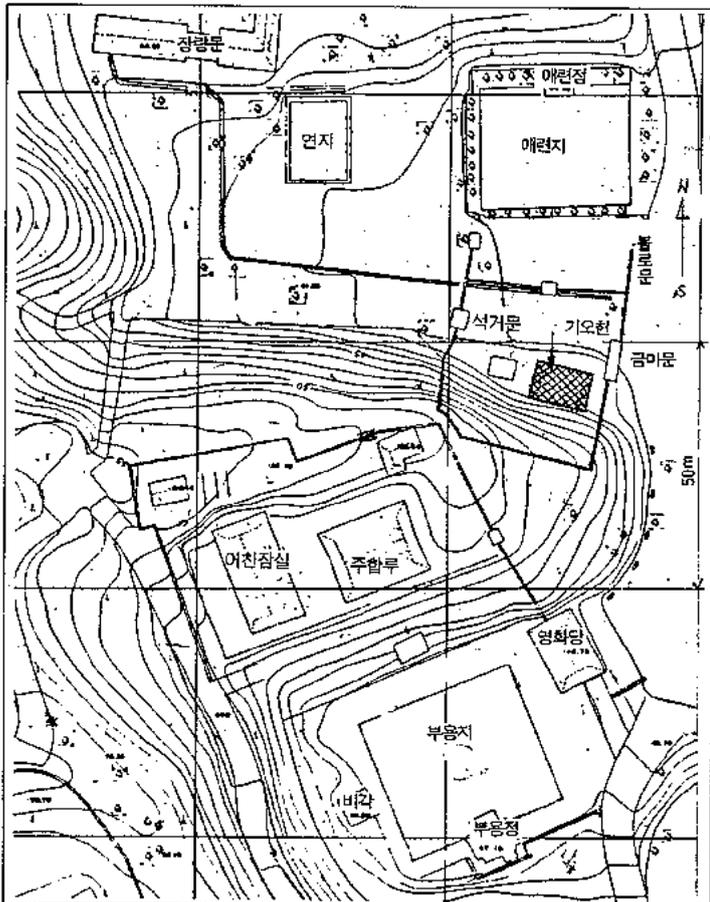
이 건물의 서측에 인접하여 있는 한칸반 짜리 건물을 의두각이라 소개하고도 있으나 기오헌의 다른 명칭인 것이고, 서편의 별채는 동궐도와 궁궐지에서는 韻磬居(韻磬居)라 한 건물이다.

기오헌은 정면이 7자씩 4칸이고, 측면은 7자 한칸에 전후로 반칸씩의 퇴를 달아 두칸폭이 되는 건물로서 11.4평 규모이며, 외별대의 장대석 기단으로 두르고 남도리의 홀처마 팔작지붕의 5량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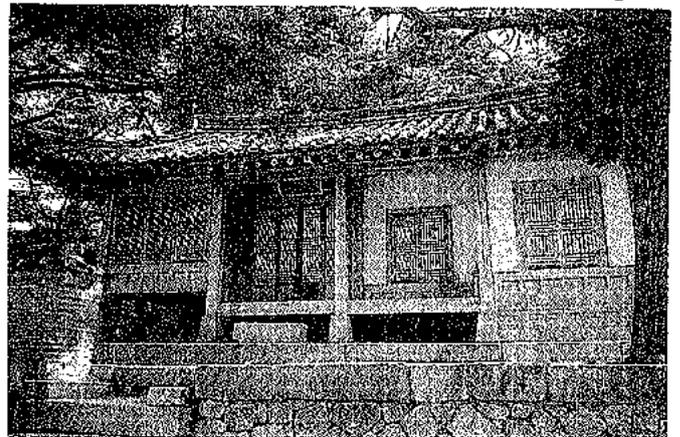
동측칸은 옆의 대청보다 한자정도 높여 누마루로 꾸민 영춘루가 되고, 1 옆칸은 대청, 다음 두칸이 온돌방으로 되어있고, 방과 대청의 남측에는 퇴마루로 삼칸이 개방되고, 북측은 두칸이 퇴마루로 구성되었다. 온돌방의 서측칸에는 반칸정도를 다락으로 꾸미고 그 하부에는 부엌을 설치하였으며 다락방 북측의 퇴칸을



2



3



4



5

① 東麟圖의 기오현

화면의 중앙상부에 아련정과 연못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담장구획 다음에 보이는 원편건물이 운경거이고 바른편이 기오현이다. 1820년대의 그림으로서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 남측의 언덕을 평탄한 모습으로 그렸다.

② 기오현과 운경거

오른편의 건물이 운경거이다. 전에는 이 석축 위에 담장이 있었다.

③ 현황 배치도

④ 기오현 북측면

북향집의 정면으로서 의두각이고 왼편에 영춘루이다.

⑤ 기오현 서편담과 출입문

오른편에 石渠門이고 그 왼편문이 기오현의 서측출입문이다.

⑥ 기오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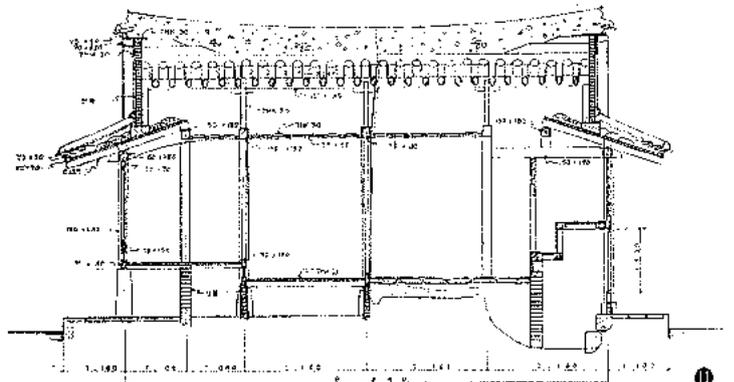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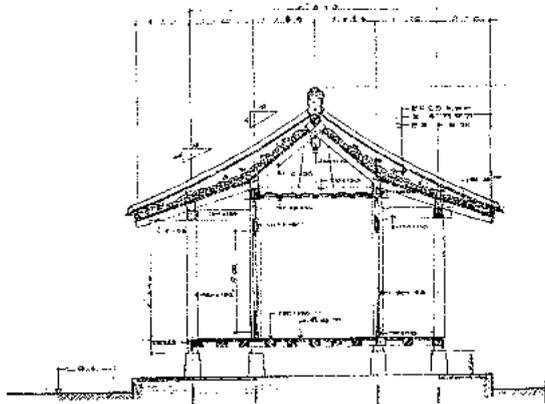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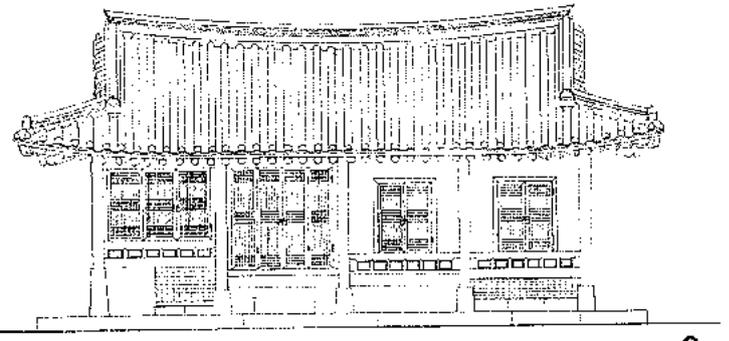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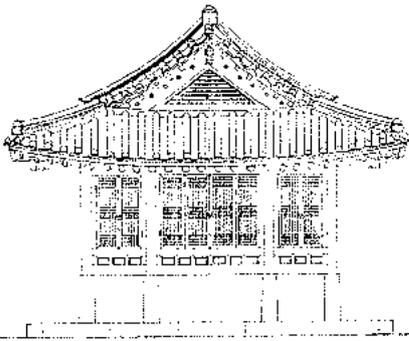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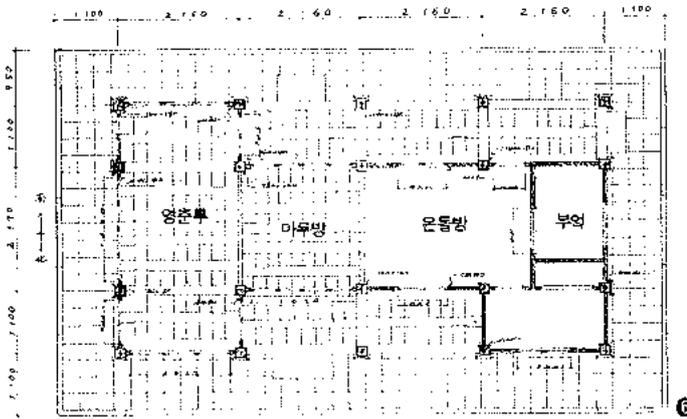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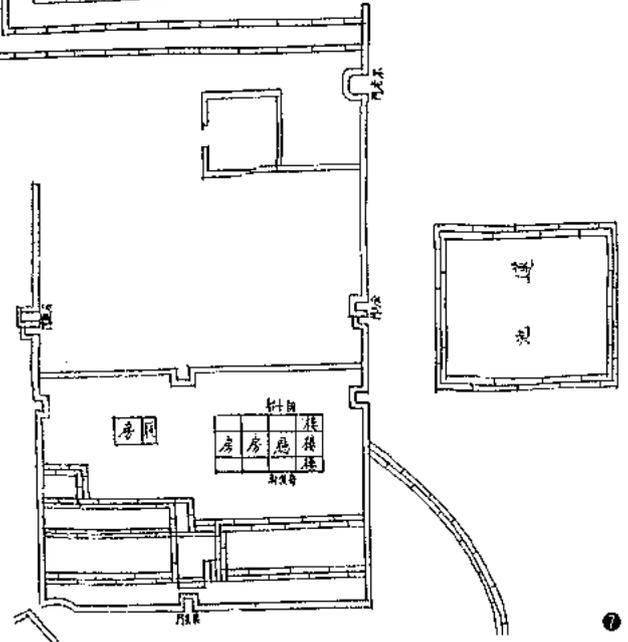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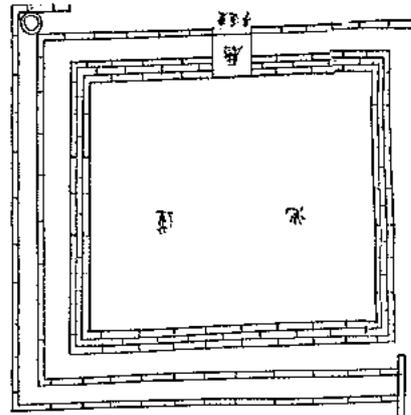
⑦ 동길도의 기오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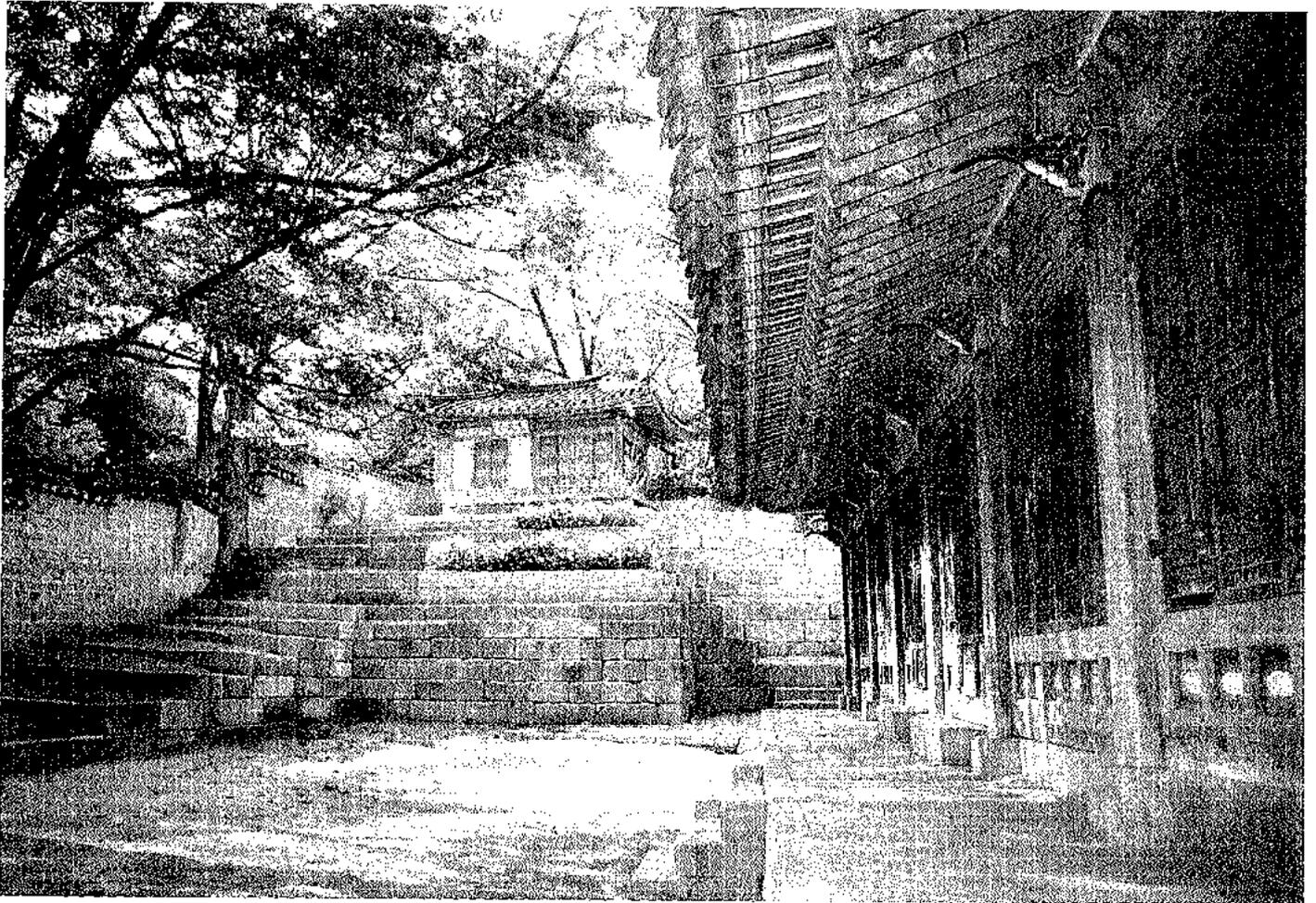
⑧ 동측면도

⑨ 북측면도

⑩ 종단면도

⑪ 횡단면도





고방으로 구성하였다.

대청의 남북면에는 각각 4쪽의 새살분합문을 설치하고, 영춘루에는 사면에 머름중방 위로 새살분합창을 두었다. 대청 서측칸의 온돌방에도 머름중방위로 두쪽의 새살문을 설치하였다. 현재의 대청과 방사이에는 문이 제거되고 없으나 문이 설치되었던 흔적이 있고, 영춘루와 대청사이에도 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에 사용된 부재의 규격을 보면 기둥이 6치각에 8자 높이고, 남도리는 5치×6치각, 처마살이는 3자, 초석의 높이는 한자반 정도이고 대청과 방에는 소란반자로 구성하였다. 서까래 위로는 개판을 설치하여 일반적인 회바름 보다는 격식이 있는 반면에, 벽의 두께가 되는 수장폭은 부재의 비례에 알맞게 좁은 폭인 7cm로 하고있다.

합각벽은 전들로 치장쌍기하고 합각박공판에는 방환과 지베철로

치장하였으며, 기단의 바닥은 전들의 방진을 깔고, 고막이에는 화강석 위로 전돌치장쌍기 하였다. 또 다락 하부의 부익 출입분에는 두쪽의 난출분을 설치하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소박한 기풍이면서도 치장하는 격식은 제대로 갖춘 건물이다.

이 건물에서 의장과 계획적인 면으로의 특징과 현대건축에 응용할 소재로는 다음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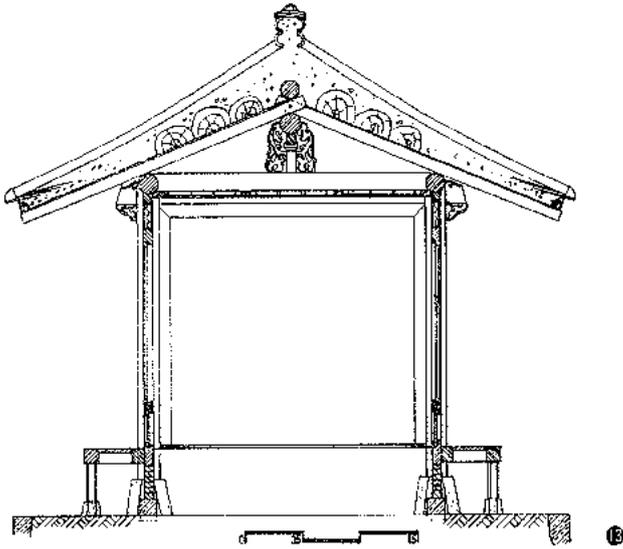
첫째로 궁궐내에 있는 독서실의 용도로서 단청도 하지않은 질박한 모습이면서 구조의 맛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의 기본이념과 부합되고 아울러 독서하는 환경으로 꾸미기 위해 질박한 모습으로 구성하여 구조적인미를 대담하게 노출시킨 것이다. 궁궐건축이란 관점에서 보면 파격적인 계획인 것이다.

둘째로 정면관을 짝수칸으로 설정하여,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기수칸에서 탈피하여 소요면적에 알맞는 칸수의 설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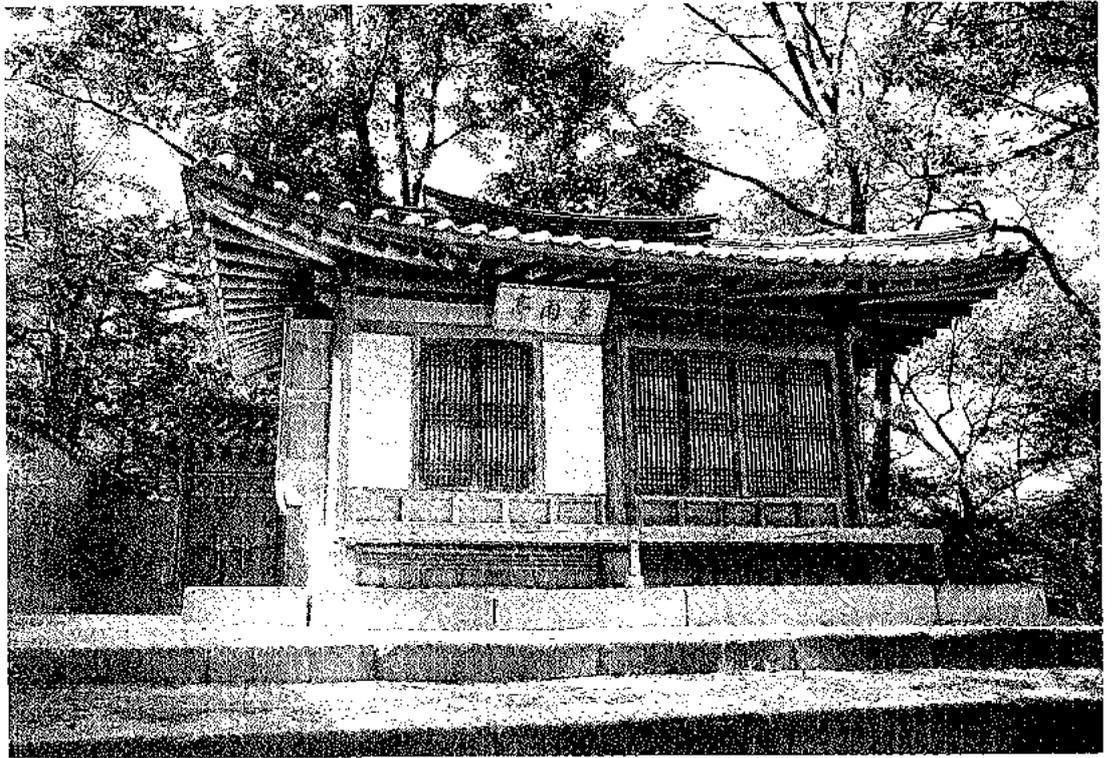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현대건축에서, 특히 공공건물에서 현관을 정면 중앙에 두지않는 기능적인 계획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이기도 하다. 우수칸이면서도 동측칸을 누마루로 구성하여 짝수칸이 주기 쉬운 단조로움을 피하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세째로는 영춘루의 동측면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입면에서 동일한 모습이 아닌 기능에 맞는 자연스런 구성으로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보통 한옥의 입면처리에서도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창호와 회벽이라는 단순한 소재로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는 것은 능숙한 건축구성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내째로 위의 특징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건물의 방향에 따른 입면관이 제각기의 특징이 있다. 머름중방위로 분합문을 설치하여 좌우대칭적인 엄격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영춘루의 동측면,



- ㉑ 서향각 뒤에서 본 회우정 전경
- ㉒ 단면도
- ㉓ 정면
- ㉔ 동측면
- ㉕ 배면
- ㉖ 평면도



회벽과 고막이 그리고 넉출문으로 벽면을 자유롭게 구성한 서측면, 누마루와 앞퇴 삼간의 창호에 변화가 있어 사랑채 같은 느낌을 주는 남측면, 좌우대칭적인 기본구성에 변화를 주어 한적한 곳의 별당채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북측면이 그것이다. 이 점은 현대건축에서도 각방향의 접근도에 따르는 기능적인 외관미를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할 때에 고려해야 할 기법인 것이다.

다섯째로는 북향의 대지에 건물을 세워 하루종일 일광의 큰 변화가 없는 장소에 독서실을 마련한다는 기능적인 배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성향으로는 양지바른 남향의 대지에 세우려는 생각과는

상치되는 점인 것이다. 일조상태의 변화가 적은 곳에서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만함을 맡겨두라는 의미로 짐작되는 기오현과, 한결같은 북두칠성에 의지하라는 북측면의 의두각이라는 제목에서도 이 건물이 의도하고 있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이면서도 세부적인 모습에서는 큰 뜻과 다양한 구성기법을 연출하고 있는 건물이다. 예전대로 북측에 담장이 있게 된다면 뜰안에서는 외부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바람결에 움직이는 나무가지의 바스락 소리나 풀벌레 소리나 돌릴 그런 한적한 곳에 인간적인 최소한의 척도를 사용한 건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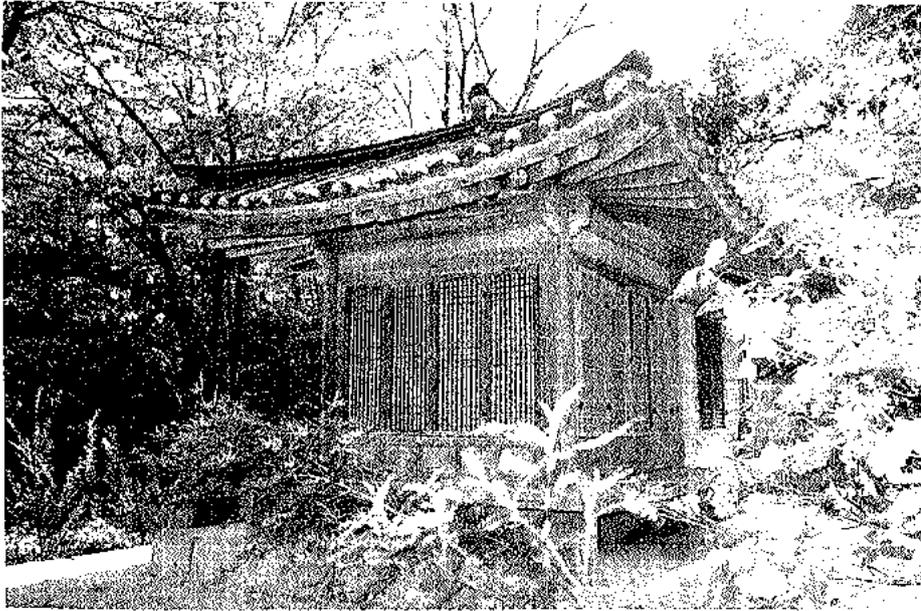
것이다.

궁궐건축이 보여주는 현란한 모습에 취했다가 이 건물을 보게 되면 무심코 지나치거나, 아니면 유다론 분위기에 심호흡으로 가다듬게 만드는 독특한 건물로 보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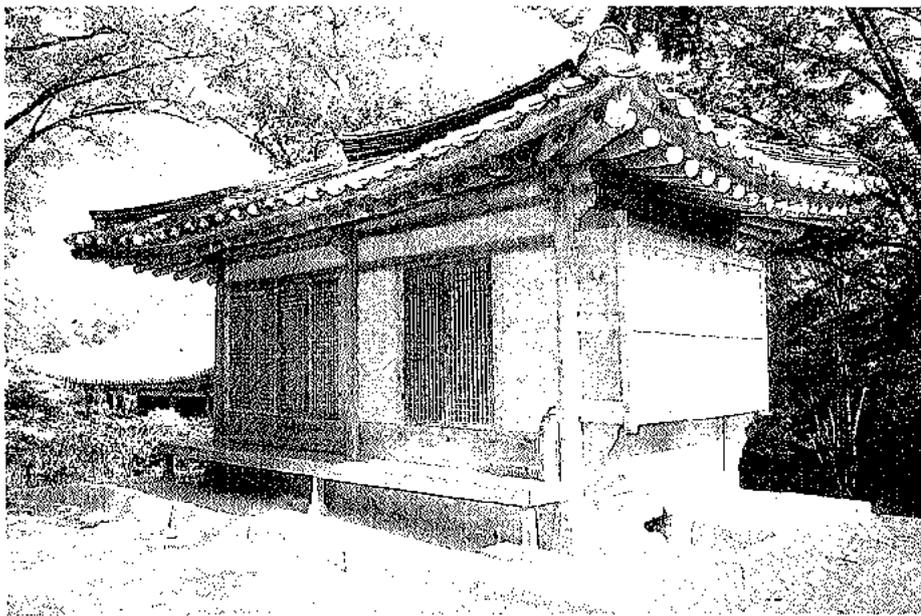
4. 昌德宮 喜雨亭

창덕궁의 주합루 북동측 모퉁이의 구름 정상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남향한 두칸규모의 정자가 회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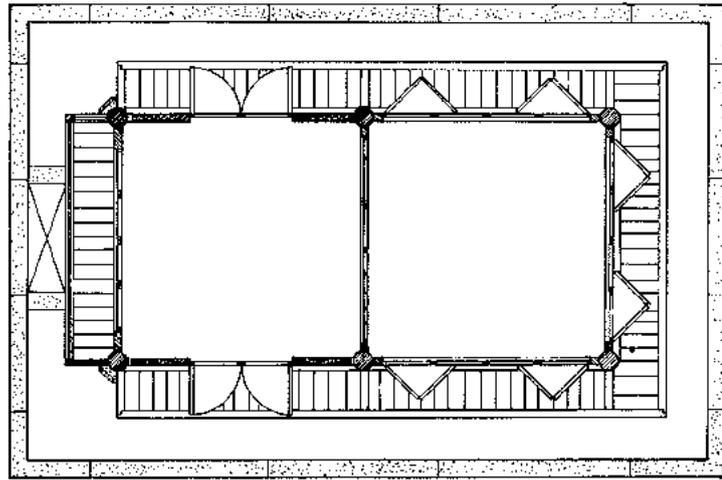
이 건물은 인조23년(1645)에 醉香亭이라는 이름의 초가집으로 창건되었다. 숙종16년(1690)의 가뭄으로



11



12



13

기우제를 드린 후 임금이 이 정자에 오르자 단비가 내렸다고하여 희우정이라 개명하고 초가를 기와집으로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이 건물의 기반은 외벌대의 장대식으로 두르고, 원기둥과 굴도리를 사용한 홀치마의 삼량구조로서 우진각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측면에서 기둥밖으로 벽장을 돌출시키고, 나머지 삼면에는 쪽마루를 두르고, 서측 온돌방에는 앞뒤로 두짝의 세살문을 설치하고, 동측방에는 삼면을 머름중방위로 세살분합문을 설치하였고 방과 방 사이에는 장지문을 설치하고 있다. 아궁이는 서측의 벽장하부에 있으며 건물의 삼면에 설치한 머름의 궁판에는 眼象을 새겨서 장식하고, 쪽마루 하부의 고막이에는 선벽들로 치장쌍기 하였으며, 민도리집의 구조이면서도 보아지와 대공에는 초각으로 장식하였다.

3.8평 규모인 이 정자의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정면이 짝수칸인 것과 소규모의 건물에 추녀를 둔 우진각지붕인 점이다. 우진각지붕이 된 것은 한옥에서는 최소구조인 삼량구조이므로 팔작지붕으로 꾸미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추녀가 있는 것은 초가를 기와집으로 바꾸면서 원래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계획적인 의도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이 건물은 두칸집이면서도 동측의 분합문과 서측의 회벽이 대조적이다. 단순명료하면서도 경쾌한 대비로 담장 모퉁이의 협소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있으며, 현관을 중앙기둥 서측의 회벽상부에 설치한 것도 분위기 전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낮은 위치에서 건물을 올려다 보게되는 지형여건상으로도 우진각 지붕의 처마폭선도 여유로운 점이다. 이 건물이 맞배지붕이었다면 대단히 경직되어 보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지형과 극부적인 환경여건을 몇가지의 대비적이고 파격적인 구성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계획적인 의도와 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물이다.

獨逸의 現代建築을 찾아서

Modern Architecture in West Germany

프랑크푸르트 문화예술관과 아이히슈테트 대학도서관



1. 프랑크푸르트 문화예술관(서독)

건축가: Bangert, Jansen, Scholz, Schultes

독일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프랑크푸르트 문화예술관(Schirn)처럼 수많은 평이 모아지게 된 것은 아마 드문 일이라 하겠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인용, 질충주의양식, 파괴의 시, 역사의 연속성... 그러나 마찬가지로 쉬른(Schirn)같은 건축물이 찬반의 양극화 현상으로 빠져든 것도 드문 일이었다.

우선 "Schirn"이라는 어의를 살펴보면 이 말은 독일남부지방의 "노상매점"이란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곳 프랑크푸르트 문화예술관의 명칭이 되었다. 혹자는 노상매점이 이곳 프랑크푸르트 문화예술관의 명칭으로써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본 문화예술관건물은 전면을 가로지르는 Kroenung 거리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용에서 표현되었다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 양자 모두는 사회적인 기억의 회고—즉 무용한 과거에의 집착, 절망, 2차대전시 폭격으로 인한 잔재—가 일련의 지적인 의미로써 재표현된 것이다. (본 문화예술관건물은 일관성있는 정신의 흐름속에 환호하는 듯한 동축의 건물열과의 대조 속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위한 전사로서 여겨진다.)

현상설계공모전에서 이같은 역사적 내용을 지닌 작품이 높이 인정되어졌다는 사실은

포스트모더니즘시기에 놓여 있는 독일에 있어서, 즉 모더니즘의 붕괴시기에 있어서 전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은 변증법적으로 소위 운운된 설계원칙들이 도시계획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기여로써 표현된 설계작품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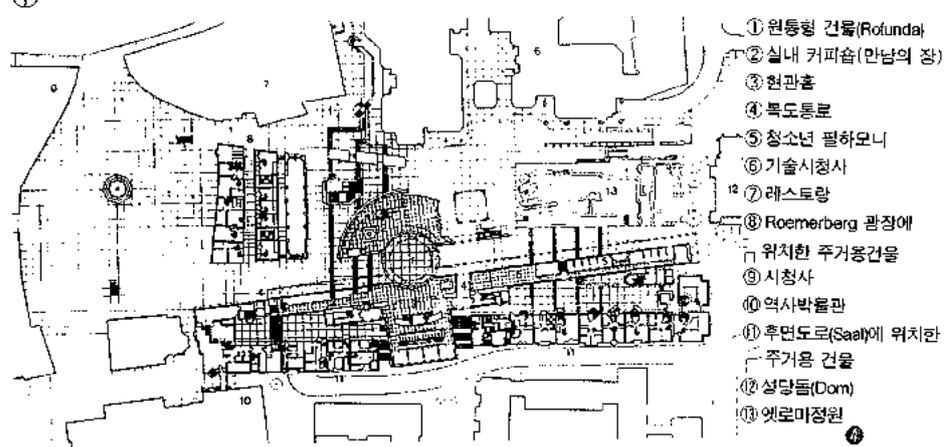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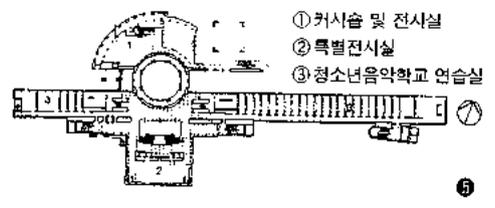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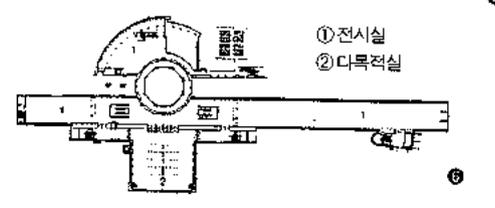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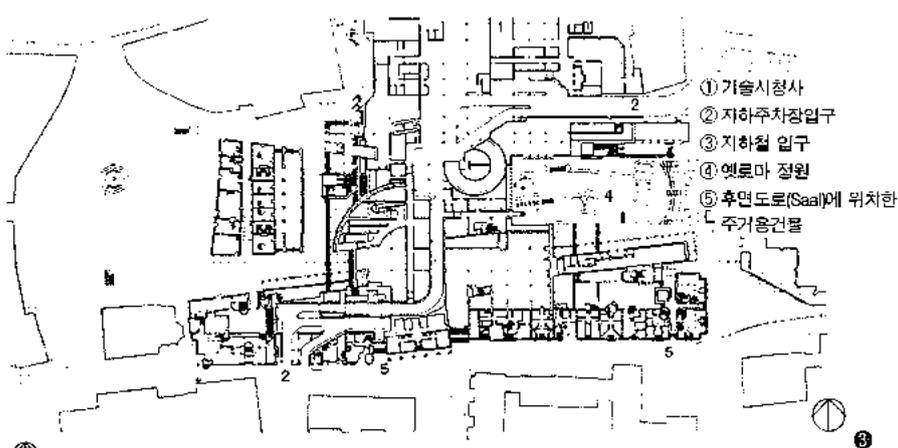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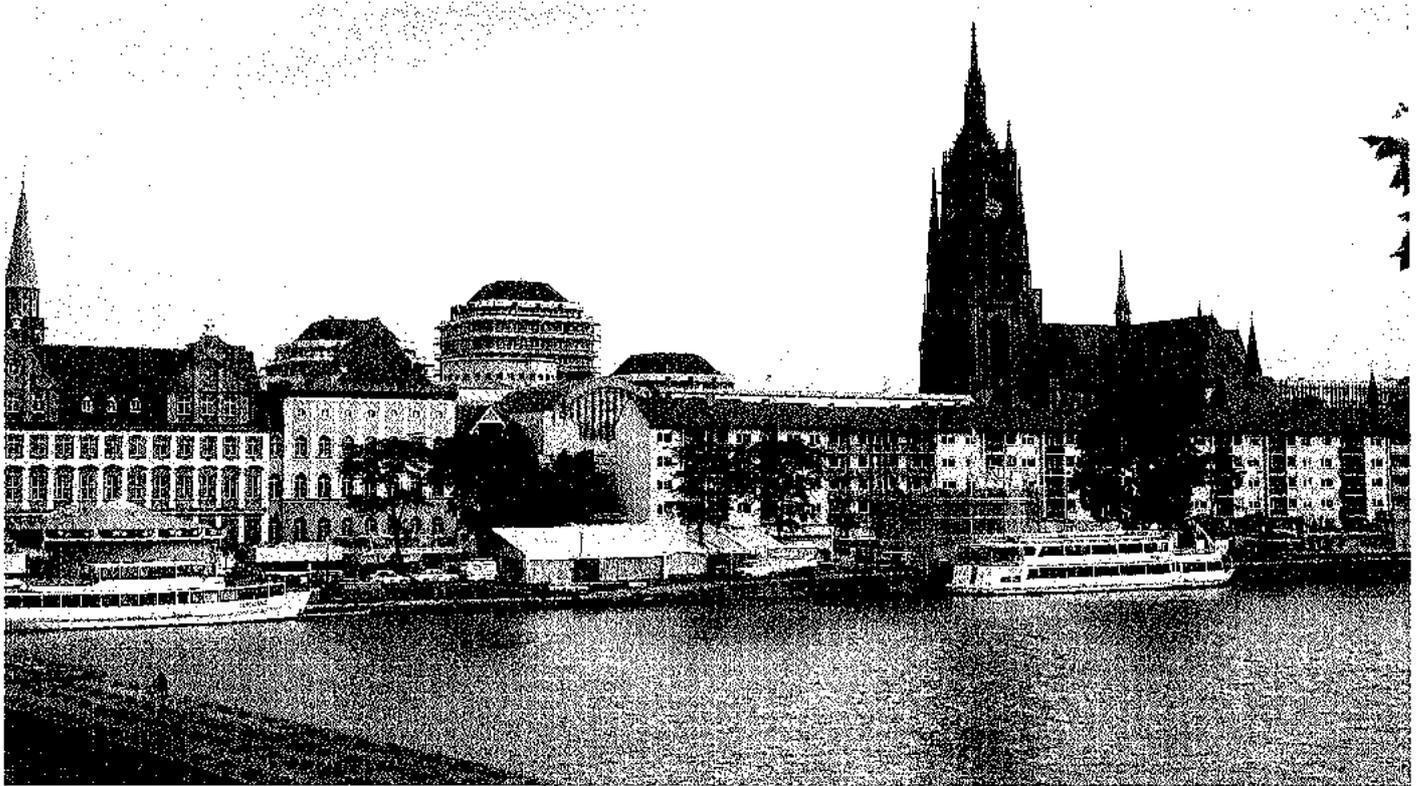
또한 제안된 건축물의 규모가 통일적인 건축적 맥락의 형성 속에서 주변건물의 규모와 일치되었던 설계작품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많은 건축비평가들은 설계작품을 직접보지 않고 단지 회의적인 의견만을 제시했다. 건물의 양상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본 문화예술관건물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더해준다.

Roemerberg 광장으로부터 동측을 향하여 관통하는 시야와 Saal 골목에 있는 좁은 건물폭을 지닌 건축물들, 지하철입구, 양쪽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지닌 품위있는 현관홀, 원통형의 건물부분에 있어 섬세한 디테일, 탁자형의 부속건물과 Schirn 사이의 공간영역— 다시 짧게 요약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더욱 흥분되며 더 작은 공간영역으로 몰입되는 일련의 감정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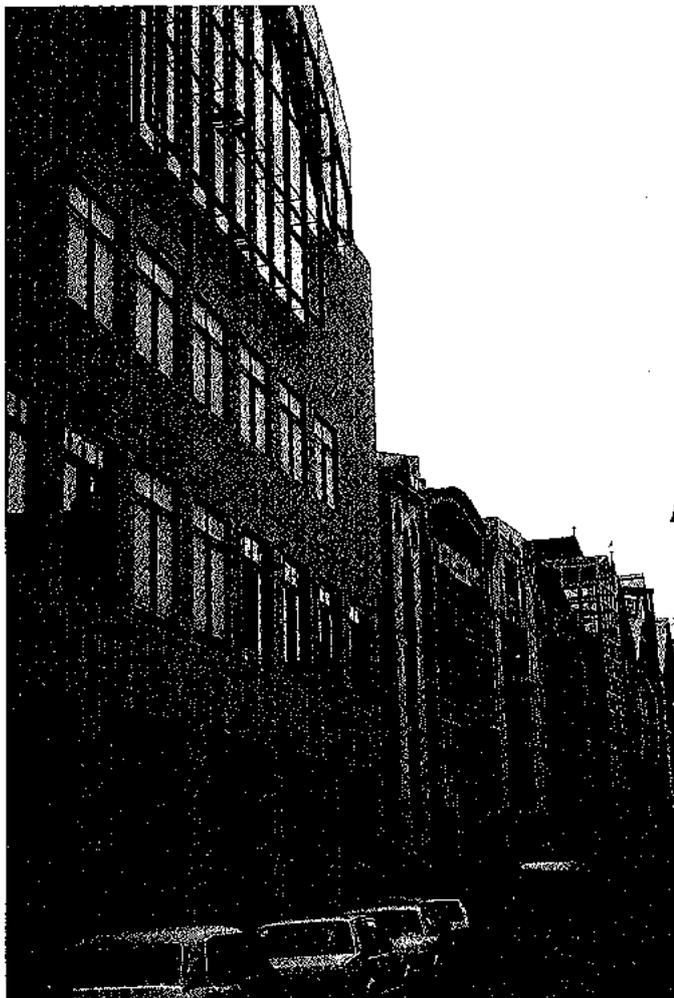
파괴를 위한 유명한 시적 영감들이 건축가들의 믿음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사인할 때 더욱 폭넓은 관계 속에서 도시계획적 구성의 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아케이드, 통로, 다소 급한 계단, 탁자형부속건물과 고고학적 의미를 지닌 정원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프랑크푸르트시의 기술청사 앞의 아케이드가 공모전시에 제안되어졌던 것처럼 지어졌더라면 더욱 이상적인 건축적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방향성을 지닌 통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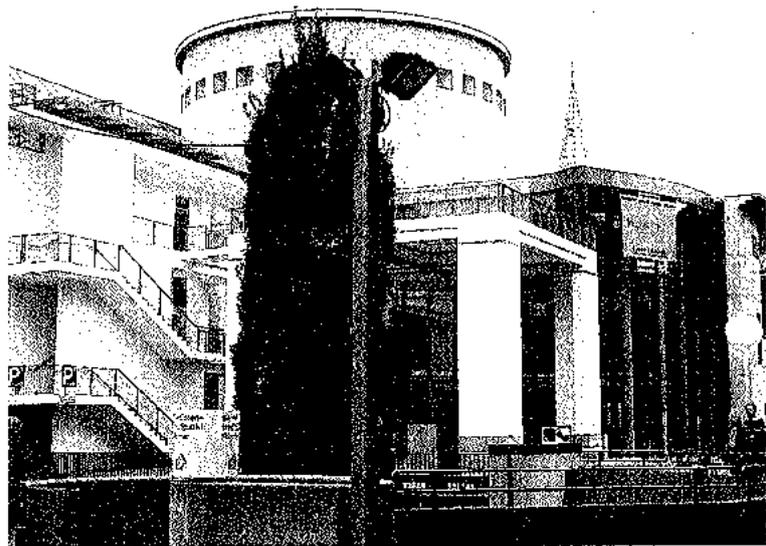
아케이드의 통로는 돔의 서측탑위로 약간 상승되어 있고 외부표시나 돔과의 연관성없이 바로전에 끊이게 된다. 그리고 아케이드후면에 아케이드통로부분에서 제외되고 전혀 층속에 포함되지 않은 1:12 비율의 튜브모양의 평면은 실제적으로 의미있는 공간이며, 동선연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옛 쉬른의 인용에서부터 유래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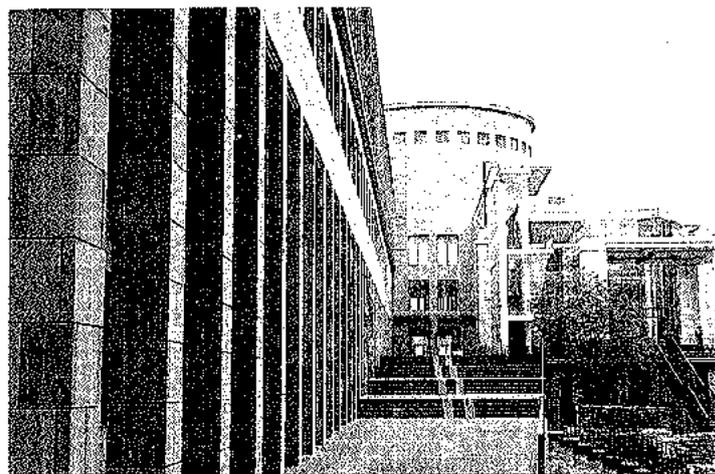
- ① 프랑크푸르트 문화예술관
- ② 마인강 남측에서 본 문화예술관의 전경
- ③ 일층상부 평면도
- ④ 일층하부 평면도
- ⑤ 2층평면도
- ⑥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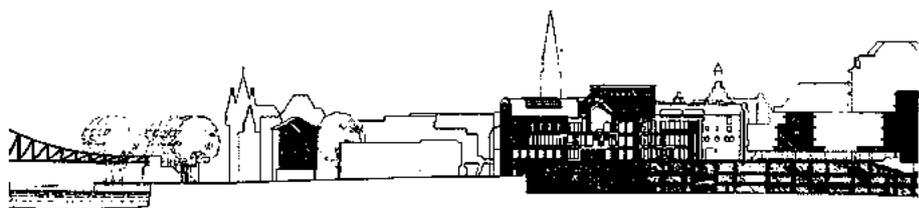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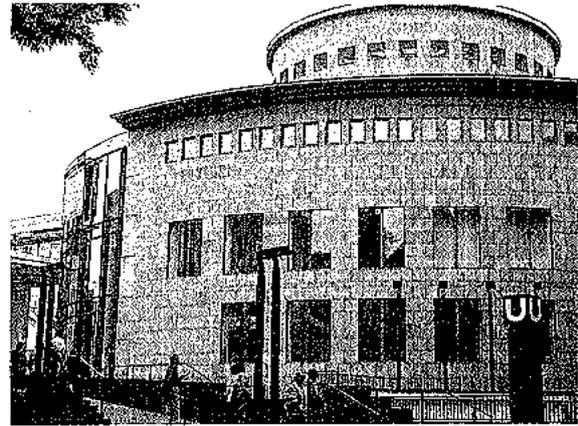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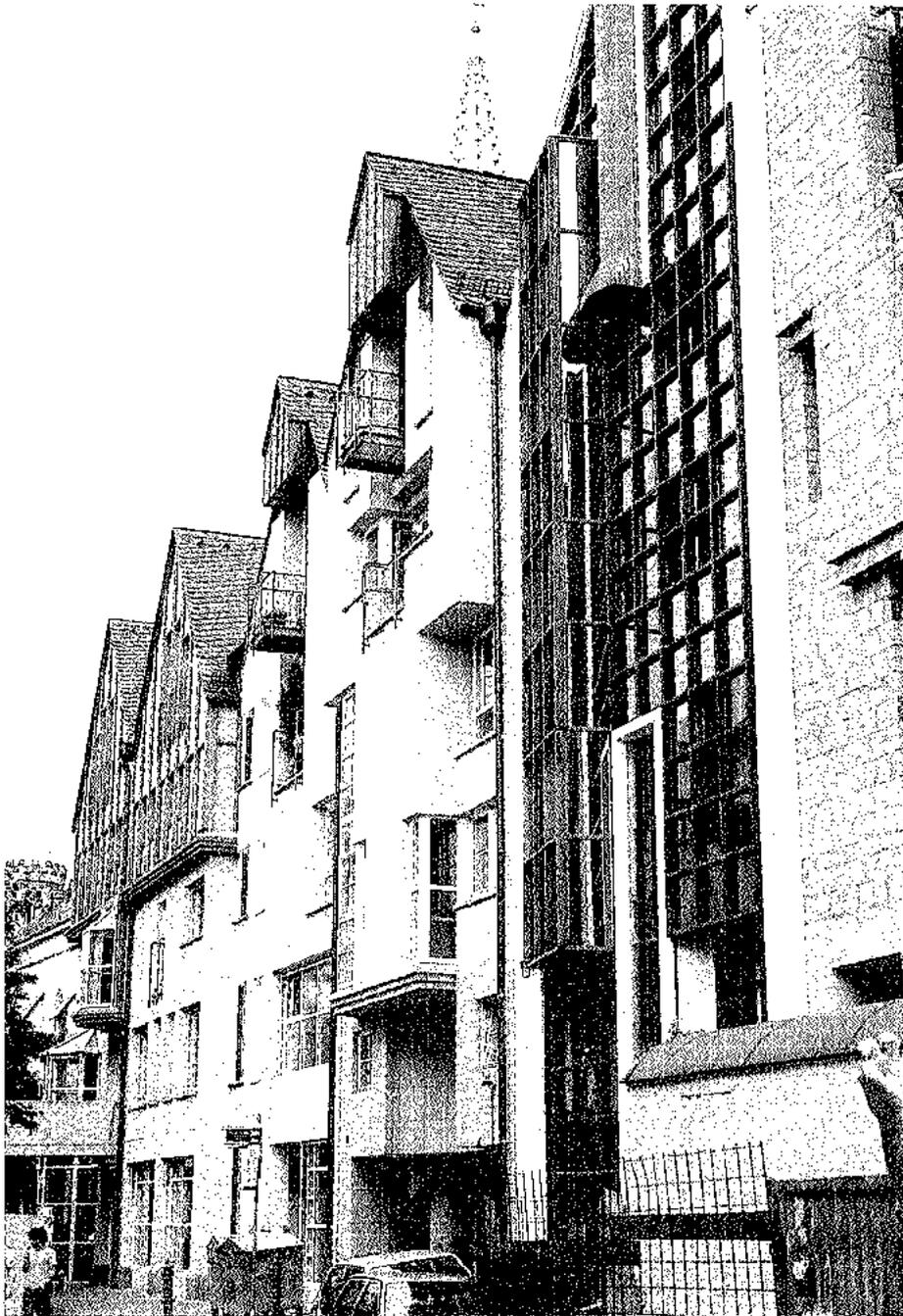


10

- ⑦ 본 건물 후면도로 (Saal) 에 세워진 좁은 쪽을 지닌 주거용건물의 입면 (서측부분)
- ⑧ 문화예술관의 북동측입면과 타자형 부속건물의 모습
- ⑨ 옛 로마정원과 문화예술관 동측입면
- ⑩ 전시실출을 관통하는 남북단면도
- ⑪ 후면도로 (Saalgasse) 를 관통하는 남북단면도 (아케이드건물과 역사적 건물군을 지닌 북측입면도)
- ⑫ 본 건물 후면도로 (Saal) 에 세워진 좁은 쪽을 지닌 주거용건물의 입면 (동측부분)
- ⑬ 원통형 건물의 단면과 북측입면도
- ⑭ 문화예술관의 북서측입면과 지하철 입구
- ⑮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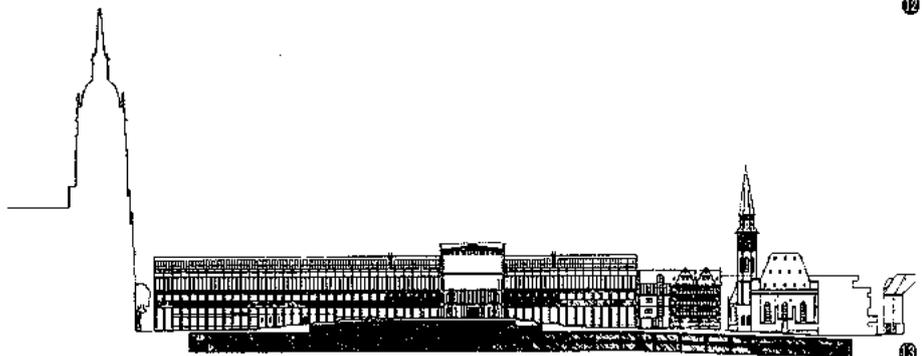


11



건물의 축은 단지 남측에 있는 다목적 건축물과 원통형의 Rotunda를 관통하여 건물벽의 2/5포인트 정도 끊겨있다. 이는 실린더 모양의 원통형건물가운데 파편적인 것, 파괴된 것, 미완성의 의미를 상징한다. 이 모든 의미는 인내가 아닌 변화의 감정을 전달하여 주며, 유리벽과 후면에 위치한 타자형부속건물부분 밑을 통하여 바다레벨이 낮은 옛 로마정원의 발굴영역으로 이어지는 동측의 건축물축상에서 시각적으로 다시금 통로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매혹적인 공간적 인상을 연출해 낸다. 동측으로부터 이는 반원모양의 옛 로마경기장처럼 보이며 도시의 통로에 놓여있는 도시가구 내지 도시의 극적인 연출을 위한 부대장치와도 같이 보여지는 것이다.

지난 공모전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볼 때 이같은 까다로운 설계테마를 지금 구체화된 설계안보다 더 잘 해결한 안은 없었다고 본다. 경이적인 아케이드 열주통로, 옛 도시를 가로지르는 건물단면 등은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프랑크푸르트 도심이 의미하는 것, 즉 모든 것을 소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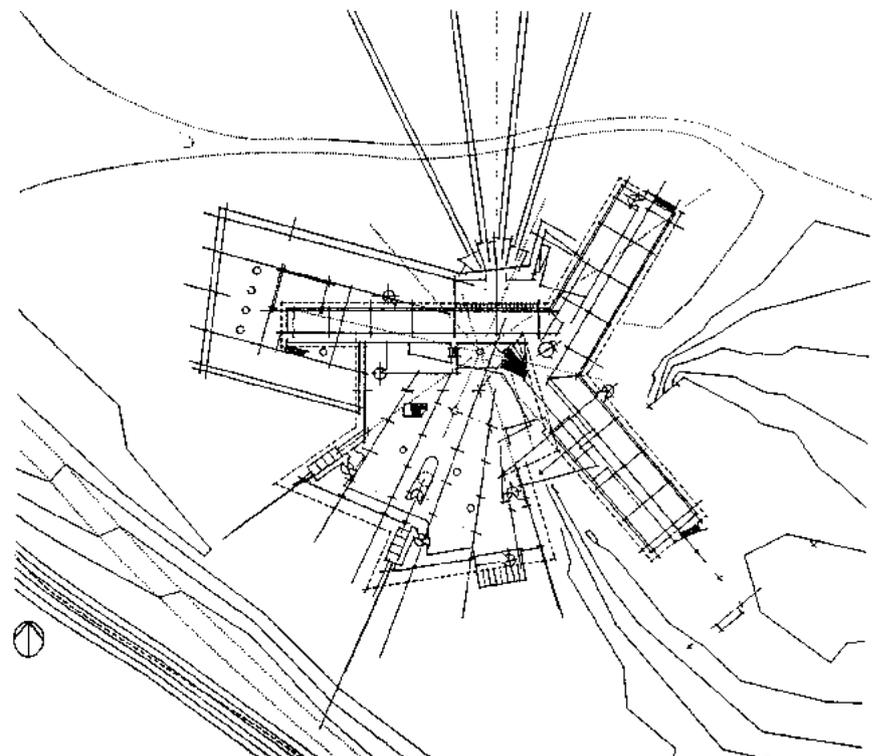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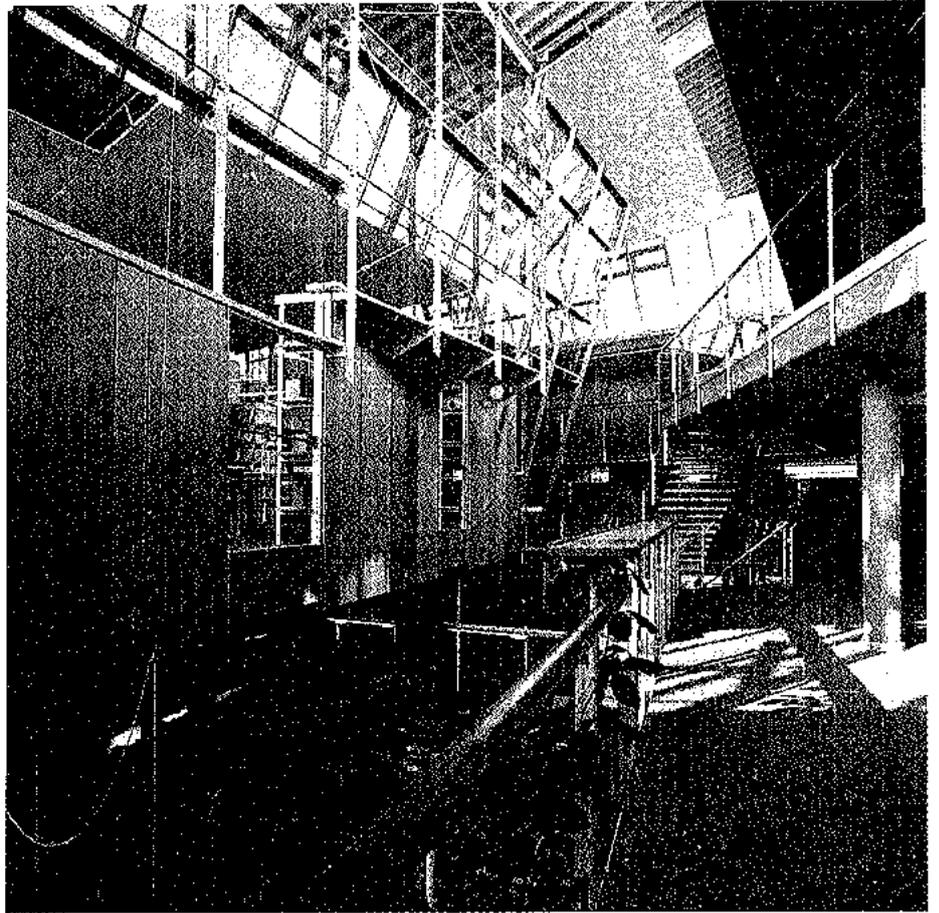
건물로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금기령을 무너트리는 결과가 되었으며 세분화된 입면디테일을 지닌 좁은 Saal 도로, 혁신을 통한 자유의지, 그들의 불협화음적인 정면 등이 강하게 표현되어졌다. 아케이드 영역은 일련의 휴식과도 같은 건물후면으로써 독특한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소의 시련과 부작용이 없이는 조그만 부분들의 결합으로써 건물형태는 오늘날 더 이상 설계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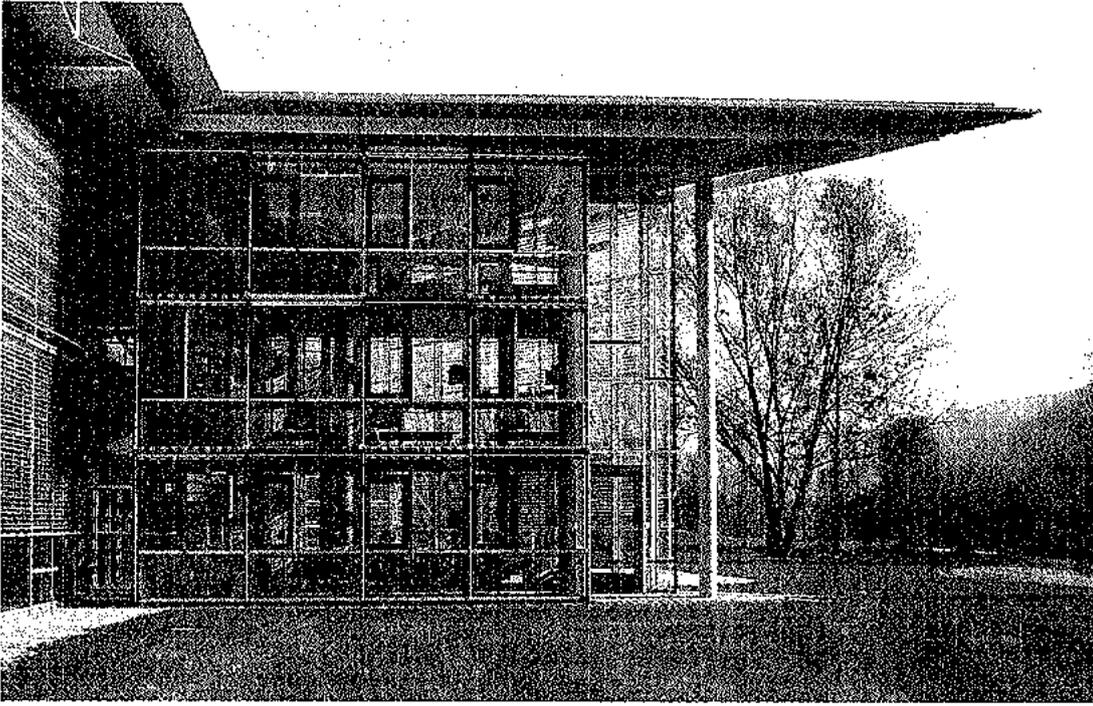
2. 아이히슈테트의 대학도서관(서독)

건축가 : Benisch 와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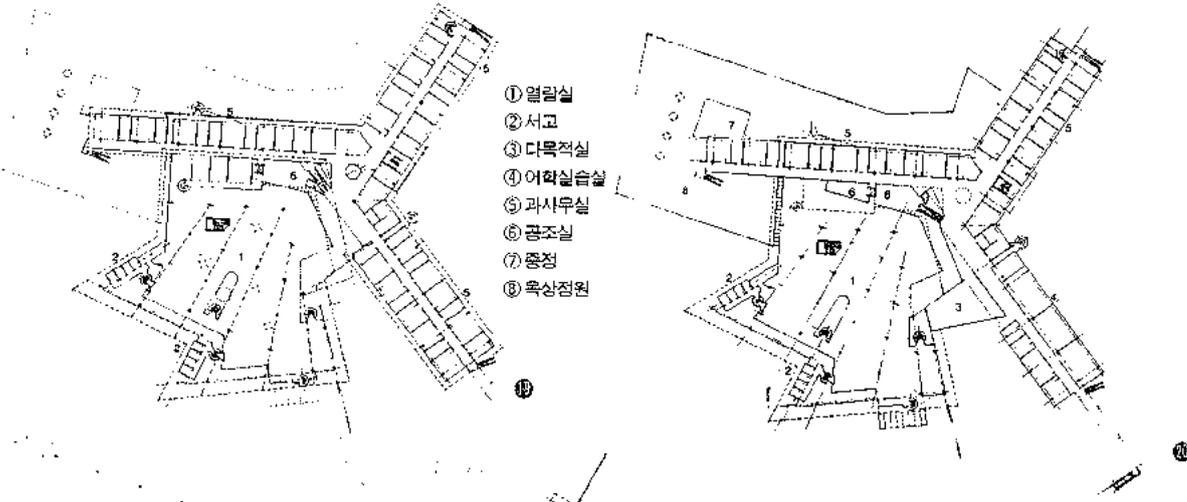
본 건물은 1980년 현상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설계작품으로서 당시 심사위원들은 본 건물에 대하여 옥외경관가운데 뚜렷한 경험의 질에 근거하여 건물을 자유스럽게 배치하는데 있어 매우 성공적인 설계안으로써 평가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본 건물내부에 있어 활력적이며 다양한 공간감을 부여한 작업공간과 서고와의 재미있는 연결을 높이 평가했다. 본 건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1981년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의 국립도서관 신축건물을 위한 현상공모전의 설계안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도면참조) 여기서 당시 Benisch 설계팀은 매우 유사한 설계안으로써 4등을 수상했다. 당시의 심사위원들은 건물의 전체적인 Complex 내에서 건물들사이의 조화는 대규모 도서관건물로서의 독특한 형태와 이미지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당시의 설계안은 개방된 주변상황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기존의 도시상황에 적합한 기본구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Benisch 설계사무실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설계과제를 위해 제시된 두개의 기본구상이 단지 건축가의 편안함에서 야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다음에야 비로서 두 계획안이 정확히 Benisch 설계사무실로부터의 기본개념과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즉 어떻게 이같은 거대한 도서관건물이 계획되어져야 하는가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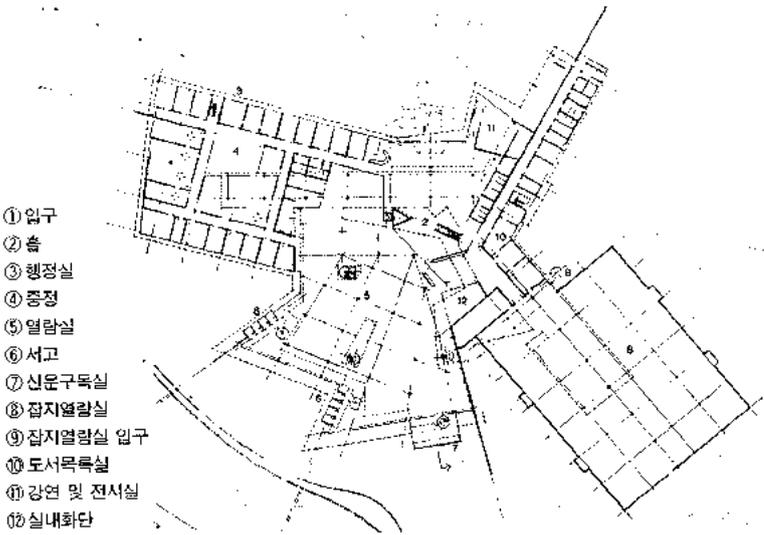
18



- ① 열람실
- ② 서고
- ③ 다목적실
- ④ 어학실습실
- ⑤ 과사무실
- ⑥ 공조실
- ⑦ 중정
- ⑧ 옥상정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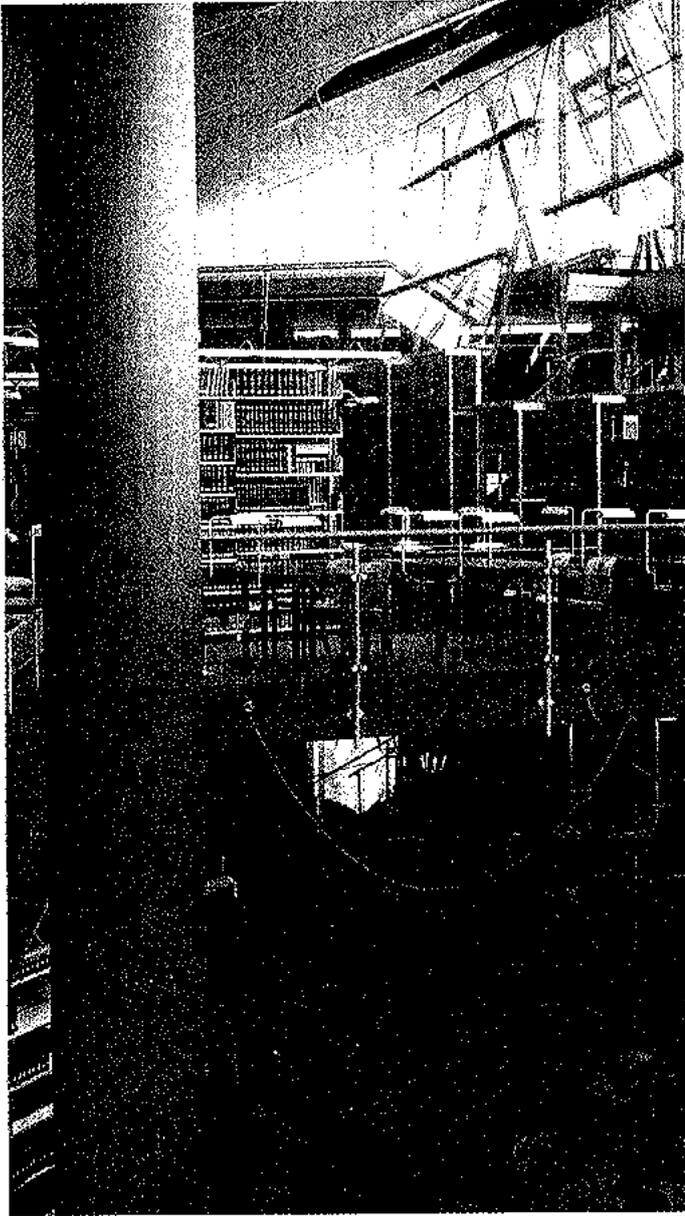
20



- ① 입구
- ② 복
- ③ 행정실
- ④ 중정
- ⑤ 열람실
- ⑥ 서고
- ⑦ 신문구독실
- ⑧ 접지열람실
- ⑨ 접지열람실 입구
- ⑩ 도서목록실
- ⑪ 강연 및 전시실
- ⑫ 실내화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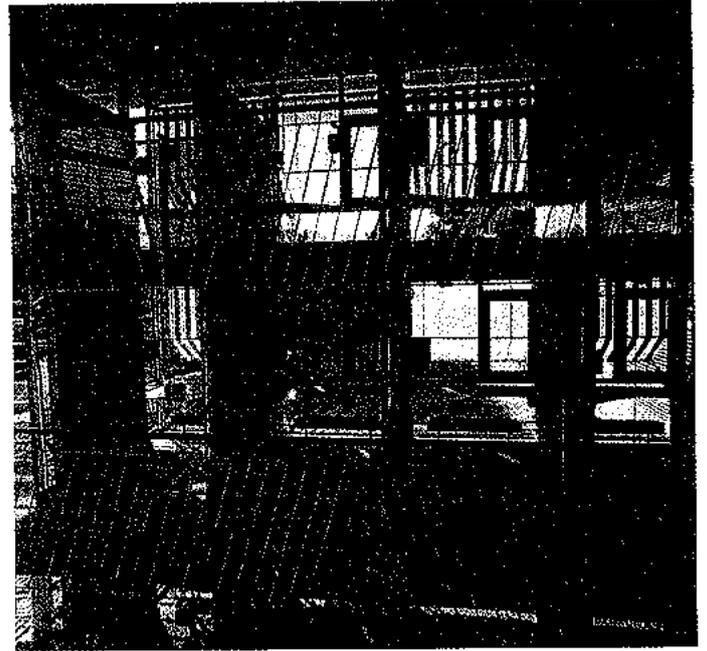
- 18 아이히슈데트 대학도서관 내부
- 19 배치도
- 20 도서관 외벽모서리부
- 21 2층평면도
- 22 3층평면도
- 23 일층평면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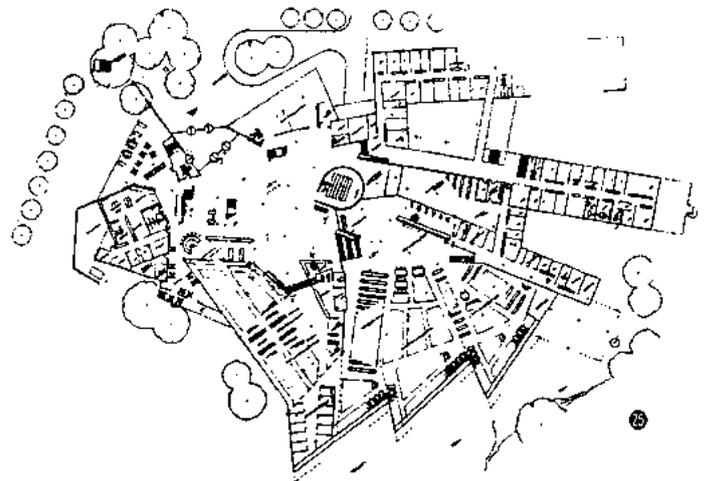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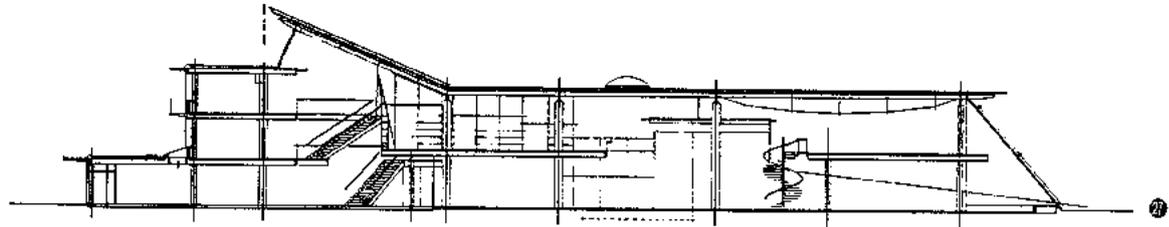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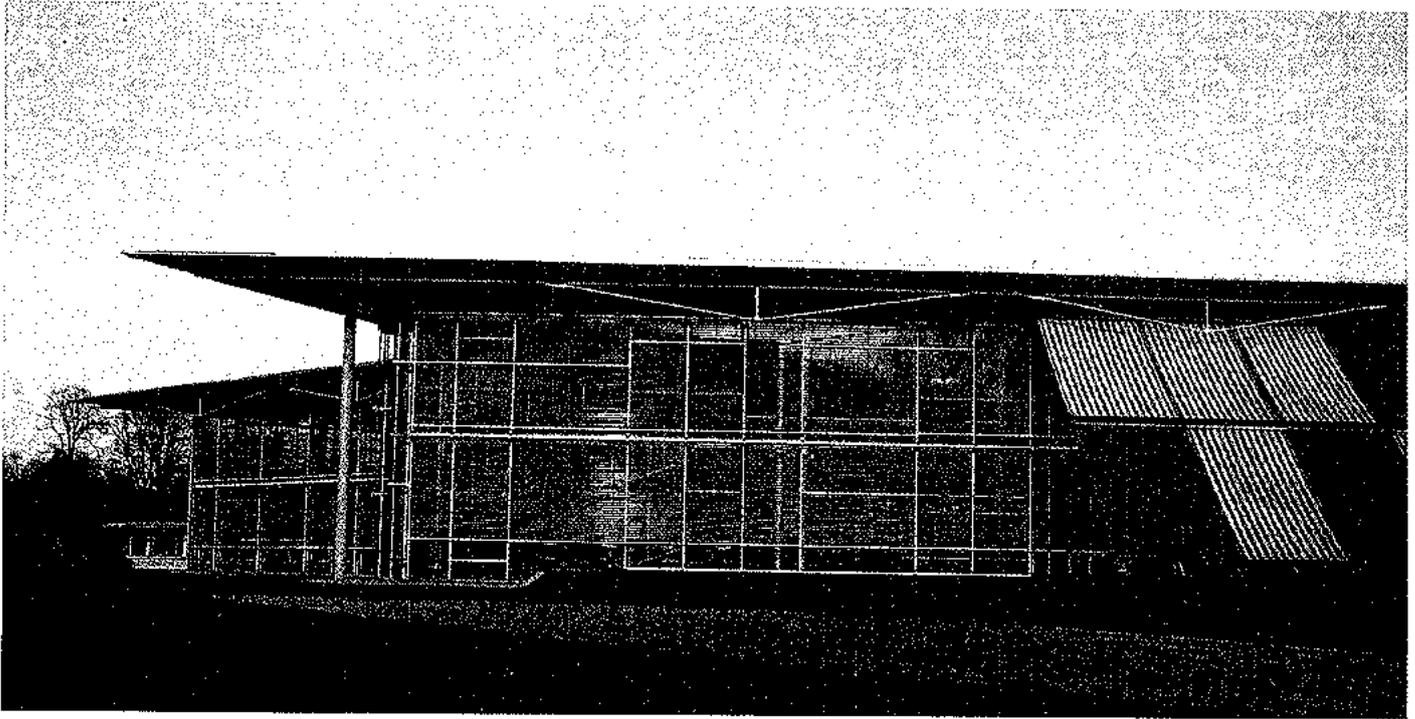


24

- 22 열람실 내부
- 23 외부상세 ①
- 24 외부상세 ②
- 25 1981년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
현상설계 A동 당선인의 일층평면도
- 26 전경
- 27 남북단면도



27



기본의문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써 시각적이며 기능적으로 서로 관입되어져야 하는 부분영역에 있어서 매우 동적이며 표현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공간프로그램 자체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공간기능영역으로 세분되었다. 즉 중앙도서관, 역사사회과학관, 어문학관, 끝으로 어학실습실이 그것이며 전체 필요면적은 12,400㎡에 달한다. 각각의 영역은 다시금 입구홀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주위의 옥외공간으로 화살표 모양내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연장된다. 이 입구홀은 시각적으로 도서열람실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홀과 도서열람실은 각각 음향과 실내 공조를 위하여 서로 분리되어져야 했다. 도서관이용자를 위하여 건축적으로 공간과 기능의 분리, 통일성 있는 형태구성을 위한 부분공간들의 배분 등 몇몇 과제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를 위하여 영원한 환상 속에서 발견되어진 디테일과 기본착상에 있어 거대한 외형적인 노력이 기해졌다. 도서관건물에 있어 다소 등한시 될 수 있는 형태구성에 있어 다소 무리한 표현이 엿보인다. 자유개가식 도서관의 책으로 가득채워져서 벽으로써 그 기능을 지니게 된다면 아마 어떤 일련의 공간적 차별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평면상에서 나타나듯이 파편과도 같은 열람실과 서고영역에서 너무도 혼란스럽게 조차하여 다소 너무 많은 장소에 너무 많은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나하는 의문점이 생기기도 한다. 각각 세분화된 형태에 대한 풍부한 감각적 체험은 단지 도서관의 오랜 이용을 통해서만이 체험될 수 있다. 모든 개별실—서가, 어학실습실, 잡지열람실 및 강연실—은 부채꼴모양의 건물 외곽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외부 입면을 위하여 다소 공간적 디테일에 있어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건물내부에 있어 기본구상에 입각한 매우 중요한 공간적 배치는 각각의 많은 공간적 세부사항을 위하여 불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외부입면은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는 기둥을 지닌 강한 격자형의 벽체와 건물정면 앞뒤로 (50년대의 건물에서처럼) 가끔씩 넓게 연장되어 돌출한 지붕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이같은 분명한 공간경계 부분에서부터 지상까지 대각선으로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지닌 채광장치와 이를 위한 가는 기둥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건물 영역을 통하여 사이사이에 외부경관이 삽입되어 체험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건물과 자연의 자연스런 연결을 시도하였다.

都市街路景觀에서의 建築物 外部色彩計劃方法에 關한 研究(I)

—Computer Simulation을 適用한 大邱地域의 建築物 外部色彩計劃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Method of Exterior Color Planning of Building in the View of Urban Street

徐輔光

동성종합건축사사무소, 工學博士

by Suh, Bo-Kwang

1. 序論

1. 研究目的

일반적으로 인간이 視覺對象을 보고 느끼는 감각적 質을 좌우하는 요소는 形態(form), 色彩(color), 質感(texture)이다. 質感은 다른 두 요소에 비하여 자극의 강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하며 形態와 色彩의 경우 자극의 강약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知覺의 순위에 있어 색채가 우선된다는 것이 색채실험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색채지각은 視覺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리적 현상임과 동시에 視感覺을 통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현상으로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색채사용에 대한 경향은 민족적, 종교적, 개인적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古代에는 종교적, 상징적 차원에서 사용되었고 中世에는 주로 장식적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17C에 이르러 뉴턴에 의하여 색채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20C에 들어서 실용적 목적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人體工學과 心理學에 근거한 색채조절(Color conditioning)과 색채계획(Color planning)이 대표적인 연구경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색채연구의 경향은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하나의 시각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특성은 그 형태와 색채에 의하여 결정 된다. 環境色彩로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다른 건축환경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것으로 외부색채는 건축물이 접한 街路空間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도시가로공간의 건축물 외부색채는 체계적으로 조절되고 통제되지 못하여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에게 시각적 혼란이라는 환경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건축물의 외부색채에만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街路空間의 환경적 요소 가운데 가로면에 노출된 건축물은 전체적인 가로경관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다른 환경적 요소와 함께 가로경관의 특징을 규정하고 환경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러한 건축물외부색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외부색채의 단순한 심리적 효과에서부터 가로경관의 색채분포와 그 심리적 효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슬라이드에 의한 가로경관 이미지 평가의 과정 및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외부 색채의 계획 과정 및 방법에 있어서는 그 체계적 접근을 위하여 建築用 標準色의 설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용 표준색 123색 및 학교 건축용 118색, 영국의 경우 건축용 표준색 88색 등이 공공적 차원에서 연구, 제시되어 설계자의 색채 사용에 지침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박돈서가 「韓國現代建築 外裝의 色彩計劃 方法論」이라는 연구에서 건축용 표준색의 案으로 82색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 도시가로환경의 색채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도시환경의 시각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표준색의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외부 색채 계획의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방법을 檢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 표준색의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 외부의 사용색채 범위 설정 및 색채 반응 조사에 의한 타당성 검증
- 사용색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현황분석의 결과와 색채반응 조사결과와의 비교
-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의 체계적 모델 설정 및 사례연구를 통한 효용성 검증과 색채계획의 방향 제시

2. 研究의 方法과 體系

본 연구는 도시가로공간의 시각적, 환경적 이미지와 관련된 가로경관의 구성요소 가운데 건축물 외부색채를 대상으로 현황분석에 근거한 계획과정의 모델을 설정하고, 그 전개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1) 기초적 연구(문헌적 고찰, 실험적 연구)

- 색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도시가로에 있어서 환경색채의 개념과 특성
 - 건축물 외부색채의 특성
 -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에 관한 고찰
 - 색채반응 조사분석
- 2) 假說의 설정
-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 모델의 설정
 - 표준색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 외부색채계획의 사용색채 범위 설정
 - 對象街路에 대한 건축물 외부색채 현황분석
- 3) 假說의 檢證(Case study)
- 대상가로내 대상지 설정

- 건축물 메스 및 개략적 외관의 설정
- 계획과정모델의 적용
 -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대안 설정
- 4) 評價(결론)
- 사용색채 범위의 타당성과 효용성
-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 모델에 대한 평가
-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 및 방법에 대한 연구방향 설정

3. 研究의 範圍

이와 같은 방법을 전개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 연구의 물리적 대상 범위
 - 도시가로 경관의 건축물이 아닌 다른 가로시설물들은 제외하고 가로변 건축물이 가진 시각적 요소 가운데 가로변에 접한 건축물 일면의 외부색채에만 한정하였다.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건축 재료의 일반적 특성 및 형태와의 관련성, 색채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른 개인별 주관적 반응의 특성, 유행 등은 환경에 대한 視知覺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건축물 외부 색채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연구에서 수용하기에는 매우 방대한 실험적 연구의 새로운 자료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假說(건축물 외부색채 계획 방법)의 검증을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및 메스는 실제 설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의 대안 평가는 제외하였다.
-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밀집된 가로공간에 있어서 관찰자(보행자)의 시야에 쉽게 지각되는 건축물의 전면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2. 色彩에 관한 基礎的 研究(실험적 조사연구)

색채와 관련된 이론적, 학문적 자료, 색채조화, 표색 및 색채체계 등은 색채학에서 제시된 기존의 것들을 우선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색채에 대한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1. 색채 반응 조사의 개요

색채에 대한 시각적 선호도 분석을 위한 색채반응실험은 표2-I과 같이 피실험대상을 구성하였다. 아동의 경우 국민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은 K여고, K전문대학, Y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은 대구시내 각 구청 공무원과 Y대학교 직원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별로 구성하였다.

실험시기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하여

표2-1 色彩反應實驗 對象者 構成表

(아동:8~14세, 청소년:18~24세 성인:25세 이상)

연령별	남	여	계
아동	60	60	120
청소년	260	260	520
성인	100	100	200
계	420	420	840

표2-2 色彩反應調查의 問項別 目的과 方法

문항	조사목적	질문사항	조사방법
1	색채의 일반적 선호도 조사	선호하는색	12가지 순색중 3가지
2	색채의 색상성	구체적 사물의 인상	12가지 고명도 저채도, 연한색 중 3가지
3	색채의 감정적 느낌	추상적 느낌	12개 순색 및 무채색(회색)
4	2색에 대한 배색선호	은도감, 원근감, 경중감	각 느낌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
5	3색에 대한 배색선호	배색에 대한 선호	12가지 배색중 선호하는 3가지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
6	2색 대비의 배색선호	배색에 대한 느낌	6가지 대비배색에 대한 의미척도(SD법)

동시에 1989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실험방법은 單色, 2색, 3색 조화에 대한 선호도 및 색채의 연상작용, 감정적 효과를 설문지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색채반응조사는 도시가로의 색채현황 분석결과에 대한 비교와 사용색채 범위의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는 표2-2와 같다.

2. 색채반응조사의 방법과 결과

1) 單色 기호도 조사

단색 기호도 조사는 순색 12색과高明도 저채도의 연한색 12색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로 3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여 집계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색채들은 유채색의 경우 민셀의 기본 10색상의 유채색에 무채색 백색과 흑색 2가지를 더하여 합계 12개의 순색 중에서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순색의 기호는 性別간에는 매우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연령층간에는 아동이 무채색의 흰색과 Y 계열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연한색은 KSA0011 한국공업규격 "색이름"규정에 따라서 색명을 표기하였으며, 성별간, 연령층간의 선호도 분포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 색채 연상 실험

본 조사에서는 단색선호실험의 12개 순색에 회색을 추가하여 13색을 제시하고, 각 색채에 따른 연상 對象語를 나열하여 그 중에서 數의 제한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聯想의 내용을 구체적 사물의 연상과 추상적 느낌으로 구분하여 반응을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층별에 관계없이 聯想順位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색채의 감정적 효과

색채의 일반적인 감정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색채에 따른 감정 효과를 5단계로 구분하고 溫度感, 遠近感, 輕重感을 측정하였다. 온도감은 난색·한색·중간색으로, 원근감은 진출색·후퇴색·중간색으로, 경중감은 가벼운 색·무거운 색·중간색으로 분류하였다. 측정 결과는 중간색의 빈도분산이 현저하며, 3가지 감정효과 가운데 경중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배색 조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건축물 외부색채의 주변 환경 색채와의 관련성 및 동일 건축물내 사용 색채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색 조화의 경우 유사색상에 명·채도차에 의한 배색을 선호하는데 비하여 3색 조화의 경우 색상차에 의한 배색을 선호하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온도감, 원근감의 순위로 약해지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감정 효과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4) 2색 배색

색채의 3屬性에 변화를 주어 12가지의 2색 조화 배색을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배색 3가지씩을 고르도록 하였다. 배색의 원칙은 여러 색채조화론에서 공통되는 원리에 근거하여 조화되도록 하였다. 결과는 동일 색상, 유사 색상에서 명도 또는 채도의 차이를 주었을 때 모든 층이 선호하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5) 3색 배색

2색 배색과 동일한 원칙하에 6가지 배색 이미지를 설정하고 색채의 3속성에 변화를 주어 가장 선호하는 배색 3가지씩을 고르도록 하였다. 성별, 연령층별에 관계없이 '명쾌'한 배색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색상차에 의한 調和配色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6) 2색 대비의 의미 척도

6가지의 2색 대비의 표본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느낌을 형용사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2색 대비에 SD 법에 근거하여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하고 그들 사이에 등간격의 눈금을 표시하여 피실험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성별, 연령층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무채색의 대비에 있어서 연령이 어릴수록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색채 반응 조사에서 건축물의 외부색채 계획과 관련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색의 선호도 분석을 비롯한 본 연구의 조사에서 사용한 색채의 민셀 기호는 조사의 결과가 그 색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색채를 중심으로 한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 해독해야 할 것이다.
- 도시가로 환경의 색채 조화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외부 색채 계획에 있어서 색채의 연상 및 감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른 문항에 비하여 그 활용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배색 조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건축물 외부 색채의 주변 환경 색채와의 관련성 및 동일 건축물내 사용 색채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색 조화의 경우 유사색상에 명·채도차에 의한 배색을 선호하는데 비하여 3색 조화의 경우 색상차에 의한 배색을 선호하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가로경관의 색채조절 측면에서 볼 때 색상차에 의한 배색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명쾌'한 배색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색상차에 따른 시각적 혼란을 초래한 위험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색 대비의 意味尺度 반응조사에서 무채색의 대비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점은 기존 가로환경의 시각적 획일성과 단조로움과 관련하여 색채계획시 무채색의 사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초적 단계로 설정한 문헌적 고찰의 결과는 색채사용의 실용적 측면과 관련된 색채조화의 문제와 그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심리적 반응 및 효과를 고려한 색채조절방법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色彩調和論들은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민셀색채체계, 문-스펜서의 색채조화론 등을 본 연구의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적 연구로서 색채반응의 조사결과는 전체적인 선호경향뿐만 아니라 각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세부적 선호경향으로서 색채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기존의 연구사례에 있어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 조사의 시기, 지역, 대상 등이 相異한 점을 전제하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단색선호의 경우 공통적으로 성별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기존의 조사결과가 연한색의 연보라, 연한 남색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 있어서 순색은 흰색에서 연령층간의 차이가 심한 편이고 연한색은 연노랑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색채의 연상 실험과 감정적 효과 2색 배색의 경우 조사결과는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3색 배색 이미지의 경우 기존의 조사결과가 '우아', '온화'한 배색이미지를 선호하는데 비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명쾌'한 배색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조사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상이한 차이점은 서울과 대구의 지역적 특성에 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색 이미지에 있어서 대구에서 선호하는 배색 이미지는 영남지방인의 기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都市街路空間과 建築物 外部

일반적으로 도시는 物理的 人工環境의 集合體로서 그 지역의 지역성과 풍토성, 산업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내포하며 그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조시설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의 건조시설물들은 그들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3차원적 속성을 지니며, 가로와 광장을 비롯한 도시공간은 공적, 사회적, 외향적 성격을 인간의 요구와 활동에 관련시킴으로써 각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도시공간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상호관련성에 따라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이미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케빈

도시가로공간의 시지각 대상을 가운데 가로변 건축물은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형태, 색채, 질감의 시지각적 요소를 가지며, 건축물 외부색채는 상징성, 주목성 등과 같은 색채의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환경색채로서 공공생활의 안전 및 안정과 관련된 물리적, 심리적 지표가 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린치(Kevin Lynch)는 그의 저서 「 The image of the city 」에서 환경의 이미지를 관찰자와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환경은 관찰자에게 구별과 관계를 제시하고 관찰자는 (폭 넓은 적응성으로 스스로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서) 관찰할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조직하여 형성된 이미지를 자신의 시각으로 한정시키고 강조하지만 이미지 자체를 새롭게 지각한 것과 비교하게 된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환경적 이미지를 구조(structure), 아이덴티티(identity), 의미(meaning)로 분석하고 이들은 항상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다. 환경적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는 우선 하나의 시각대상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독립된 개체로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는 시각대상과 관찰자, 다른 시각대상 사이의 공간적 관계, 패턴의 관계를 포함하고, 의미는 하나의 시각대상이 관찰자에게 주는 실제적인 감정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경적 이미지는 환경이 갖고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들간의 구조적 관련성 그리고 관찰자의 개인적 조건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그러한 이미지의 특성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구조적 측면의 연속성과 아이덴티티의 체계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로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공간적 이동을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가로공간의

계획은 교통수단의 물리적 흐름을 고려한 가로계획에 치중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한 공간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로공간의 구성요소들은 보행자의 시각에 자극을 주고 視知覺에 의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이미지 형성이 도시가로 공간계획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도시가로공간의 시지각 대상물 가운데 가로변 건축물은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형태, 색채, 질감의 시지각적 요소를 가지며, 건축물 외부색채는 상징성, 주목성 등과 같은 색채의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환경색채로서 공공생활의 안전 및 안정과 관련된 물리적, 심리적 지표가 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그 건축물의 성격과 특성을 표출하고,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공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암시하고, 도시의 지역성 및 전통적 생활상을 내포함으로써 인간 생활공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環境色彩의 이미지와 心理的 영향

인간이 물리적 시각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자극은 개성, 나이, 직업 등과 같은 개인적 조건에 관련되어 일련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색채는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 빛에 의하여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각으로 환경색채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다양한 심리적 효과로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색채에 대한 인간의 선호 또는 쾌적범위가 다른 환경적 요소들에 비하여 매우 넓고 다양하므로 색채의 정량화, 표준화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지만 환경색채의 자극에 대한 반응 즉, 인간행동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이면에 내재된 의식, 무의식, 외부자극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환경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정신적 의식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환경 속에 있을 때만 유지된다. 환경의 다양성이나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정신력의 집중력 상실, 주의력 산만, 감각상실 등의 비정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환경색채의 자극은 정상인에게는

미미하지만 비정상인에겐 강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즉 정신 치료학적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색채는 인간에게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한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인간적 척도(human scale)를 첨가 또는 확장하거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영역성을 확보해준다.

환경색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조건으로서 외부자극은 색채가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에 관련되며 이미지를 형성하고 반응하는 주체로서 개인적 조건은 지각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물리적 생체 : 개인의 신체적 조건, 건강상태, 감각기관의 건전한 상태
- 시간 및 기회의 요인 : 인간의 지각은 과거에 경험한 지각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도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 개인적 문화 환경 : 인간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환경의 요구에 대처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 목표, 가치관, 인생관 : 인간의 개성, 성격 등으로 묘사되며 추구하는 삶의 기준으로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와 같은 인공환경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크기가 크고 넓이가 넓은 것일수록 인간의 지각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도시에 있어서 가로와 건물은 인간의 시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로변의 건축물들은 도시가로의 다른 시설물들과 물리적 위치 관계에서 그러한 시설물들의 배경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색채는 가로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로변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건축물 자체의 특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외부색채계획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도시설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조건들은 그 의미가 약화되고 색채의 일반적인 심리적 효과가 우선된다고 할 수

도시와 같은
인공환경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크기가 크고
넓이가 넓은 것일수록
인간의 지각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도시에 있어서 가로와 건물은
인간의 시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로변의 건축물들은
도시가로의 다른 시설물들과
물리적 위치 관계에서 그러한 시설물들의
배경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색채는
가로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로변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건축물 자체의 특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있을 것이다.

2. 建築物 外部色彩에 대한 視覺的 선호

環境設計에 있어서 환경적 자극은 설계문제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시각적 質(quality)과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은 환경미학과 환경심리를 근거로 하게 된다. 시각적 가치는 물리적 환경이 주는 자극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문화적 배경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시각적 질은 간단한 물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각적 질은 시각환경의 연속, 可視性, 複合性과 시각적 충격의 요소로 구분되어 시각적 선호에 관련된다.

시각적 선호에 대한 연구는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실험적 모델을 통한 연구는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설계에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선호도 측정 및 예측의 체계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의 설정등과 같은 방법론적, 기술적 문제는 도시 및 건축의 환경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환경설계에 있어서 시각적 선호의 연구는 설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것의 주요문제로서 물리적 가변성, 추상적 변화성, 상징적 변화성, 집단간의 차이(group difference)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선호의 연구는 시각적 質, 복합성, 상징적 의미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설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외부 색채에 대한 시각적 선호는 색채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반응에 기인하여 어떠한 분야보다도 복잡하지만 색채가 갖는 기능적 특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물리적 가변성의 문제는 색채가 갖는 현실적 의미에 의하여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와 관련되고 주변환경과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추상적 변화성, 상징적 변화성의 문제는 색채에 부여된 인위적 의미와 본래의 은유적 의미에 관한 표현 및 전달의 문제로서 가로공간의 주변환경요소에 대한 조화가 색채계획과정의 제한적 요소로

표3-1 建築物 外部 色彩과 內部 色彩의 比較

	내부 색채	외부 색채
색채 사용의 범위	내부공간의 용도나 기능이 제한적 요소로 사용자의 주관적 감각이 선택적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색채 사용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건축물 자체의 내적요인 보다도 주변환경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제한 되므로써 사용 색채의 종류가 단순하다.
시지각적 심리적 영향	시지각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용자 활동의 안전 및 안정성, 효율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지각의 범위가 개방적이며 視點에 따른 변화가 다양하다.
배 색	공간적 형태에 따른 배색이 일반적이며 공간적 質(quality)을 좌우한다.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갖는것이 일반적이며 건축물 외관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요소와의 관련성	일광보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색채 효과 치리가 일반적이다.	일광을 제외한 다른 빛에 의해 거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일광의 시지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표3-2 建築物 外部色彩의 特性

원 칙	특 성
모든 시각적 요소와의 관련성 고려	○환경색채로서 배경색채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 ○광선, 온도 등의 자연적 조건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지역성, 풍토성 고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감각과 정서에 순응해야 한다. ○사회적 공동성을 가져야 한다.
건축 외장재의 특성 고려	○재료의 자연색을 가능한 강조 ○색채의 질감에 따른 색채효과를 고려한다.

작용한다.

○집단간의 차이 문제는 건축물 외부색채의 경우 설계자와 불특정 다수의 관찰자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관찰자는 다시 연령, 직업 등의 개인적 조건에 따라서 시각적 선호가 달라진다.

3. 都市街路環境과 建築物 外部色彩

본 연구에서의 도시가로환경에 대한 개념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개념으로 인간의 시지각을 통한 인간-색채환경의 관련적 측면의 배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로환경이 시지각을 통하여 가로 경관의 환경적 이미지를 형성할 때 그것의 질적 측면은 도시설계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도시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그 지역의 지역성과 풍토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도시설계의 개념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발생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설계는 그러한 짧은 역사성에 비추어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도시설계의 주된 설계 대상은 가로와 광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구조적 측면에서 도로면(바닥), 건축물(벽), 스카이라인(천장)의 3차원적 속성을 지니고 가로는 광장에 비하여 인간활동의 動的인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가로환경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視覺對象으로서의 가로경관의 이미지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러한 도시의 가로는 도시 자체의 존재양식과 도시내 인간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골격을 형성하고 그 속에 수용된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즉,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전체 또는 부분적 가로공간은 장소적 특성과 상징적 특성을

가지며, 인공환경의 집합체로서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인간활동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장소적 특성 및 그것과 관련된 의미와 상징 등이 인간의 감각 속에서 인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그 자체가 각각 하나의 시각대상이 됨으로써 그들중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색채가 갖는 의미와 상징등의 심리적 효과에 따라서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제도상으로 그것에 대하여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환경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통제되지 못함으로써 도시가로경관의 시각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로경관의 건축물 외부색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해결은 가로환경의 구조적 측면에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물리적 관련성을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 사이의 관련성은 각 요소들의 크기, 위치 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건축물은 다른 시설물들을 둘러싸는 배경적 역할을 하고 색채를 포함한 가로경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그 형태와 함께 가로경관의 시각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4. 건축물 外部色彩의 特性

前述한 바와 같이 도시가로경관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부색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 특성은 건축에 사용되는 색채의 일반적 특성과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색채의 특성에 비교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색채의 일반적인 특성은 건축이 공익적 차원의 실용적 목적을 위한 創造行爲의 產物이라는 관점에서 건축의 기능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측면 : 중세에 이르기까지 장식적, 상징적 차원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근대건축의 극단적인 합리주의적 경향으로 인하여 건축색채의 의미가 비교적 약화되었으나, 그러한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보다 인간적인 욕구를 수용하기 시작한 현대건축은 건축색채의 사용목적과 배색효과, 색채관리 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건축의 기능적 측면에서 건축색채의 특성은 사용목적에 따른 과학적 배색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색채의 내구성, 시공, 조명의 효율성 등과 같은 경제성도 기능적 측면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건축공간의 질과도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건축색채의 기능적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색채의 선명도 : 선명한 색은 관찰자들의 주목을 끌고 환기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킨다. 건축물의 색채는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선명도를 가져야하나 그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색채의 특이성 : 주위의 색채에 대하여 특이한 색채는 보다 명확한 이미지를 형성하지만 지나치면 주변환경과 관련된 통일성,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색채의 적절성 : 건축물에 대한 색채의 적절한 사용은 관찰자에게 유용한 호감을 주는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용도, 사용자 등과 잘 조화되어야 한다.
 - 색채의 주목성 : 관찰자의 시선을 무의식중에 끌어당기는 것으로 선명도, 특이성과 관련되어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 색채의 현실성 : 색채가 건축물의 실제적인 기능이나 용도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색채가 갖는 현실적 의미를 활용하는 것이다.
 - 색채의 유용성 : 색채가 갖는 일반적인 기대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색채의 특수성 : 색채에 부여된 인위적 의미를 활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건축물에 일정한 색채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색채의 고유성 : 색채의 고유성은 관찰자의 개인적 조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색채의 상징성 : 색채의 은유적 의미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기능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 사회적 측면 : 건축물은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으로 건축색채는 설계자, 건축주, 사용자의 주관적 감각과 같은 개인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문화적 측면 : 인간은 환경에 대한 적응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다른 유기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다른 유기체들은 적응수단이 형태학적(morphological), 생리학적(physiological), 유전적(genetic)인 것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인간은 이러한 생물학적 수단 외에도 문화적인 적응수단을 가지며, 적응목적에 있어서도 단순한 생존을 초월하여 갖고 있던 사회문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따라서 지역성, 풍토성, 민족성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건축물의 색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건축물의
내부색채가
인간을 '애워싸는'
한정된 공간적 범위로서
지각되는데 대하여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노출되어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어떠한 시각적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에 표현된
시각적 요소 및 주변의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와 함께 지각됨으로써
도시가로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색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외부색채는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주변환경과 함께 지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건축물의 입면은 벽면과 개구부로 구성되며, 외부벽면이 재료색 또는 인공채색에 의한 색채를 가지고, 개구부는 그 재료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색채의 중요성이 감소된다.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색채 자체의 특성, 배색면적, 설계자의 의도와 관련된 형태 등에 따라서 주조색(dominant color), 보조색(second color), 액센트색(accent color)으로

배색된다. 이와같은 건축물의 외부색채와 내부색채의 차이점은 표3-1과 같다.

이상과 같은 건축색채의 일반적 특성과 내부색채와의 비교에 의한 차이점은 고밀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된 도시가로공간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가로변 건축물은 가로공간의 3차원 속성 중 입면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가로시설물들과 복잡하게 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도시가로의 입면경관은 건축물을 비롯한 가로 시설물들이 가로를 따라서 형성하는 공간적 연속성을 갖는 입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외관의 시각적 요소 가운데 외부색채는 그 형태와 함께 가로 경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표3-2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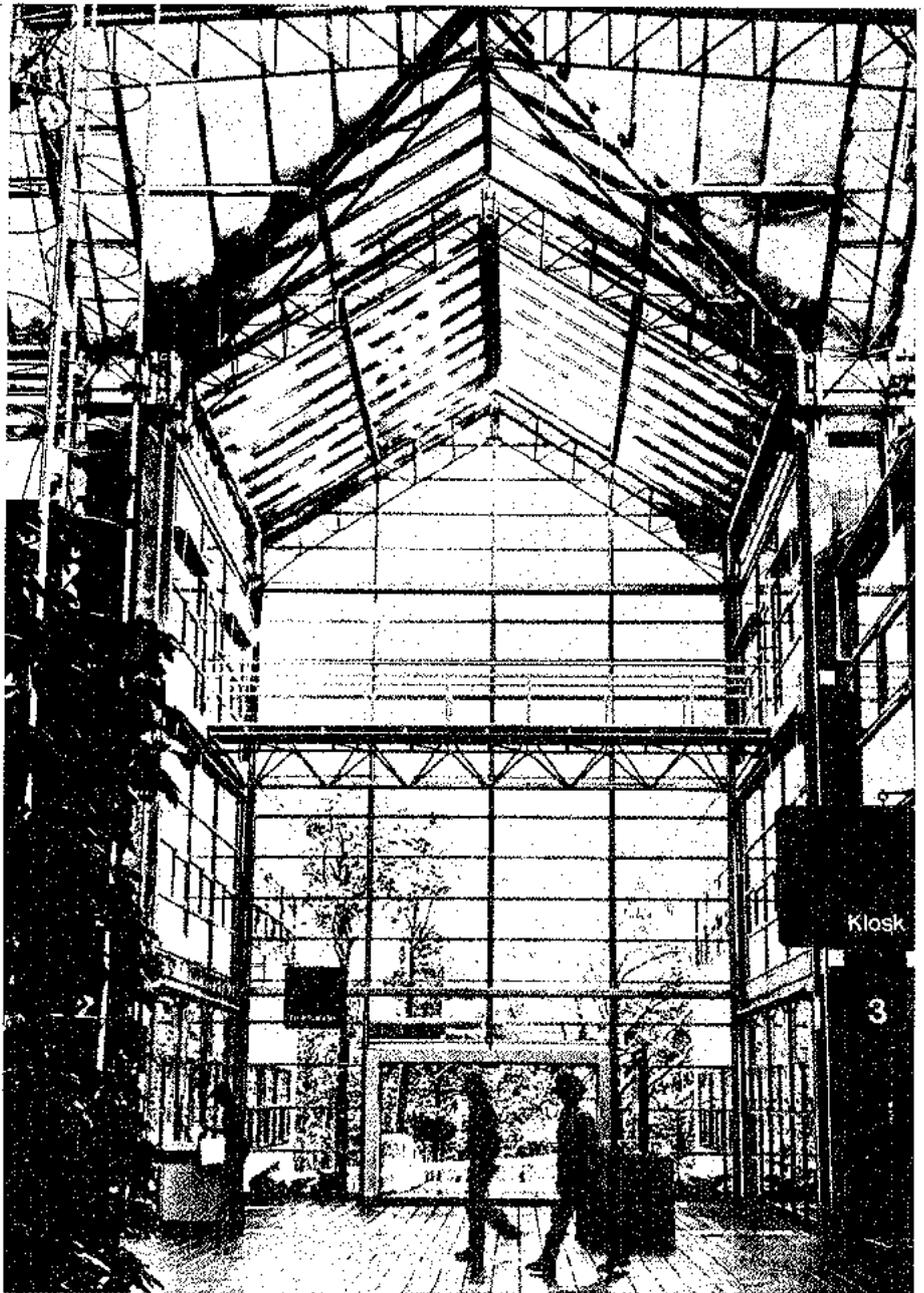
도시가로경관에 있어서 환경색채는 가로공간의 장소적 특성과 상징적 특성과 관련된다. 도시가로의 구조적 측면에서 건축물은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물리적 관련성 및 그 자체에 표현된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건축물을 중심으로한 일정한 공간적 영역내에서의 장소적, 상징적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로경관에 있어서 건축물이 하나의 시각대상이 될 때 환경색채로서 건축물 외부색채가 갖는 의미와 상징, 심리적 효과 등은 시각환경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내부색채가 인간을 '애워싸는' 한정된 공간적 범위로서 지각되는데 대하여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노출되어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어떠한 시각적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에 표현된 시각적 요소 및 주변의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와 함께 지각됨으로써 도시가로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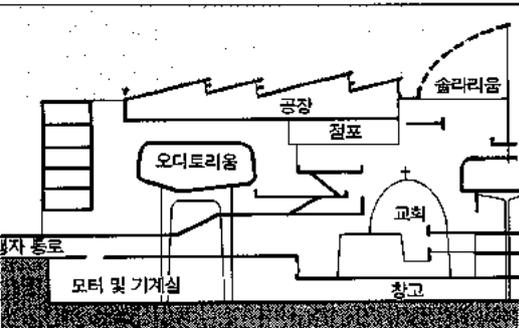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기초적 단계로서 색채와 관련된 문헌적 자료를 고찰하고 색채반응조사에 의한 실험적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건축물 외부색채의 계획과정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정 모델을 설정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4) : 에너지 조절

*A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
Energy Contro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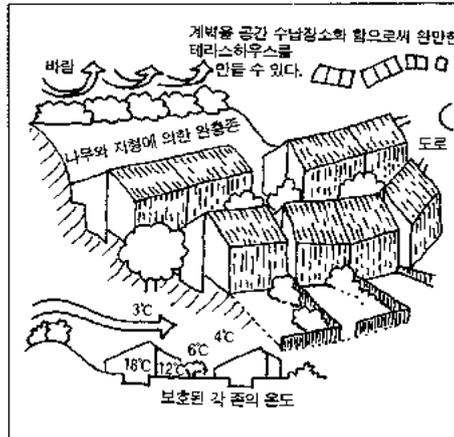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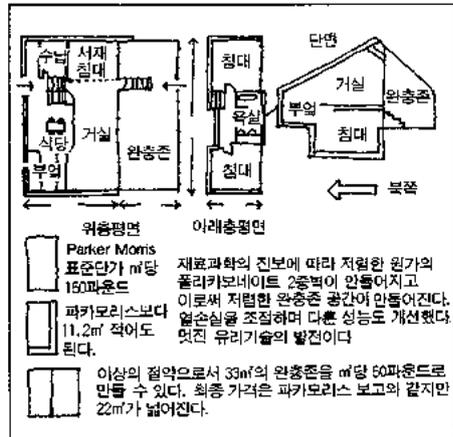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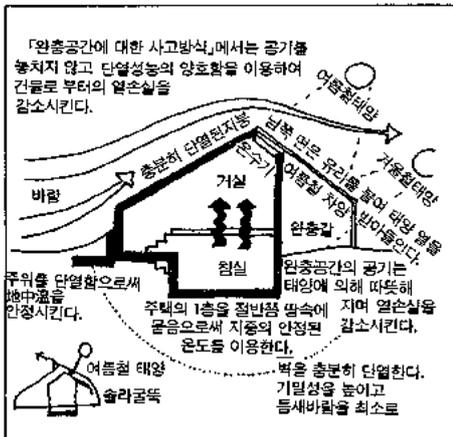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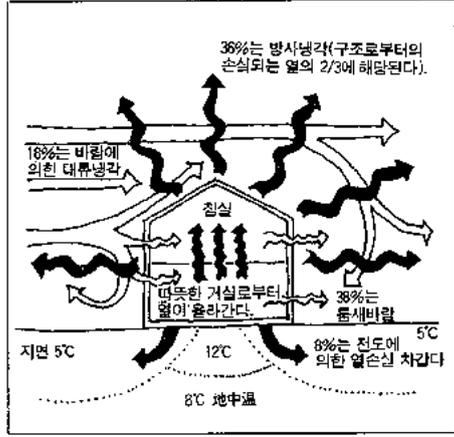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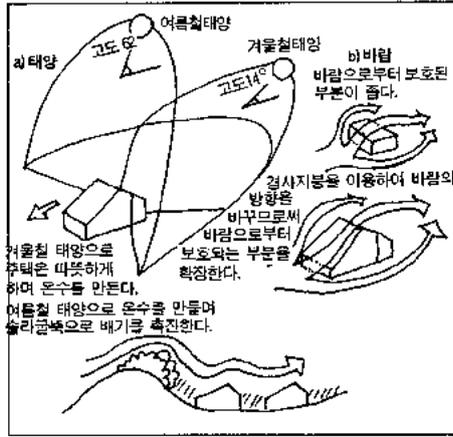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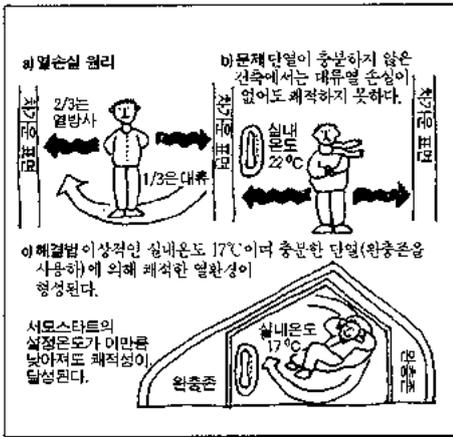
아트리움을 에너지 측면에서 다룰 때는 이미 설명한 아트리움의 4가지 기능중에서 쉼터와 경계적인 기능을 논의하게 된다. 즉, 건축환경안에서 얻을 수 있는 쾌적함의 쉼은 코스트와 함수관계가 있다. 이 코스트 중에서 어느 부분은 초기 투자이지만, 이제는 점차 러닝 코스트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쾌적함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앞으로 수 십년에 걸쳐 제기될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아트리움 건축은 보다 적은 에너지 코스트로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 추위(또는 더위)로 부터의 도피

일반적으로 도시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건축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건물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공간은 「남겨진 부분」 즉, 옥외공간이었다. 도시가 최초로 탄생된 곳은 기후가 온화한 지중해 지방으로서 그곳에서는 개방된 가로와 광장이 각각의 건축을 구분하는 원형으로 확립되었다. 공공공간은 건물의 내부와 마찬가지로 쾌적하였는데 이 시대의 건물은 대부분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서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인 생활은 옥외에서 일어났으며, 이때 아고라 주위의 柱廊이 차양 역할을 하였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은 보다 덥거나 보다 춥거나 혹은 보다 습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사람들은 쉼터 만드는 방법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공간은 쾌적함을 상실했고 거주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어떤 문화에서는 아케이드와 天蓋를 사용하여 태양과 비와 눈으로부터 사람들

金正泰
경희대학교 부교수·공학박사
by Kim, Jeong-Tai



보호하였다. 또 다른 문화에서는 식물을 심어 그늘을 만들으로써 가로가 시원해 지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시대에 급히 만들어진 도시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슬람세계에서만은 건물이라는 「실재」와 가로라는 「빈 공간(voids)」을 일체화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Buckminster Fuller 는 전통적인 서구도시를 열교환율이 최대화 되도록 설계된 거대한 그물 눈모양의 넓은 표면적을 가진 엔진의 라디에이터에 비유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도시 표면 가운데서 스스로 약간의 열을 받아 들이거나 또는 방출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의해 강요되기는 했지만 매우 비경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도 독립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쉼터는 자기 완결적이며 서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케이드가 19세기에 발생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주택건설이나 아케이드건설 등이 모두 같은 개발업자의 소유였다. 따라서 도시전체를 덮을 수 있는 등 같은 발상은 전능 독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다소라도 개선할 가능성은 가장 가혹한 기후에서 사는 사람들로 부터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의 북극권에 가까운 커뮤니티에서는 경제적인 난방과 단열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그들은 도시전체를 모두 덮어버리는 것도 고려했는데, Ralph Erskine 의 계획이 특히 흥미롭다(Architectural Design , 1960년 4월호 참조). 미네아폴리스에 아트리움 건물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네아폴리스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추우며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네아폴리스와 양극을 이루는 더운 지방인 아틀란타와 휴스턴에서는

최초로 공기조화가 실시되는 지붕덮인 공간이 만들어 졌다. 1960년 휴스턴에는 최초로 지붕달린 스타디움인 아스트로돔이 만들어졌다.

건물 사이의 공간에 지붕을 덮게 되면 보다 쾌적한 「옥외」공간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의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도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astings 와 Ruberg 에 의하면(Progressive Architecture , 1980년 4월 호, 114 p), 기존의 가로에 유리지붕을 얹음으로써 인접 건물의 열손실을 57%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리지붕 덕분에 겨울에는 건물의 외벽과 포장도로에 태양열을 비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달인 공간이 드래프트 로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 내부로의 유출입되는 열손실을 줄일 수도 있었다. 여름에는 유리지붕으로 인한 그늘 효과는 매우 귀중하며, 지붕의 환기구멍을 열면 열기가 자연히 유출된다.

완충존을 학교·점포·작은 사무실 사이에 만드는데 공공투자자 사용된다. 이것은 달일으로써 아케이드나 실내광장이 된다.

「사무소」에서 완충공간은 중심에 있으며 전망을 즐기기도 하고 휴식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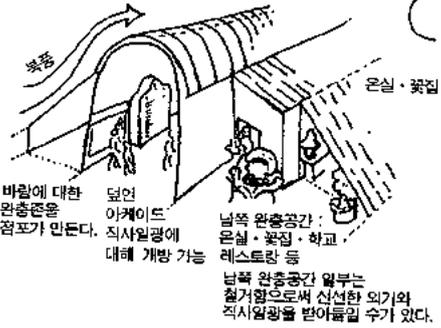
「생산시설」에서 완충공간은 부속된 사무실·점포·에메타공간이다.



사이를 두어 소통을 위한 엑세스공간이 있다.

7

「집무공간」에서는 주위의 전원 경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한 즉시 외부로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집무공간은 땅 속에 묻음으로써 주택으로부터의 전망을 양호함과 동시에 집무실 사이에서의 업무하루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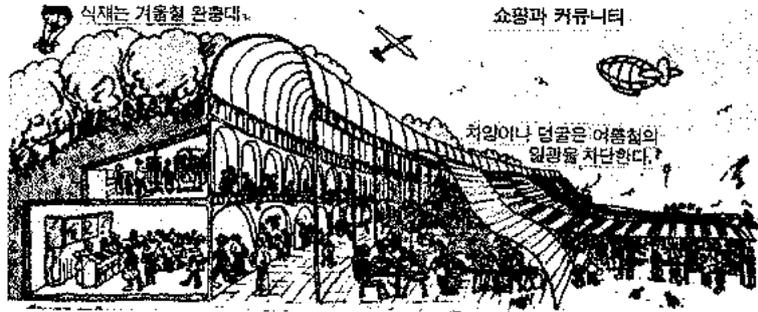


8

■ 완충 공간에 대한 사고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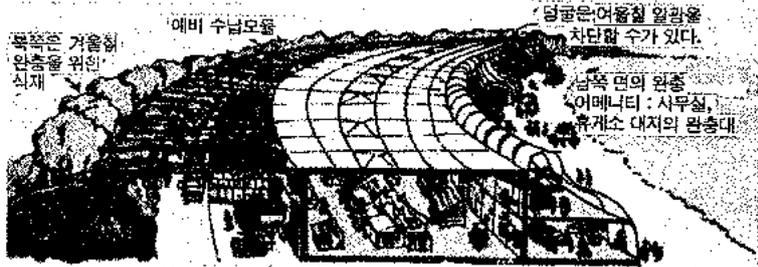
실내 거주공간을 덮고있는 「街路 지붕」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완충효과를 초래한다. 즉, 외부의 가혹한 기후조건-기온, 열방사, 바람 및 비-은 얇은 피막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고 완충공간의 표면에서 확산된다.

Terry Farrel 과 Ralph Lebens 는 영국의 건축가와 기술자로서, 그들은 이상과 같은 측면을 「완충공간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불렀다. 「내일의 커뮤니티」라는 1980년 가디언紙의 현상에 당선된 이 두 사람의 논문은 완충공간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한 어떻게 하여 그 제어가 이루어 지는가를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들은 계획 내용을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지면과 식생을 셀터로 고려하는 방법과 태양열을 피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점포와 커뮤니티실 아케이드 전 스페이스가 완충공간 아케이드 연장으로서는 매점

공장과 커뮤니티의 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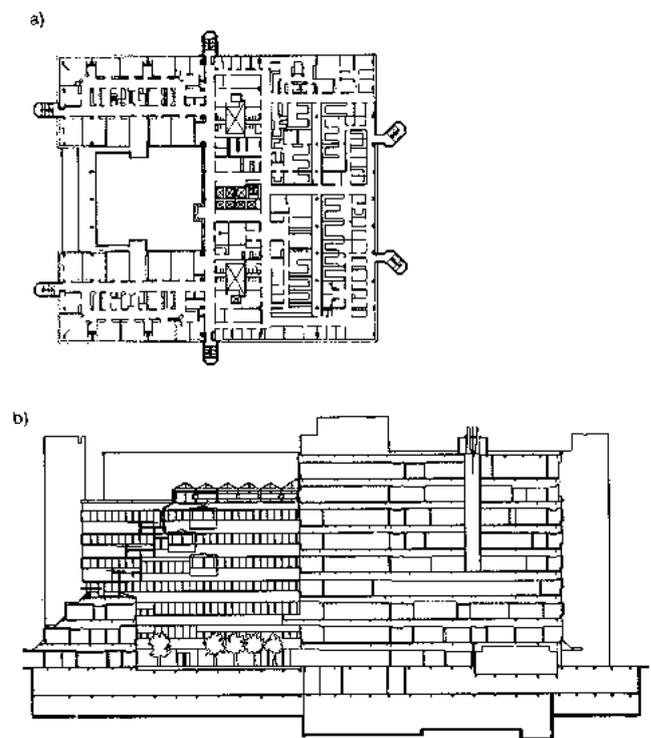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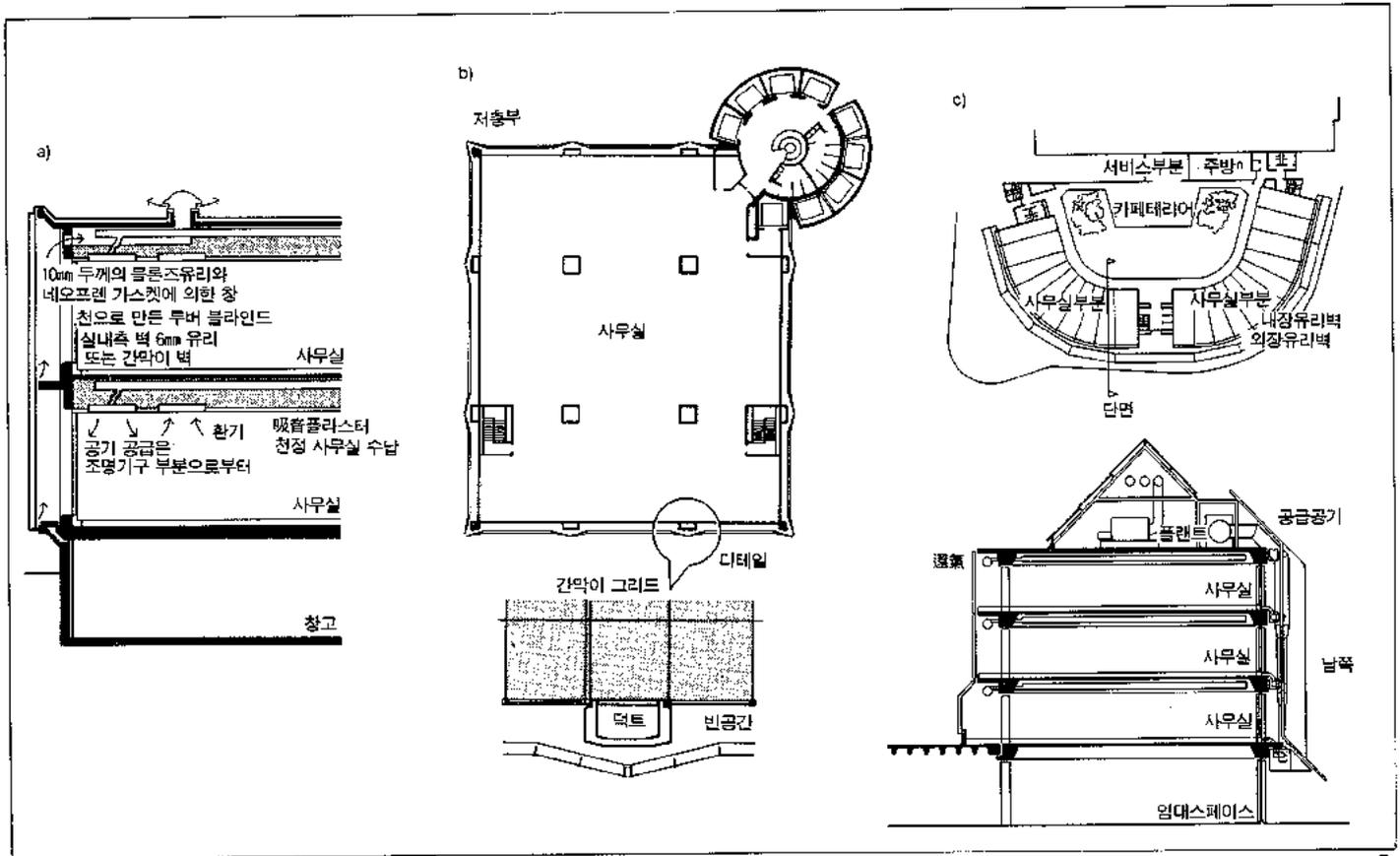
서비스야드 하의 공장/작업장은 완충존 사이에

9

1. 북극권 근처의 전천후형 통로 노르웨이 트론드 하임대학
2. 북극센터의 기본 계획 Ralph Erskin. 주택과 산업공간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공공공간을 포함시키는 제안
3. 완충공간의 사고방식 가디언지의 현상 「내일의 커뮤니티」 당선안 그림. David Carke Terry Farrel, Ralph Lebens.
 1. 에너지를 의식한 디자인은 먼저 열적 쾌적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기후에 맞추어 디자인 한다」는 것은 바람과 태양의 효율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
 3. 비효율적인 주택 : 일출실경로
 4.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5. 전형적인 5인 가족용 주택
 6. 완충여우정
 7. 집무공간을 계획할 때의 완충공간에 대한 사고방식
 8. 새로운 종류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완충공간의 사고방식 쇼룸과 커뮤니티 공장과 커뮤니티의 작업장

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유리로 된 완충공간에서의 공기흐름을 사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유효성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될 수 있는 한 건물의 방향은 동서로 향하게 하고 북쪽은 지면에 묻거나 식물을 심은 동산으로 덮어버린다. 태양을 받는 남쪽은 거실 바깥쪽에 온실을 이용한 완충존을 둔다. 그리고 거주구역은 태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케이드 양쪽이나 아트리움 주위에 2층의 뱅크로서 만들게 되어 있다.

완충공간 부분은 1년 내내 인공폭적 장치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때 에너지 이용이 가장 경제적으로 달성된다. 완충공간의 구조는 경량이기 때문에 책적하게 공기조화되어 있는 다른 공간에 비해 완충공간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따라서 완충존을 이용할 때는 계절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카페를 예로 들면 겨울철에 옥외용 복장을 입고 이용하며 여름철에는 리조트용 복장을 입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난방이나 냉방을 지나치게 작동시킨 아트리움은 에너지에 대한 관점을 망각하는 셈이 된다.

최근의 많은 건물에서 완충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완전한 2중벽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Arup 설계사무소는 이 개념을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사용하고 있다. Basil Spencer 경은 에딘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과부보험회사 본사에 이 개념을 이용하여 설계했다. 또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후커빌딩은 1981년 캐논설계사무소가 완성시켰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디자인 가운데 몇개는 공간의 태양열을 회수하여 겨울철에 재이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을 환기용 폴리넴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아이디어이다. 즉, 벽을 두 겹으로 만드는 것은 비록 그 각각의 한 겹의 튼튼한 벽에 비해 가볍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파벨과 레벤스의 그림에서는 2중벽의 완충존을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특히 매우 효과가 높은 부분에서만 사용한다. 남쪽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또 북쪽은 造園에 의한 셸터가 보다 바람직하다. 아트리움의 개념은 되도록 외부로 면하는 부분을 줄이고 가능하면 내부표면을 많이 만들려는 데 있다. 지붕에 유리가 사용되고 있는 입방체형 아트리움 건물에서는 벽에 비해 지붕쪽이 4배의 완충효과가 있다. 벽의 단열과 방수비용의 절약은 지붕 비용의 증가를 충분히 보충해 줄 것이다.

건축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는 주택 이외의 건축용도에 대해 벽의 단열 기준이 설정되었다. 이것은 관리하기는 쉬운 수법이지만 디자인의 혁신이란 측면에서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건축 기준(Part FF)에서는 난방되지 않은 완충공간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다. 즉, 완전히 난방된 공간과 부분적이거나 혹은 전혀 난방되지 않고 폐쇄된 공간 사이를 어떤 벽이 격리하고 있는 경우, 그 벽은 규정된 단열 성능값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비난방 공간은 외부에 단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리로 덮인 아트리움이나 온실은 그것과 거주공간과의



⑤

④ a Arup Associates 의한 3종류의 2중벽

British Sugar Office 단면도(영국 피터버러)내벽은 간막이 시스템의 일부이며 필요에 따라 유리로나 진짜 벽으로도 만들 수 있다. 지하창고로부터 유도된 공기는 벽공간을 통해 환기된다. 시원한 기구를 해결하는 방법

b 요하네스버그 IBM 빌딩의 평면과 디테일 따뜻한 햇살이 많은 기후에서 외벽은 열을 차단 하는데 사용된다. 외벽은 열선흡수유리이며 냉각을 위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c 영국 윈터버의 사무소 블록(1983년)평면과 단면 2중벽은 태양이 비치는 쪽에만 채용되고 있으며 빈공간은 공공공기의 덕트부분으로서 이용된다. 외벽은 필링톤의 플라나 시스템이며 실리온 실에 의해 후에임 없는 유리가 되고 있다.

⑤ a/b 필라델피아의 소아병원(CHOP), 평면과 단면

하베슨, 휴, 리빙스턴과 라센 설계, 중정의 개방된 부분이 남향이며 겨울철 태양을 받아들인다.

c CHOP의 아트리움 레스토랑과 입구홀로 이용되며 동시에 還氣용 폴리넴이 되고 있다. 자방 아래 덕트에 주공

⑥ HUB 빌딩 육내통로

앨버튼주 알버타대학, 다이어몬드와 아이어즈실계

사이에 최소한의 벽이 있으며 그 벽으로 이미 단열기준 요건은 충족시킨 것이 된다. 미국의 경우 아트리움 건축의 가능성은 Harbeson, Hough, Livingston 과 Larson (H2L2)이 설계한 필라델피아 소아병원(CHOP)에 나타나 있다. U자형으로 된 이 평면은 남향 아트리움을 둘러싸고 있다. 가로로 면한 벽에는凸凹되어 단열을 충분히 하고 창도 최소한만

설치하였다. 아트리움에 면한 벽은 경량 간막이벽으로서 창이 넓다. 따라서 CHOP의 방어적인 외벽은 가벼운 중정 공간과 두드러지게 대조적이다. 유희실, 처치실, 그리고 복도에서 중정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이 중정은 레스토랑으로 이용하고 있다. CHOP은 아트리움을 還氣용 폴리넴과 자연형 태양열 집열기로서 이용되고 있다. 즉, 여름철에는 지나치게 실내가 과열되지 않도록 지붕과 남쪽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공기를 재순환시키지 않고 중정공간으로부터 직접 밖으로 배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완충공간 사상이 뛰어난 사례로서 유럽에서는 노르웨이의 Trondheim 대학을 들 수 있다. 건축가 Henning Larsen이 현상설계에서 1위를 차지한 뒤 10년 만에 걸쳐 캠퍼스의 제 1기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 건물은 3층으로 된 거실블록이 동서로 뻗는 7.2m 폭의 통로 양쪽에 위치한다. 그 곳은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 환관 역할을 하는 짧은 「神廊」과 마찬가지로 유리가 사용되어 있다. 이는 난방이 되지 않지만 양쪽 건물에는 간단하고 큰 갤러리 창이 달려 있다. 여름철에 태양은 창에 설치된 황색 블라인드(천으로 만들어짐)에 의해 차단되고, 지붕을 통해 환기를 실시함으로써 열기가 제거 되고 서늘한 바람이 완충존으로 흘러들어 온다. 또한 겨울철에는 충분히 따뜻하여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에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셸터로 된 가로는 건물이 보다 분산된 캐나다의 알버타대학에도 만들어져 있다. 그곳의 HUB 빌딩은 1970년대 초에 건축되었다. Barton Myers가 설계한 이 건물은 학생들의 숙소에 완충공간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학행 활동의 사회적인 중심역할과 동시에 다른 건물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자연형 태양열 디자인

완충공간의 사고방식에서는 자연형 태양열에 의한 집열을 하나의 수법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흐린 날씨가 많은 북유럽에서는 틈새바람 방지와 따뜻해진 공기에 의한 「사기(도자기)보온 커버」효과가 보다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사시간이 긴 곳에서는 아트리움을 자연형 태양열 집열기로서 이용할 가치가 크다. CHOP은 태양열로 따뜻해진 공기를 모으는데 아트리움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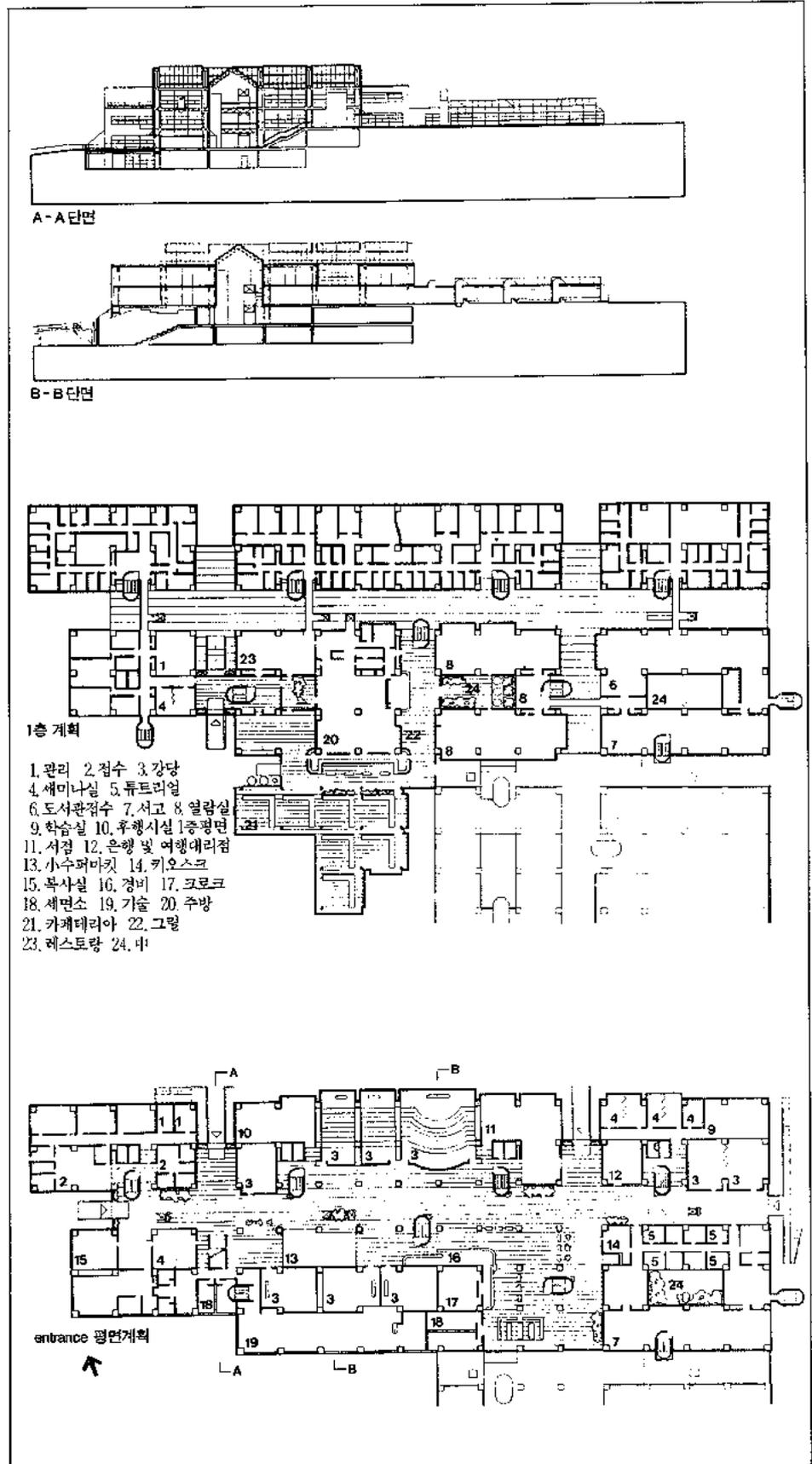
콜로라도주 골덴에 1984년에 완성된 태양에너지 연구소본부(SERI)에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채택되어 있다. 데이블 마운틴 설계사무소(CRS와 더빈 블룸 설계사무소와의 조인트벤처)에서는 완충공간의 사고방식에 따라 계획을 구성하였다. 부지는 남쪽으로 향한 분지 모양의 경사로서 대지에 의해 보호되어 있다. 건물의 블록 열은 동서로 뻗어 있고 이들 사이는 현관을 겸한 선상의 아트리움으로 이어져 있다. 이 건물은 정부건물이기 때문에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아트리움이라 하지 않고)「솔라 코트」라 부르고 있다. 각 동은 계단형이기 때문에 각 건물의 남쪽 벽에 태양이 충분히 사입된다. 갖가지 자연형 태양열집열기-트롬벽, 상변화 축열체, 축열 물벽-에 의해 바깥쪽에 유리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열이 가능하다. 유리지붕의 바깥쪽에 설치한 자동셔터에 의해 겨울철에는 야간의 방열을 방지하고 여름철에는 야간에 방사냉각을 실시함과 동시에 낮동안에는 일사량을 줄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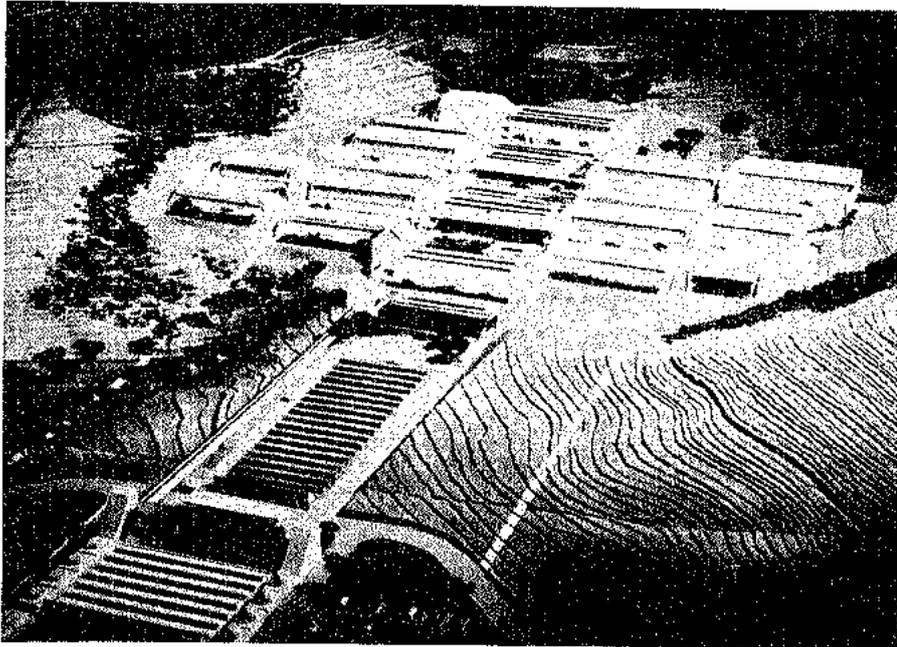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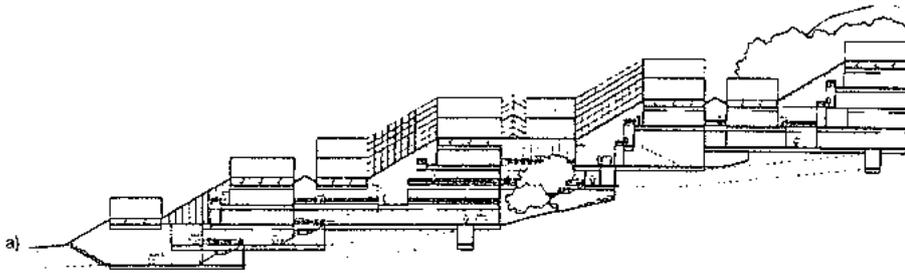
화재발생시를 위해 준비된 중정의 배연팬은 여름철 야간에 구조체를 경유하여 냉기를 받아들인데 사용된다.

SERI의 아트리움은 이상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것은 에너지의 수집과 절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스케일을 조성하고 교통경로로서의 방향성을 부여하며 어머니티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접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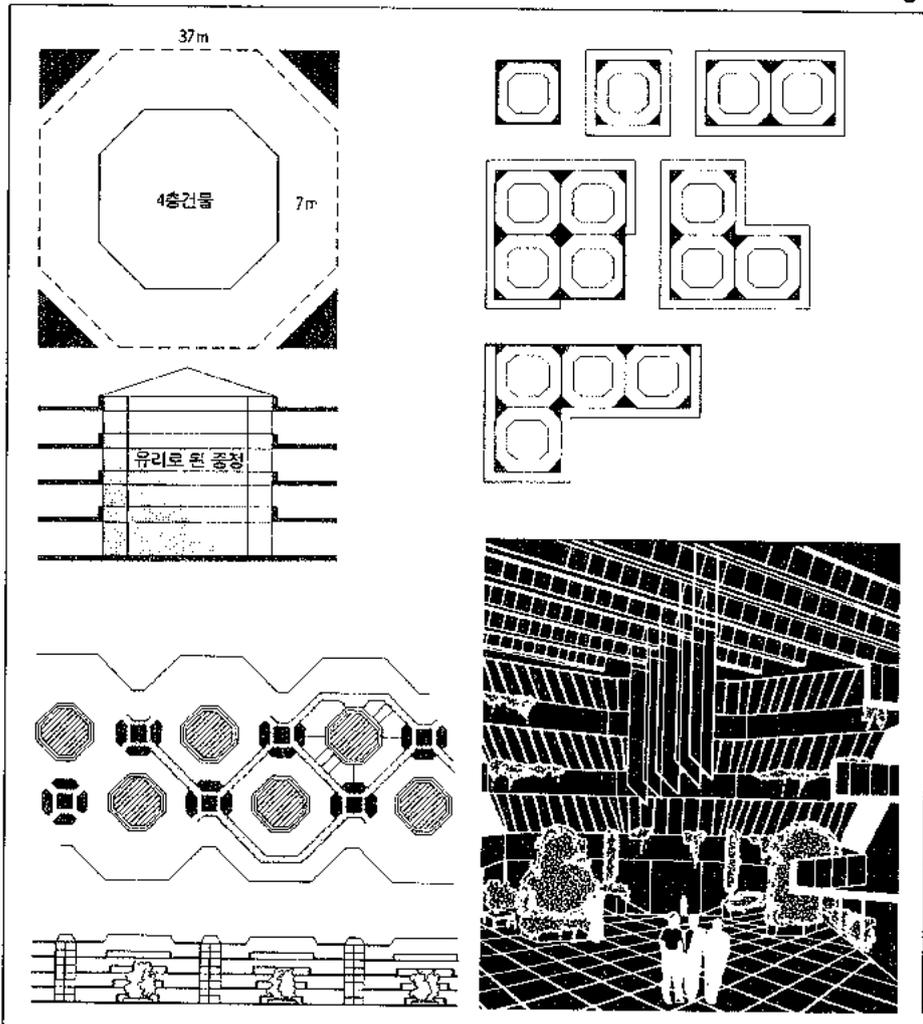
■ 자연채광

선진국에서는 주택 이외의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이 조명 때문이다. 조명은 비교적 비싼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에너지의 소비 비율로 본다면 대단한 낭비이다. 지난 30년 동안 형광등이 도입된 이후 건축은





8



9

⑦ 노르웨이의 드론드 하임대학

1층(입구 층)과 2층 평면 및 단면, 캠퍼스가 성장되더라도 외벽 면적은 최소한으로 억제되며 터치가 늘어난다.

⑧ a SEPI 본부 단면도 플로라도주립대, 이 건물은 남쪽 비탈면에 계단모양으로 세워졌으며 각 형(날개)는 선형 아트리움으로 연결된다.
b 외관 모형

⑨ 자연채광형 건물형태의 개념

Dean Hawkes 와 Richard MacCormac 모델을 사용하여 영국의 4월에서 9월까지 사무실 배경 조명레벨을 주광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공간모들이 개발되었다. 이런 형상의 중정은 여름철에는 냉방부하를 제거해주고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모아 축열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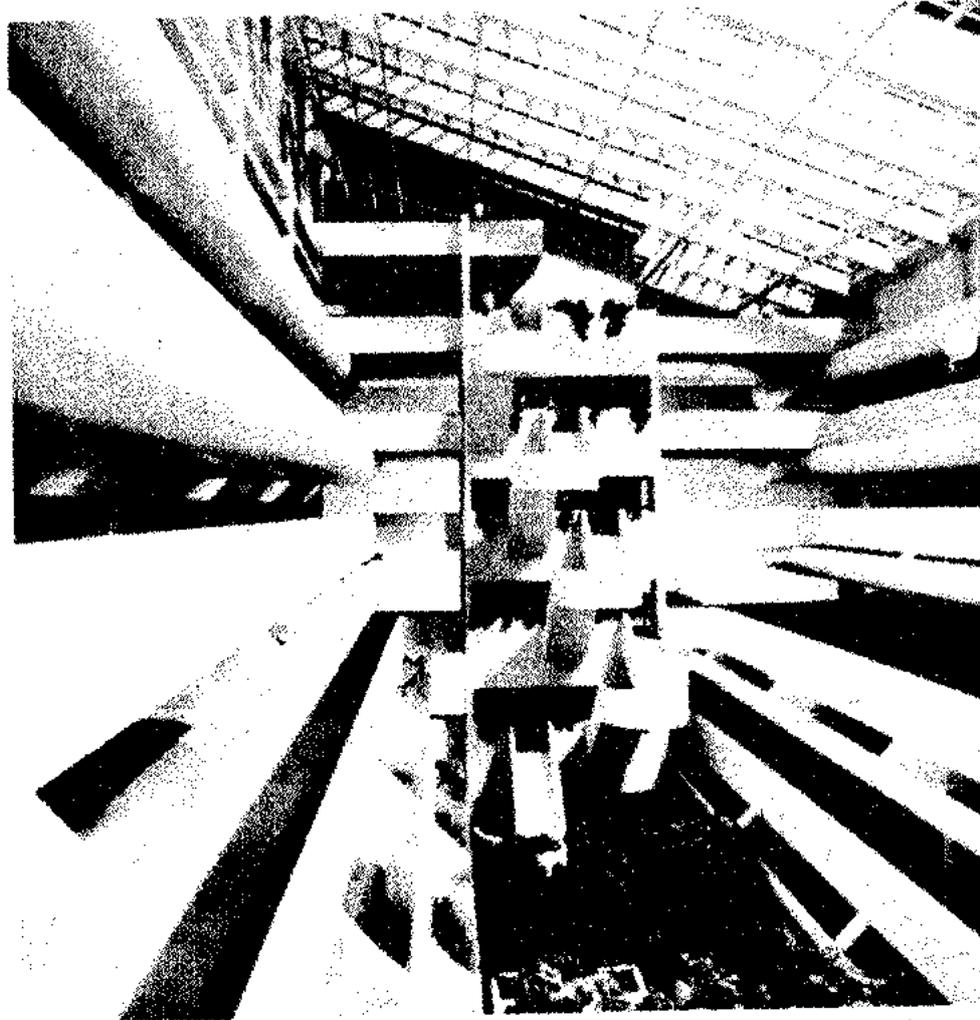
⑩ TVA 건물

- ① 캘리포니아주 산노제, 오크리지물 안에 있는 볼록스 백화점
막지붕 아래의 아트리움은 인공조명과 냉방부하를 절약해 주고 있다

주광보다는 형광등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왔기 때문에 주광설계의 원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실 깊이가 길게 계획된 건물은 외주벽이 적기 때문에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 에너지가격의 동향에 따르면 주광쪽이 보다 경제적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창을 통한 열이동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만일 열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광이용은 보다 더 효용이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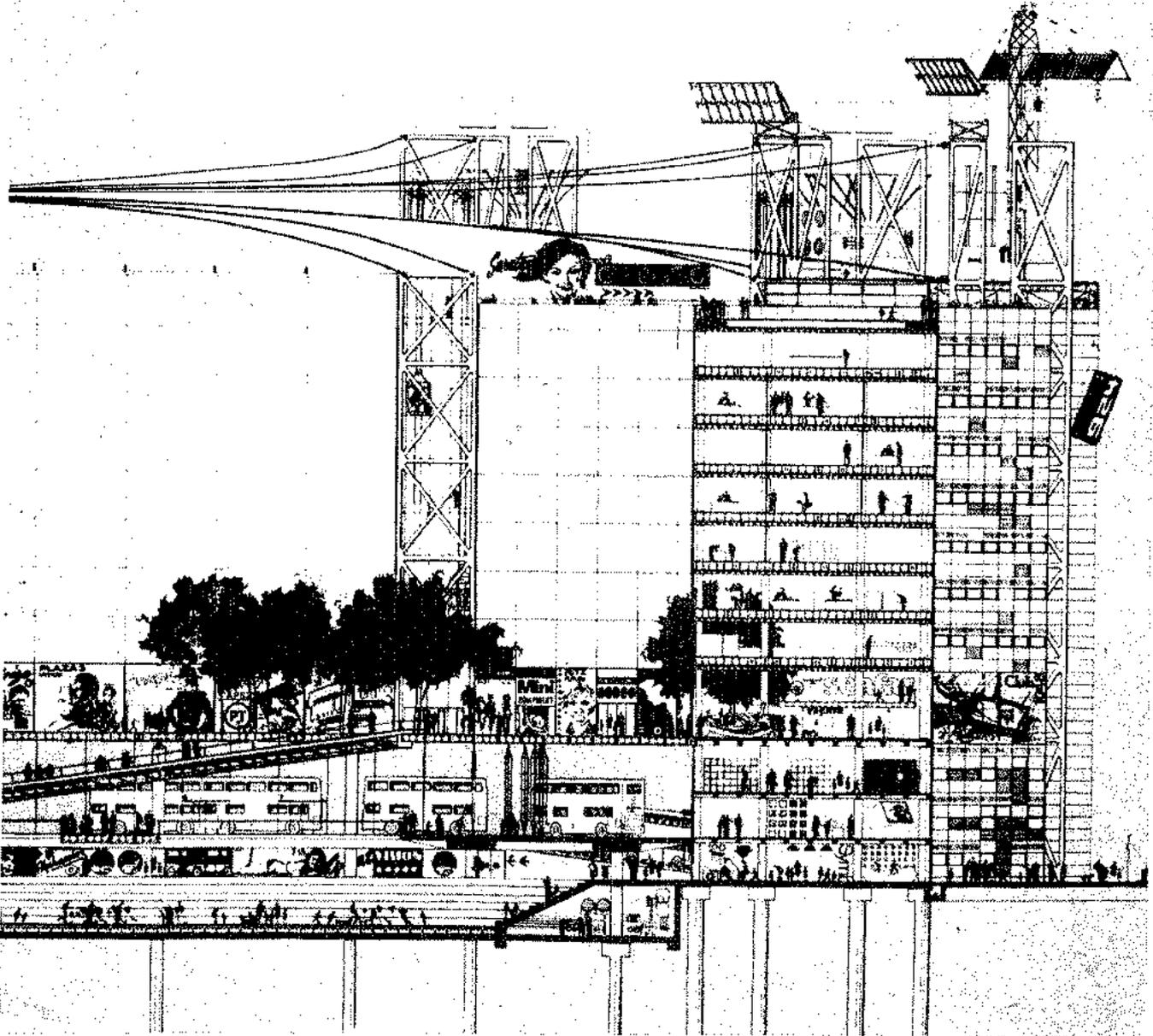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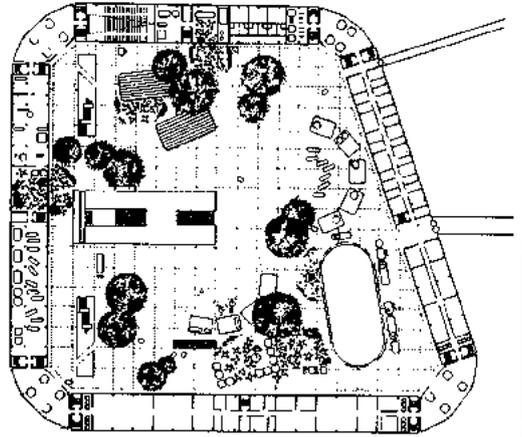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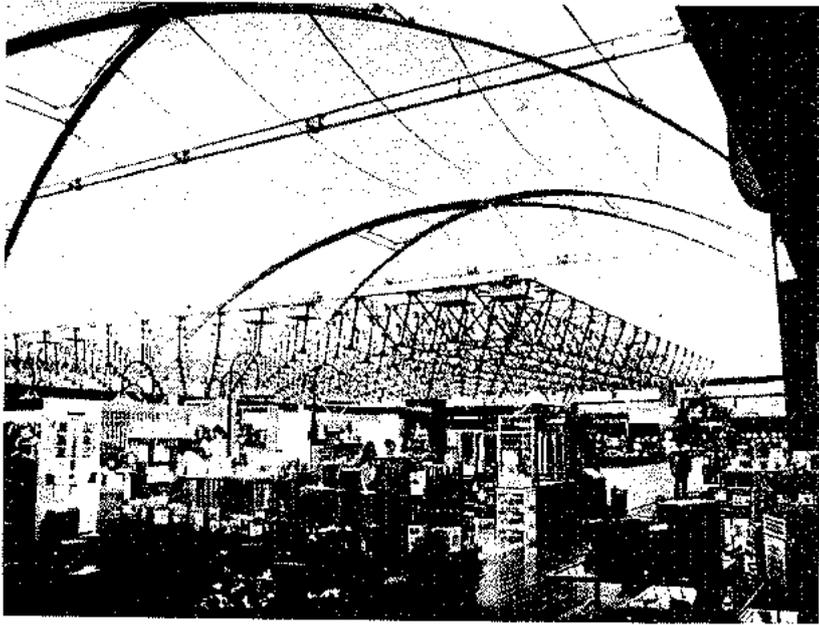
3가지 예를 이용하여 아트리움의 주광이용 가능성이 얼마나 넓은가를 살펴보자. 우선 Dean Hawkes 와 Richard MacCormac 에 의한 검토(RIBA 저널, 1978년 6월 호), 즉 주변공간을 주광으로 밝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중정 크기의 검토에서는 중정을 복수로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완전히 가운데를 향하고 있으며 중정으로부터만 조명되는 건물은 난방이나 조명에 드는 에너지가 매우 적게 든다. 등거리 접하고 있는 복수의 중정에 의한 개발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

두번째 예는 테네시주 차타누가에 있는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의 새로운 본부빌딩이다. 바닥면적 100만 평방피트로서 1979년에 Caudill, Rowlett Scott, Architects Collaborative, Van der Ryn, Calthorpe 과 Partners 에 의해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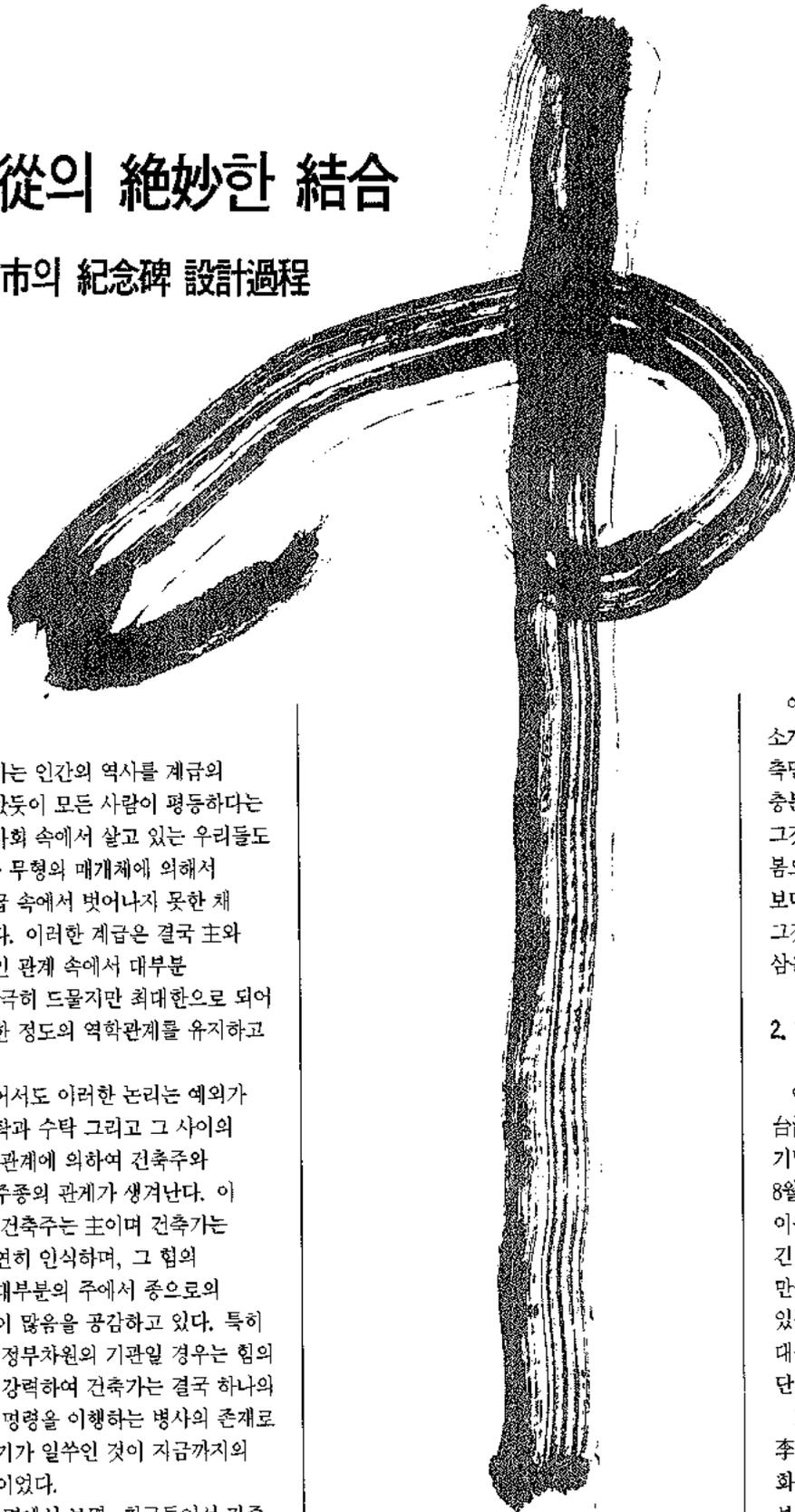
거대한 저층건물은 많은 에너지절약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고객에 대한 책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실 깊이가 긴 간막이가 없는 오픈 플로어가 채용되었고, 이것은 천상 아트리움 양쪽에 5층에서 6층으로 배치되어 있다. 빛을 모아 반사시키기 위해 주격과 같은 곡면형 바다 가장자리는 참신한 디자인 요소로써 천공광은 사무실 천장에 반사되어 배경조명의 역할을 한다. 아트리움의 지붕은 태양추미형 전동 루버에 의해 가장자리가 끊겨 있다. 태양을 추적하는 헬리오스타트와 「선 덕트」는 미국에서는 그밖에 몇 군데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면 자연광을 실 깊숙히 사입시킬 수 있으므로 실 깊이가 긴 평면계획도 가능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있는 볼록스 백화점에서는 아트리움을 특히 자연채광장치로서 도입했다. 이 백화점의 San Jose 지점(1978년)은 Virgil Carter 가 설계하고, Geiger Berger 가 구조설계를 담당했다. 18,000 평방피트의 중정은 「데프론」으로 가공된 유리섬유 布襲의 지붕이 얹혀 있고 점포의 일부로서 사용된다. 이 지역의 따뜻한 기후 덕분에 실내의 쾌적한 조건은 거의 다른 노력없이 실현된다. 그러고도 연간 18,000달러의 조명비용이 절약된다. 지붕은 단층 섬유막일 경우 빛의 투과율이 16%, 2층일 경우 7%가 된다. 이로써 중정의 바닥면 및 주변 부분에 충분한 밝기가 초래된다.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태양열은 그다지 침입하지 않으며 야간에는 인공조명 빛이 반사된다.



主從의 絶妙한 結合

台中市の 紀念碑 設計過程



韓東洙

國立臺灣大學 建築與域鄉研究所

by Han, Dong-Soo

1. 序

어느 사상가는 인간의 역사를 계급의 투쟁사로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오늘의 민주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유형·무형의 매개체에 의해서 야기되는 계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계급은 결국 主와 從의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대부분 일방적이며, 극히 드물지만 최대한으로 되어 보아야 대등한 정도의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리는 예외가 아니어서 위탁과 수탁 그리고 그 사이의 일정한 보수 관계에 의하여 건축주와 건축가라는 주종의 관계가 생겨난다. 이 경우 우리는 건축주는 主이며 건축가는 從이라고 당연히 인식하며, 그 힘의 역학관계도 대부분의 주에서 종으로의 일방적인 것이 많음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그 건축주가 정부차원의 기관일 경우는 힘의 전달이 더욱 강력하여 건축가는 결국 하나의 보조자 내지 명령을 이행하는 병사의 존재로 전락해 버리기가 일쑤인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현실이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들어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전통과 현대 - Classic 과 Modern - 의 갈등 속에서의 주종관계이다. 이 문제는 힘의 역학관계가 전자의 논리에 비해서 비교적 덜 일방적이지만 쉽사리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의 현실 속에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 작은 실례는 이 두가지 측면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것의 전체 설계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주종의 절묘한 조화점을 찾아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紀念碑設計의 背景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실례는 바로 台灣의 台中市"에 세워진 조그마한 기념비에 관한 것이다. 대중시는 1989년 8월에 台中建府 10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만에서 가장 긴 街路公園(길이 1.8km, 폭 80m)을 만들었다. 또한 대중시장 張子源은 이 의의 있는 기념일에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어 대중시민들이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단결하고 노력하는 업적을 기리려고 하였다.

1988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건축가 李長煌과 대중시 建管課 과장인 何肇禧는 화가 楚戈가 教育局을 위해서 그린 그림을 보고서, 그에게 台中建府 100주년 기념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만 중국적이고 台中적이며 현대적인 특색을 갖출 수 있는가를 묻고 그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초과는 본래 천성이 실험적인 일을 하기를 좋아하여 이 일을 해 보겠다고 승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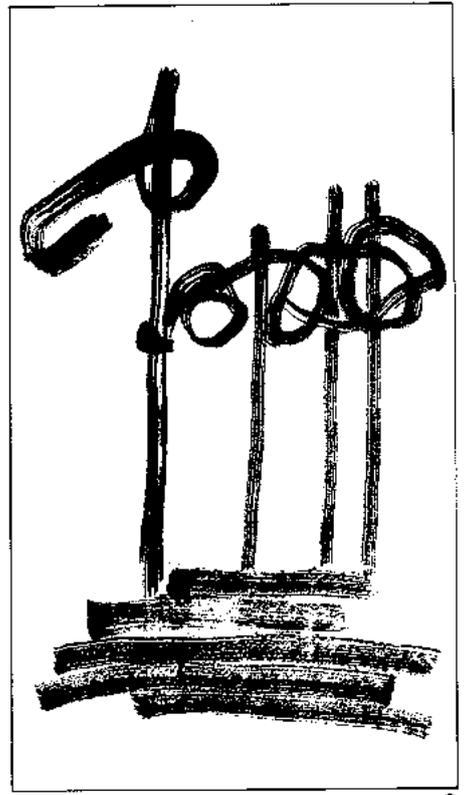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의 가능성이 있는 조형과 중국고대의 형체, 현대의 각종 人文形體를 이리저리 찾아 보았으나 적절한 실체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漢字 중에서 “中”자를 생각해 보고서 붓으로 화선지 위에 여러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하였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았으나 “中”자 본래의 의미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림1)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는 예전에 그가 草書로 “中”자를 쓸 때 자신의 조수가 자신의 筆力을 쫓아보려고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몇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떤 물건이 적절한 실체로 느껴져 곧바로 화선지 앞으로 가서 몇장의 화선지 전지 위에 초서의 중자를 그렸다. (그림2) 붓글씨는 비록 평면적이었지만 입체적이고 허공에 걸려 있는 곡선이 눈앞에 진실로 있는 듯했고 構造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믿었다. 그후 초파에게는 또 한차례의 영감이 전광석화처럼 떠올라 급히 화선지를 펴고 길게 같은 먹물로 좌측에 1개의 초서 중자를 쓰고 다시 묶은 먹물로 오른쪽에 여러개의 동그라미를 그린 뒤 3개의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탱하게 하였다. 남은 먹물로는 밑부분에 횡으로 몇개의 선을 그어 마무리하였는데 이것은 基壇을 상징하였다. (그림3) 그는 마지막으로 완성된 이 초안을 그의 친구 席慕蓉에게 보여주고 자신감을 얻은 뒤 이것을 설계초안으로



내놓기로 하고 건축가 李長煌에게 보냈다. 3일 뒤에 대중시장 張子源은 그에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故宮에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설명회는 고궁의 舊館 대회의실에서 시장 장자원, 건축가 이상황과 그의 친구들, 하과장, 그리고 대중시 易經學會의 회장, 金陵畫廊의 同仁들이 참석하여 이 기념비 설계도안의 설계이념에 대해서 듣고 토론을 가졌다.

이 설명회가 끝난 뒤 시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대단히 만족해 하고

함께 상의를 한 뒤 초과의 설계원안대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기념비의 위치에 대해서는 시당국과 초과 사이에 약간의 異見이 있었다. 그것은 시당국은 이 기념비가 가로공원의 중간지점의 한쪽 구석진 공터인 向上중학교 앞의 공터에 세우기를 원한 반면 초과는 가로공원의 입구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초과는 자신의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 기념비는 대중의 표식으로 가로공원의



입구에 위치하여야만 손님들을 맞이하고, 멀리는 自然科學博物館을 마주보게 되어 들어서 서로 상대적인 일체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공원, 문화제승의 기점이 된다고 설득하여 결국은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3. 紀念碑의 設計理念

초과가 이것의 설계에서 고려한 첫번째 것은 대중시가 그에게 委託한 것이라는 점, 두번째 목적은 建付一百周年, 세번째는 기념비적 성질을 가질 것, 네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표현한 작품으로 반드시 문화에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고려하고, 선인의 뒤를 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갖추어야 할 것 등이었다.

그는 본래 중국의 독특한 書藝예술이 현대인의 새로운 관념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전면적으로 다시 개발하고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이 기념비의 구상에서도 이러한 관념을 반영하여 초서의 “中”자를 이용한 설계에 기초를 두었다.

이 기념비에서 사용된 “中”자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대중의 “中” 즉 지방의 標誌를

상징하며, 允執厥中的 “中”인 대중의 영원한 발전과 안정을 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華民族에서의 “中”으로 중화민족이 날로 새롭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체적인 “中”자의 우측에는 연속으로 교차하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의 “0”으로서 一, 一, 一에서 점차 증가하여 무궁함에 이르러 대중시가 영원히 발전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상징한다.

대개 기념비 조각은 높고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원칙으로 이 기념비도 비례상으로 볼 때는 높은 편이다. 주체적인 초서의 “中”자와 공중에 매달려 돌아가는 곡선은 연속으로 상승하는 神龍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상징하며 추상적인 구조와 현대적인 조형, 그리고 전통적인 “中”자의 부호는 전통문화와 현대관념이 서로 융합됨을 상징한다.

전체 조형에 대해서 대중의 자연과학박물관 관장인 漢寶德 관장은 이 조각기념비를 보고 나서 “마치 어른 한 명이 여러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長幼有序的 중국윤리사회가

바로 이와 같다고 평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무리의 군중들이 모여서 그들의 정신적인 단결을 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초과는 장시장의 요구로 이 기념비가 위치하는 가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그의 구상을 이야기 하였다. 그는 이 가로공원이 조각공원 방식으로 중국 7천년이래의 龍의 成長史를 묘사해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전체공원을 연대에 의거하여 신석기시대, 商周, 춘추전국, 진한, 육조, 수당, 송원, 명청의 8개 단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형태의 용을 청동, 석재, 스테인레스를 써서 혹은 입체로, 혹은 부조로 표현하고 최후의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탄생되지 않은 民國時代의 용을 전 중국(대륙, 대만을 통털어서)에서 흥미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설계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하여 이 공원의 맨 마지막에 놓도록 한다는 계획을 진의 하였다.

4. 紀念碑의 構造

이 기념비의 규모는 높이가 15~16m에

① 台中紀念碑 전경(배면부)

오른쪽에 중국전통복장을 한 사람이 설계자 楚戈

② 草書「中」字의 설계원안(一)

③ 설계원안(二)

④ 설계원안(三)

⑤ 기념탑 상세

⑥ 하부에서 올려다본 양각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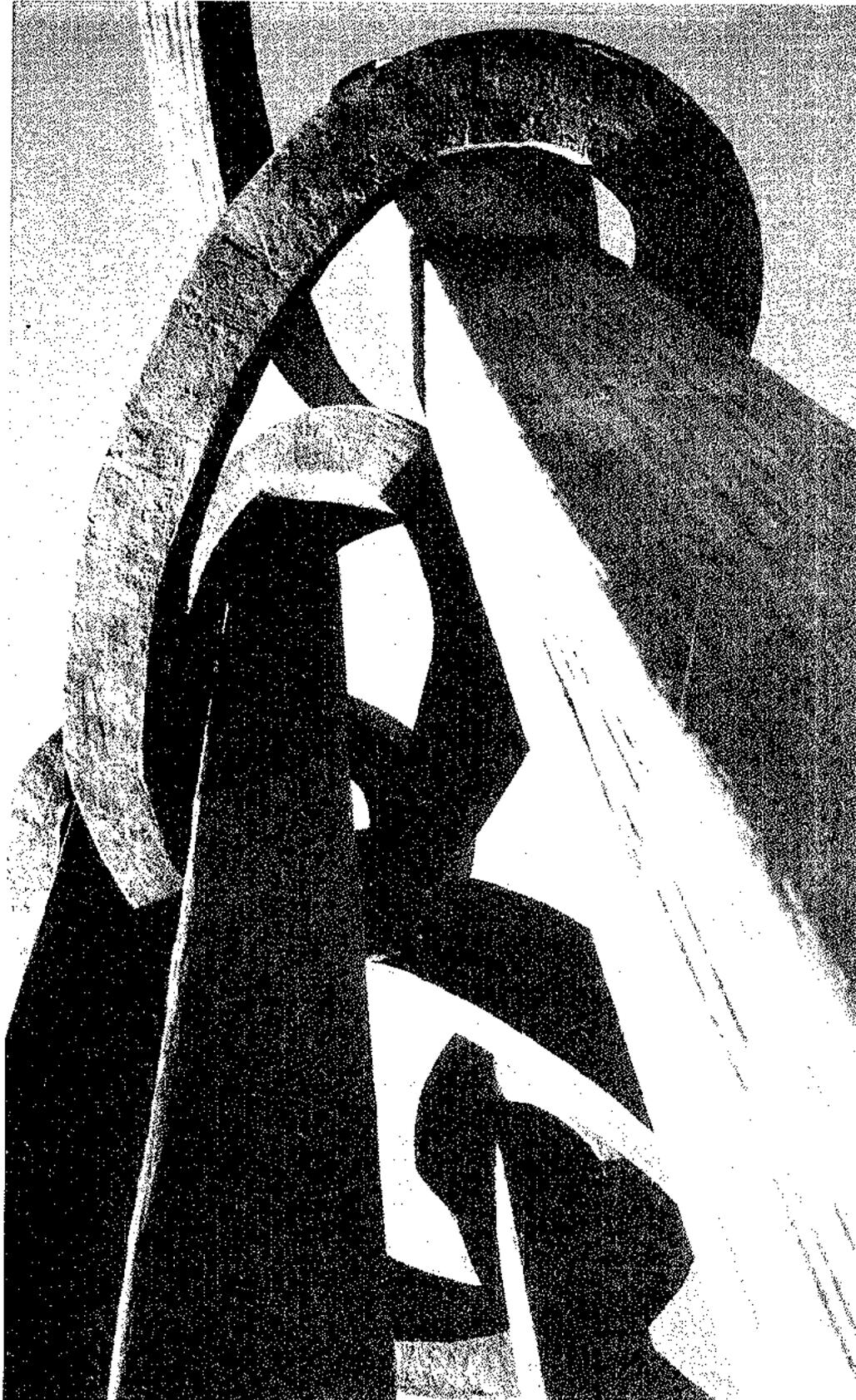
이르고 재료는 청동을 사용하였으며 내부에는 鋼構造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조각의 내부구조는 대략 1.65cm 두께의 강철상자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중앙은 비어있고 靑銅鑄片을 겹겹히 붙여 마치 걸옷을 입힌 것과 같이 처리하였다. 그 외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곡선은 모두 하나씩의 支柱가 있고 곡선의 기울기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단지 가장 주체가 되는 곡선의 무게는 약 3톤에 이르러 기중기를 써서 들어올린 채로 용접을 하였는데 그 난이도가 상당히 커서 초과는 하루종일 그것을 지휘, 감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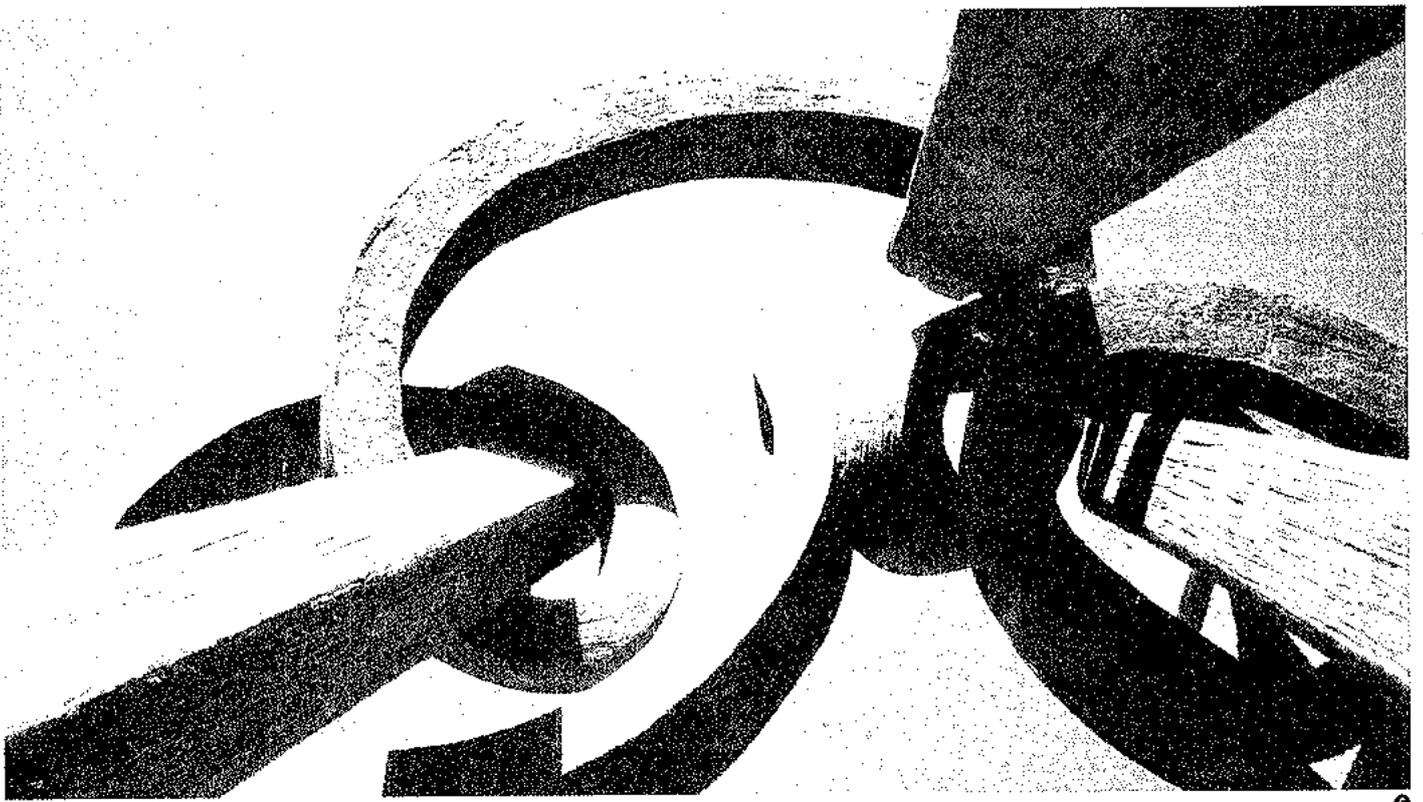
이렇게 완성된 이 기념비의 건립을 위해서 그는 처음에 원안과 같은 작은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여 제작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확대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톤의 무게를 갖고서 허공에 매달려 자유자재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기념비의 工程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로 고심하던 그는 構造工程師인 葉先生의 소개로 자연과학박물관 관장인 한보덕의 동생 漢寅德을 알게 되었다. 그는 초과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 기념비의 내부구조공정 설계를 맡았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기념비의 건립을 위하여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하나의 모범되고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 이리하여 1989년 8월 27일 오전 10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중시 건부 100주년 기념탑이 정식으로 준공식을 보았다.

註)

1)台中市: 대중시는 대만의 중부에 위치한 제3의 도시로서 약 3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明末 淸初에 漢人이 처음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고 淸 乾隆 元年에 이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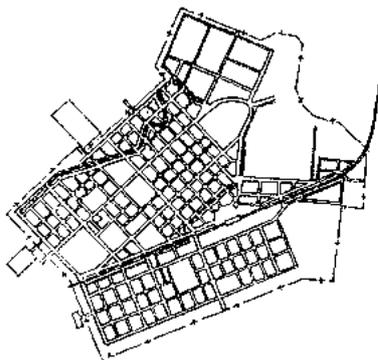


대규모의 漢人이 이주하여 농업 위주의 도시로서 성장하였다. 1945년 대만 광복후에 대중시는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49년~1950년 대륙에서부터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오면서 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시가지 주변의 하천을 따라서 불량 불법건축의 증가를 가져왔고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대중시의 최초 도시계획은 1908년에 이루어졌고 그후 1954년 대중시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공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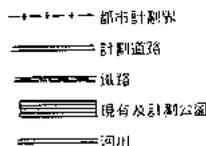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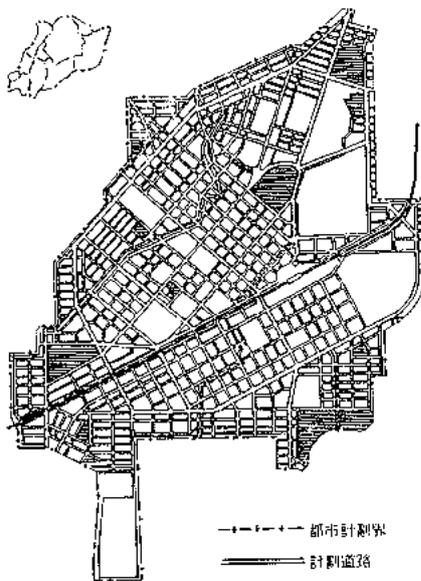


光緒年間의 台中市

2) 楚戈: 이 조각의 설계자 초과는 본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본명은 賈德屺이다. 1931년 중국의 湖南省 汨羅縣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詩와 회화에 몰두하였고 1952년 폴 클레이 작품을 처음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추상화에 몰두하였으며 1956년 중국시인들의 현대화운동에 가담하여 1957년부터 중국인론을 통해 이 운동의 주장을 역설하였다. 1965년부터 대북의



1908년에 실시된 台中市 최초의 도시계획도



1954년에 공포된 台中市 도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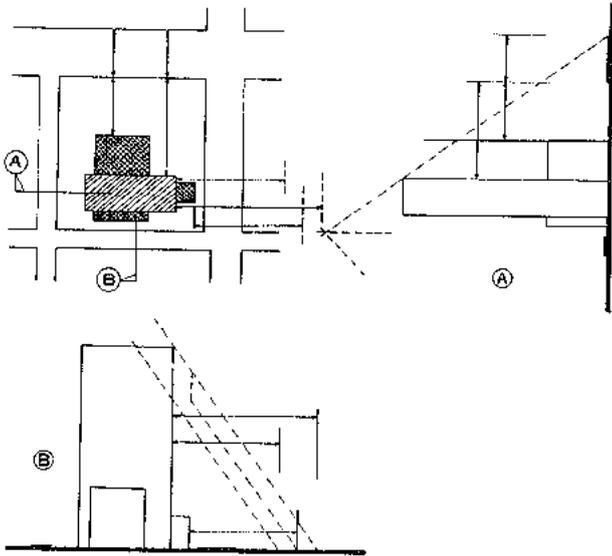
중국문화대학에서 美學과 中國文化概論을 가르쳤고 1967년부터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대청동기의 미적인 동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는 예술을 주제로 한 에세이, 문집, 시집, 문화평론 그리고 중국예술을 소재로 한 40여편의 수필을 썼다. 화가인 그는 10여차례에 걸친 국내의 작품전에 출품한 적이 있고 한국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두번이나 참여를 하였다. 1979년과 1981년에 대북의 版畫家畫廊은 그의 수묵화와 조각작품, 자기류를 가지고 개인 전람회를 열었으며 1985년 대북의 New Aspect Gallery에서 열린 시화전, 1986년 홍릉예술센터에서 열린 대북현대미술전에도 각각 출품을 했었다. 또한 1986년 프랑스 메르사이유에서 있었던 전통중국회화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전시회 및 198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7인의 예술가를 기념하는 전시회에도 출품했던 경력이 있다. 현재 그는 고궁박물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畫法을 이용한 전통적인 개념의 조각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으며 다수의 작품이 제작 중에 있다. 특히 금년도에 들어서 프랑스의 조각 공원에도 이와같은 개념을 바탕에 둔 그의 작품이 제작중에 있다.

3) 漢寶德: 대만에서 현재 제일가는 중국건축연구가로서 대만의 건축언어를 이용한 건축설계작품도 다수 있다. 국립대만대학 건축과 성향연구소의 겸임교수로 출강하여 중국 건축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대중시 자연과학박물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明·清建築二題」와 「斗拱의 起源」이 있고 대표적인 건축블로는 중앙연구원의 민족학연구소 건물이다.

◎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의 적용방법은?

□ 질의요지

단일건물이 다음과 같이 저층부와 고층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면도로에 의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도로폭은?



●甲說: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고층부 C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C")

●乙說: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저층부 B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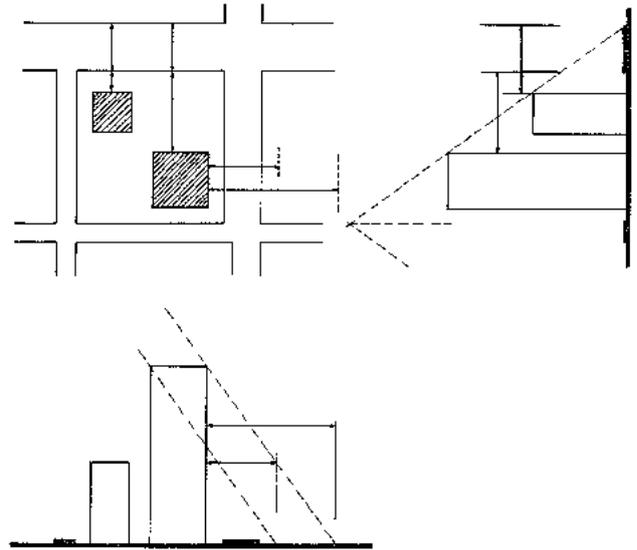
●丙說: 단일건물이더라도 고층부의 이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甲說과 같고 저층부의 사선제한은 乙說과 같이 별도로 해석한다.

□ 회신내용

고층부의 사선제한을 받는 이면도로의 폭은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넓은 도로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인 A+B(귀 질의의 乙說)임.

□ 질의요지

단일대지내에 다음과 같이 저층건물과 고층건물의 2동을 건축하는 경우, 이면도로에 의한 고층건물의 도로사선제한을 위한 도로폭은?



●甲說: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고층부 C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C")

●乙說: 가장 넓은 A도로폭과 건축물이 후퇴한 저층부 B폭을 합한 폭을 이면도로에 적용한다. (즉 이면도로 고층부 사선제한을 위한 폭은 "A+B")

□ 회신내용

단일대지내에 고층부와 저층부의 2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사선제한을 받는 명확한 법령조항은 없으나, 도로사선제한의 법 취지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과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장 넓은 도로의 방향으로 저층부와 고층부가 겹치지 아니하고 저층부와 고층부 사이의 통로가 3이상일 경우 고층부의 사선제한은 A+C(귀 질의의 甲說)가 되며, 그렇지 않을 때는 A+B(귀 질의의 乙說)가 됨.

제4차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88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아시아 및 유럽지역 16개국에서 800여 국내의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3차아시아건축사대회(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3)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아시아 지역 회원국간의 단합과 우의 증진 및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이며, 금년에는 9.27~10.3일까지 제4차아시아건축사대회(4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4)가 불교의 성지인 인도에서 '건축과 환경'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건축과 환경'이라는 주제는 인구문제와 천연자원의 고갈문제, 그리고 서민 주거지의 부족문제 등이 건축사의 합리적인 설계와 운영등을 통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대륙으로서 다양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금번 대회주제가 우리 건축사들에 의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토론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 뜻깊은 행사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대회를 전후로 하여 인근 도시의 유명 건축물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 여행기간 : '90. 9. 27~10. 4(7박 8일)
- 방문도시 : 인도(델리, 아그라, 카쥬라호, 바라나시)
- 참가인원 : 15명 이상
- 참가지역 : 전 회원(가족동반 가능)
- 여행경비 : 1,965,000원(대회 등록비 포함, 여권인지대 및 소양교육비 별도)
- 신 청 금 : 500,000원(여행경비의 일부금으로 반환치 않음)
- 신청마감 : '90. 7. 31일(본 협회 총무부 : 581-5711~4)

일 정 표

구 분	일 자	행 선 지	방문도시	숙박 호텔
제1일	9.27 (목)	서울출발-동경경유-델리도착 호텔 Check in	델 리	아속 호텔 (1st class)
제2일	9.28(금)	제4차아시아건축사대회 참석 주 제 : 건축과 환경		
제3일	9.29(토)			
제4일	9.30 (일)	델리 출발-아그라 도착, 타지마할, 아그라포 트(고성), 사칸드라, 카스하말등 관광	아 그 라	칸데라 호텔 (1st class)
제5일	10. 1 (월)	찬드라 사원, 칸다리아 사원, 배니사가 댐, 치 트라굽타 사원 등 관광	아 그 라 카쥬라호	크락스 호텔 (1st class)
제6일	10. 2 (화)	녹야원, 렌나가포트, 갠지즈강 등 관광 바라나시 출발-델리 도착	카쥬라호 바라나시 델 리	삼란트 호텔 (1st class)
제7일	10. 3 (수)	굽타미널탑, 래드포드, 인디아 게이트, 잔타 만타등 관광 델리 출발-서울향발	델 리	기내숙박
제8일	10. 4 (목)	동경 경유-서울 도착	동 경 서 울	

新入會員

NEWLY ADMITTED MEMBER



昔孝一(54年)
부산공대 건축공
성립건축(종합)
울산 남구 신정 176-5
71-0411



韓東民(55年)
안양공고 건축
동화·영조건축
경기 안산 고잔 531-5
85-9802~3



權錫兌(59年)
한양대 건축공, 서울대대학원
아인건축
서울 송파 석촌 213-3
417-1124



李昶九(59年)
건국대, 同대학원 건축공
소솔·터건축
서울 성동 자양 628-25
446-1098



金仲燮(48年)
연세대 건축
청건축
서울 송파 인사 131
732-8609



李萬出(55年)
한양대 건축
머릿돌(종합)
서울 강남 포이 238-9
573-9505



曹文松(55年)
전남대 건축공
환경(종합)
광주 서구 농성 661-28
361-5960



林德洙(56年)
전남대 건축
환경(종합)
광주 서구 농성 661-28
361-5961



林大煥(58年)
전남대 건축
환경(종합)
광주 서구 농성 661-28
361-5960~2



申承雨(54年)
대구공고 건축
대일건축
경북 달성 415-6
633-0330



陳達高(36年)
삼척공고 토목
수건축
서울 중랑 면목 607-23
496-8858



姜錫厚(58年)
단국대 건축공
가가건축
서울 강동 성내 455-13
488-9320



李憲洙(24年)
한양대 건축공
우남건축
서울 영등포 당산 278-2
635-0128



宋炯錫(54年)
한양대, 同대학원 건축공
보성건축
서울 관악 신림 1570-3
859-0825



朴載成(54年)
부산광역시공고 건축
우신건축(종합)
경남 창원 용호 73-60
61-1001



馬春榮(55年)
부산공대 건축
우신건축(종합)
경남 창원 용호 73-60
61-3100~2



朴在玄(56年)
영남공진 건축
성립건축(종합)
울산 남구 신정 176-5
71-0411



梁今植(57年)
서울산업대 건축
성동·대원·성수·유창(종합)
서울 성동 자양 220-149
446-7790



金東勳(55年)
홍익대 건축
진우건축
수원 권선 인계 1044-21
39-8120~1



朱榮正(59年)
연세대, 同대학원 건축공
주·예건(종합)
서울 서대문 충정로3가 368
362-3116



金琰德(58年)
건축대, 홍익대학원 건축공
세진아트건축
서울 강남 신사 549-7
511-7589, 0329



金德秀(52年)
단국대 건축공
주·우보엔지니어링(종합)
서울 강남 논현 210-1
549-6011



李成萬(57年)
경기개발대 건축
예공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828-8
574-5288



4월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 4월분 9백67만5백69㎡보다 36.23% (3백50만3천9백21㎡) 증가한 1천3백17만4천5백17㎡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4월 누계 3천1만3천5백44㎡보다 41.81% (1천2백54만7천7백81㎡) 증가한 4천2백56만1천3백25㎡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월비
3월분 1천3백65만9천2백87㎡보다 3.55% (48만4천7백70㎡) 감소한 1천3백17만4천5백1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 (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812,315	2,469,078	656,763	36.24%
	부산지부	835,820	1,044,367	208,547	24.95%
	대구지부	389,890	449,791	59,901	15.36%
	광주지부	313,066	364,295	51,229	16.36%
	대전지부	187,381	910,506	723,125	385.91%
	경기지부	1,945,785	3,146,873	1,201,088	61.73%
	강원지부	430,162	457,387	27,225	6.33%
	충북지부	318,441	460,857	142,416	44.72%
	충남지부	220,368	519,213	298,845	135.61%
	전북지부	371,349	500,962	129,613	34.90%
	전남지부	267,170	502,378	235,208	88.04%
	경북지부	579,638	648,960	69,322	11.96%
감소지역	인천지부	590,249	512,445	(77,804)	-13.18%
	경남지부	1,283,788	1,101,740	(182,048)	-14.18%
	제주지부	125,174	85,665	(39,509)	-31.56%
합계	9,670,596	13,174,517	3,503,921	36.23%	

全國圖書申告 概況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별	3월말	4월말	증·감	비율(%)
단독주택	2,445,127	2,280,772	(164,355)	-6.72%
다세대주택	765,864	469,222	(296,642)	-38.73%
연립주택	229,551	195,912	(33,639)	-14.65%
아파트	3,729,446	4,395,162	665,716	17.85%
근린생활시설	3,199,581	2,798,534	(401,047)	-12.53%
종교시설	95,749	99,945	4,196	4.38%
의료시설	35,124	20,581	(14,543)	-41.40%
교육연구시설	314,857	142,896	(171,961)	-54.62%
업무시설	803,695	757,984	(45,711)	-5.69%
숙박시설	381,427	387,088	5,661	1.48%
공장	1,165,362	1,023,446	(141,916)	-12.18%
기타	493,504	602,975	109,471	22.18%
계	13,659,287	13,174,517	(484,770)	-3.55%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4月分)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5,249	5,342	2,358,896	162	168	110,182	0	0	0	5,411	5,510	2,469,078
부산지부	1,594	1,898	969,009	520	579	58,388	41	41	16,970	2,155	2,518	1,044,367
대구지부	1,121	1,164	407,116	448	472	37,875	30	30	4,800	1,599	1,666	449,791
인천지부	877	1,007	468,301	73	95	29,456	15	29	14,688	965	1,131	512,445
광주지부	494	526	321,938	187	201	38,809	15	15	3,548	696	742	364,295
대전지부	333	448	874,793	60	60	16,366	88	89	19,347	481	597	910,506
경기지부	3,974	4,371	2,950,244	304	332	151,124	79	79	45,505	4,357	4,782	3,146,873
강원지부	698	834	416,497	159	174	36,671	23	23	4,219	880	1,031	457,387
충북지부	783	911	390,371	165	175	33,516	41	41	36,970	989	1,127	460,857
충남지부	579	640	456,728	143	143	58,124	26	26	4,361	748	809	519,213
전북지부	561	656	458,352	110	119	28,315	30	30	14,295	701	805	500,962
전남지부	696	787	452,373	212	232	41,534	10	10	8,471	918	1,029	502,378
경북지부	1,045	1,205	505,278	347	386	131,713	31	31	11,969	1,423	1,622	648,960
경남지부	1,729	1,946	973,493	443	500	116,618	37	39	11,629	2,209	2,485	1,101,740
제주지부	270	298	73,196	70	71	12,469	0	0	0	340	369	85,665
합계	20,003	22,033	12,076,585	3,403	3,707	901,160	466	483	196,772	23,872	26,223	13,174,517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0,891	21,185	8,665,751	462	482	288,201	0	0	0	21,353	21,667	8,953,952
부산지부	4,695	5,730	4,009,390	1,134	1,259	222,167	209	219	162,935	6,038	7,208	4,394,492
대구지부	3,731	3,888	1,537,090	1,204	1,273	173,257	123	123	31,973	5,058	5,284	1,742,320
인천지부	2,965	3,435	2,065,067	213	300	85,043	89	118	42,383	3,267	3,853	2,192,493
광주지부	1,560	1,757	1,306,774	550	594	97,759	62	62	22,427	2,172	2,413	1,426,960
대전지부	1,765	1,896	1,479,921	204	204	53,177	271	272	68,979	2,240	2,372	1,602,077
경기지부	13,854	14,903	8,035,863	974	1,081	458,722	318	318	235,593	15,146	16,302	8,730,178
강원지부	1,917	2,278	1,430,154	455	520	144,805	72	76	16,932	2,444	2,874	1,591,891
충북지부	2,559	2,894	1,026,344	432	485	243,834	127	132	64,281	3,118	3,511	1,334,459
충남지부	1,822	1,937	1,237,830	400	406	165,408	87	87	20,534	2,309	2,430	1,423,772
전북지부	1,603	1,832	1,163,066	362	404	110,735	105	105	28,343	2,070	2,341	1,302,144
전남지부	2,040	2,382	1,378,271	652	749	192,397	52	52	23,532	2,744	3,183	1,594,200
경북지부	3,166	3,667	1,621,641	917	1,017	394,311	110	110	93,075	4,193	4,794	2,109,027
경남지부	5,186	5,900	3,359,474	1,406	1,565	388,224	148	150	115,791	6,740	7,615	3,863,489
제주지부	871	975	272,933	172	175	26,938	0	0	0	1,043	1,150	299,871
합계	68,625	74,659	38,589,569	9,537	10,514	3,044,978	1,773	1,824	926,778	79,935	86,997	42,561,325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4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11,255	11,441	2,143,760	1,861	1,941	132,800	68	68	4,212	13,184	13,450	2,280,772
다세대주택	1,622	1,728	461,298	116	117	7,670	9	9	254	1,747	1,854	469,222
연립주택	104	121	193,521	2	3	2,264	1	1	127	107	125	195,912
아파트	236	1,175	4,379,508	5	10	14,181	2	3	1,473	243	1,188	4,395,162
근린생활시설	4,998	5,066	2,598,761	614	622	140,970	222	222	58,803	5,834	5,910	2,798,534
종교시설	101	118	59,345	59	66	15,580	8	10	25,020	168	194	99,945
의료시설	6	6	5,416	15	18	12,476	5	5	2,689	26	29	20,581
교육연구시설	26	30	78,240	59	69	58,285	21	21	6,371	106	120	142,896
업무시설	241	255	686,669	60	62	57,600	8	8	13,715	309	325	757,984
숙박시설	133	141	357,192	32	33	11,409	12	12	18,487	177	186	387,088
공장	542	965	699,096	248	341	285,370	50	56	38,980	840	1,362	1,023,446
기타	739	987	413,779	332	425	162,555	60	68	26,641	1,131	1,480	602,975
합계	20,003	22,033	12,076,585	3,403	3,707	901,160	466	483	196,772	23,872	26,223	13,174,51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4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6,938	37,438	6,678,360	4,558	4,690	339,585	173	173	12,191	41,669	42,301	7,030,136
다세대주택	6,865	7,239	1,869,306	471	474	35,723	22	22	1,521	7,358	7,735	1,906,550
연립주택	329	489	600,075	6	8	3,873	3	3	281	338	500	604,234
아파트	801	3,305	12,921,121	42	61	140,900	9	10	13,729	852	3,376	13,075,750
근린생활시설	17,982	18,293	8,940,493	1,907	1,947	421,792	874	881	280,936	20,763	21,121	9,643,221
종교시설	334	385	216,611	183	211	67,596	21	23	26,549	538	619	310,756
의료시설	30	34	58,609	33	39	33,789	16	16	12,826	79	89	105,224
교육연구시설	119	177	343,358	171	215	284,621	113	119	41,262	403	511	669,241
업무시설	705	733	2,121,979	183	190	175,199	35	35	30,358	923	958	2,327,536
숙박시설	442	482	1,019,887	102	105	37,534	48	48	150,246	592	635	1,207,667
공장	1,804	3,090	2,523,729	898	1,350	1,061,715	203	220	261,534	2,905	4,660	3,846,978
기타	2,276	2,994	1,296,041	983	1,224	442,646	256	274	95,345	3,515	4,492	1,834,032
합계	68,625	74,659	38,589,569	9,537	10,514	3,044,978	1,773	1,824	926,778	79,935	86,997	42,561,325

理事會 開催

本協會 '90 제4회 理事會가 지난 30일(수)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건의등 주요 부의안건을 협의하였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제5회 理事會를 개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第4回 理事會〉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 '91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朴成圭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부위원장에 박영희이사, 위원은 본부임원 증장성진, 강태석, 김정수 이사를 선임하고 서울지부 7명, 부산지부 3명과 각 지부별 2명씩의 위원은 지부별로 선임키로 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 2백만호 주택선설축진을 위한 건설부의 다가구주택 처리지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개정(안)을 건설부에 제출키로 함.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1/3 범위 안에서 건축사를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정북방향에서의 일조권 높이 제한시 높이의 1/4 띄우는 대상을 2층이하 높이 8m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에서 4층이하 높이 13m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에 부합토록 하였다.

◆에비비사용 승인

- 경조비 지급액의 현실화(제3회 이사회 개정) 및 경조사항증가에 따른 경조비 예산부족 등에 따른 에비비 사용을 승인

◆상근부회장 선임

- 金基壽 상근부회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현 건설부 국립지리원 鄭淳虎원장을(1939년생) 2년임기의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第5回 理事會〉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승인

- 건축사의 창작활동 범위 및 건축행정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의 불합리 부분을 개선하고 업무 한계별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설부에 건의키로 함.

특히 이 개정(안)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를 단독의 경우 30층이하, 연면적 20만㎡미만으로, 종합의 경우 1인 3층이하 연면적 20만㎡, 2인 31층이상 연면적 20만㎡이상, 3인 41층 이상 연면적 3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였고 공사감리업무의 대상 및 방법, 확인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한계의 모호성을 없애는 한편 건축사청문제도의 보완장치로서 건축사 심사위원회를 설치, 건축사의 행정처분에 신중과 공정성을 도모토록 건의키로 했다.



제5회 理事會

제4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

'90년도 제4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가 宋基德회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지부회장 및 姜基世, 李春相 연금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목) 개최되어 건축사연금기금 증식방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부회장회의 협의사항〉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협의-(理事會 참조)

◆지부회장 건의서에 대한 협의 - 각 지부회장들이 건의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요청등의 건의에 대하여 이사회 등에서 토의된 개정건의(안)에 적극

수용하는 등, 건축설계 보수요율 인상 및 각 부처간 일원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의 업무한도 등의 조정, 건축사 소득표준을 인하, 대학교수들의 수주활동 방지 등 건의사항의 처리내용을 검토, 협의함.

〈건축사연금운영위원회 안건〉

◆건축사연금기금증식방안 건의에 대한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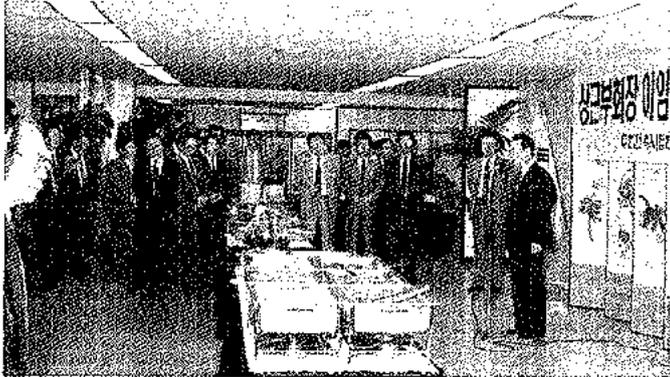
- 현행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예약되어 있는 연금기금을 예약기간이 만료되는 순서대로 "특정금전신탁예금"으로 전환 예치하고 신규수납 연금회비는 제2금융권(단자회사)의 "자유금리기업어음(CP)"으로 예약키로 함.

金基壽 상근부회장 離任式

지난 '82년 5월부터 8년간 本協會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金基壽부회장의 離任式이 지난 7일 宋基德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2층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8일자로 임기만료된 金基壽부회장은 그동안 本協會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김기수부회장 이임식



서울特別市支部(會長 李永熙)

敬老少宴 개최

서울지부(회장 李永熙)는 지난 5월15일 경로주간 및 어버이날을 맞아 敬老孝親상을 고취하기 위해 역대지부회장과 추대

회원 40여명을 초청, 우이동 소재 옥류정에서 경로소연을 개최하였다.



서울지부 경로소연

회원친목 단합대회 및 낚시대회

서울지부(회장 李永熙)는 회원 취미활동과 상호 친목을 돈독히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소속회원 1백20여명 및 지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충남 온양 충무유원지에서 회원친목 단합대회

및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낚시대회에서는 22.7cm를 낚은 김관풍 회원(서울 삼미건축)이 장원을 차지하였으며 장기자랑등 여흥이 함께 베풀어졌다.



서울지부 회원친목 단합대회

서울지부 회원친목 바둑대회



서울지부 회원친목 바둑대회

서울지부 소속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해 개최된 회원친목 바둑대회가 지난 18일 협회 2층에서 개최되었다.

84년부터 계속되어 온 본 바둑대회는 분소대항 단체전과 1~2급이상 A조, 3~4급 B조, 5급이하 C조의 개인전으로 치루어

졌는데 단체전은 서초분소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A조에서는 정종섭회원(환경건축)이 B조 홍영표 회원(예림환경건축), C조 이영필회원(영인건축)이 각각 우승하여 트로피와 부상을 수상하였다.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漸)

회원 퇴임행사 실시

光州지부(회장 宋良漸)는 지난 5월 3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김태만회원(한길건축)의 퇴임행사를 개최하여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동안 지부발전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노력한 공을 치하하

였다.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이기도 한 김태만회원은 연금시행세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연금을 수혜하게 된다.

광주지부 회원 퇴임행사





대전지부 제2회 회원직품전

大田直轄市支部(會長 康祐植)

제2회 大田建築士會員展 개최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고양과 大田지부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제2회 大田建築士會員展이 지난 5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대전 MBC 문화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 이번 진시회는 연인원 1천9백여 명이 관람하여 대전지역 건축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경기지부 간담회 개최

京畿道支部(會長 李一潤)

대관청 연석 간담회 개최

京畿지부(회장 李一潤)는 지난 22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90건축행정 건설화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회원 및 건축분야 담

당공무원들이 참석한 대관청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관련 업무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건축사보조원 친선체육대회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여수분소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재직중인 보조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12일 섬진강변 백사장에서 개최된 이날 체육대회는 관내 보조원 43명이 참가, 육상과 족구 기량을 겨루는 한편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전남지부 보조원 친선체육대회

濟州道支部(會長 李世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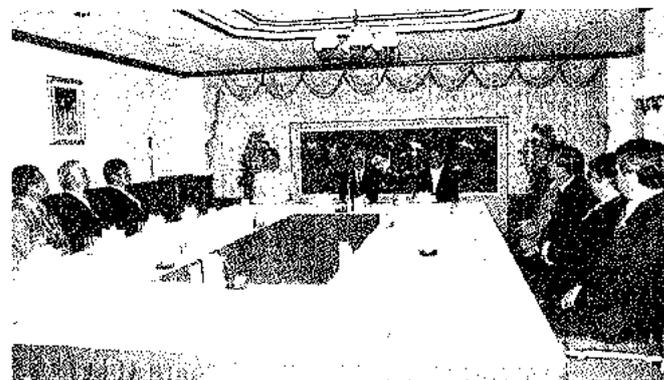
도지사초청 간담회 개최

濟州지부(회장 李世院)는 지난 5월 4일 로얄제주호텔에서 洪瑛基제주도지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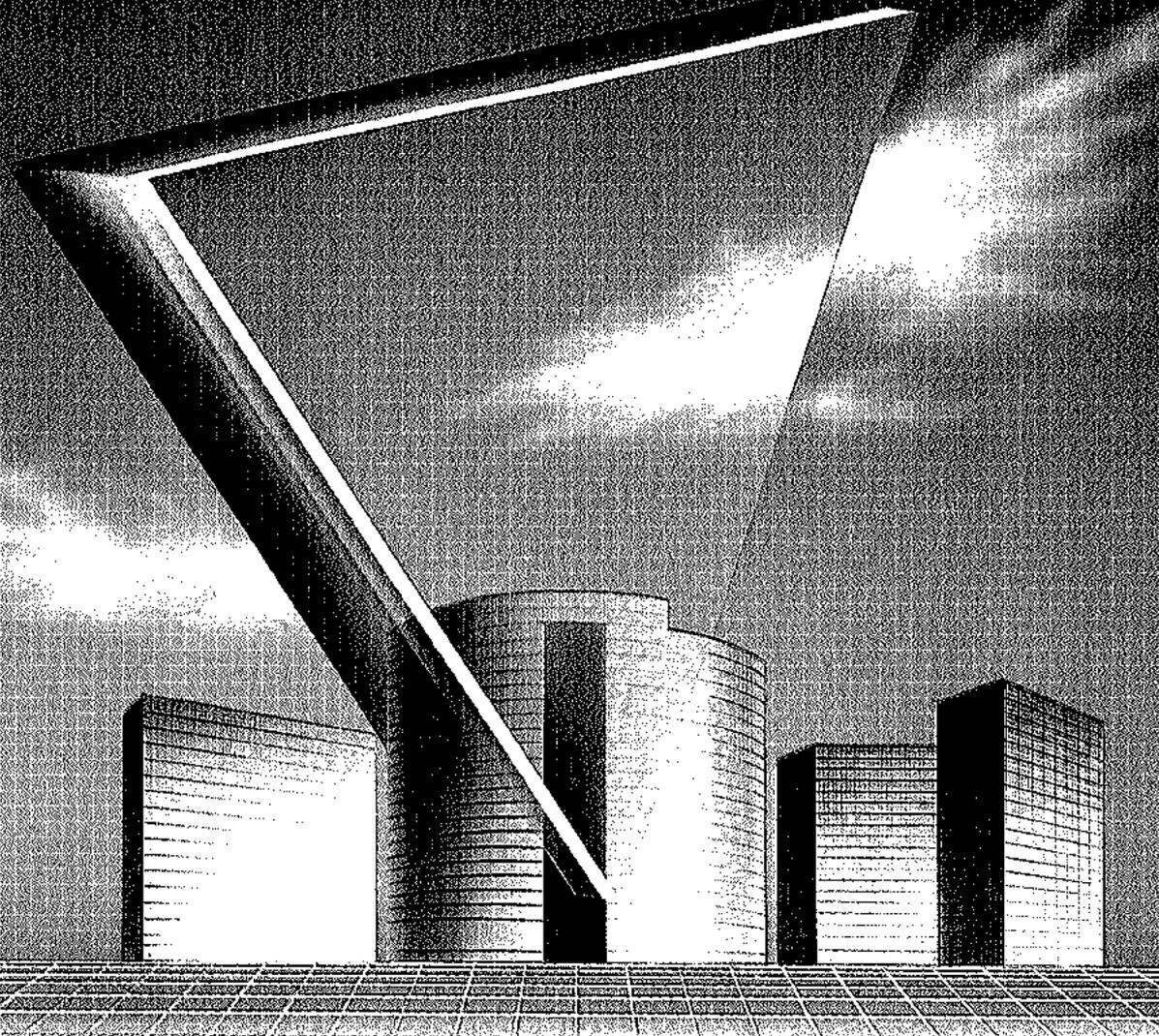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 제주도청에서 건축담당 주무공무원인 개발담당관과 도시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제주지부임원 및 역대지부회장이 참석하여 건축사업무관련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 건축관계 행정개선에 대한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지부는 제주도 및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자문위원회에 건축사의 참여폭을 확대해 줄 것과 도내 각급 관발주 설계 용역을 지부소속회원이 수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건축사를 육성 발전시켜 줄 것을 요망하여 洪瑛基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새로나온 한국유리의 Blue- 돋보입니다, 시원합니다, 멋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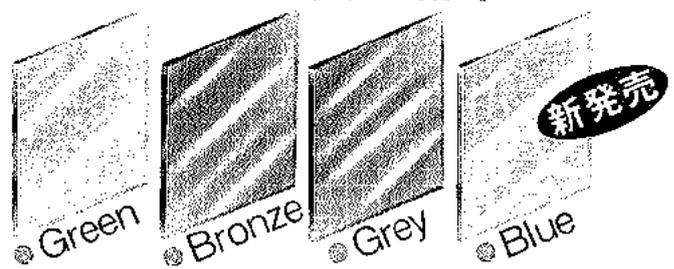
최근 선풍적으로 유행하는 블루색유리!
 외관이 칼라化되어 건물이 한층 돋보이며
 태양열의 적절한 차단효과와 블루의 청량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들의 조형美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
 건축 품위와 가치를 한결 높여주는 블루색유리!

세계 건축가들이 '환상의 색유리' 라고
 극찬하는 건축용 블루색유리를 국내최초
 한국유리가 탄생시켰습니다.

■ 블루색유리의 특징

- 돋보이는 건물의 품위
- 냉 난방비 절감
- 쾌적한 생활공간의 조성
- 자외선 차단 효과

■ 색상이 다양한 한라이트 색유리





난연성-자기소화성
(UL 규격인증)

우리는 물을 안 먹습니다.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방수성 단열재로 단열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단열재는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만 뛰어난 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가 수분을 흡수하면 단열효과를 잃게될뿐 아니라, 장시간이 경과한 후 자체중량에 의해 처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즉시 박이나 자를 열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뛰어난 방수성 단열재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불이 붙으면 3초 이내 스스로 꺼지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한남화학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발포성폴리스티렌비드(Polystyrene Beads)를 원료로 한 청색·녹색스티로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UL 규격을 인증 받을만큼 난연성이 뛰어나고, 인체에도 해가 없습니다. 불이 붙으면 3초 이내에 꺼지는 자기소화성(KSM-3808규격)이므로 화재시 안전하고, 무게가 가벼워 운반 및 시공이 간편합니다.
(국내최초로 UL94HF-1 규격인증)

한남화학이 업계 최초로 영예의 품질관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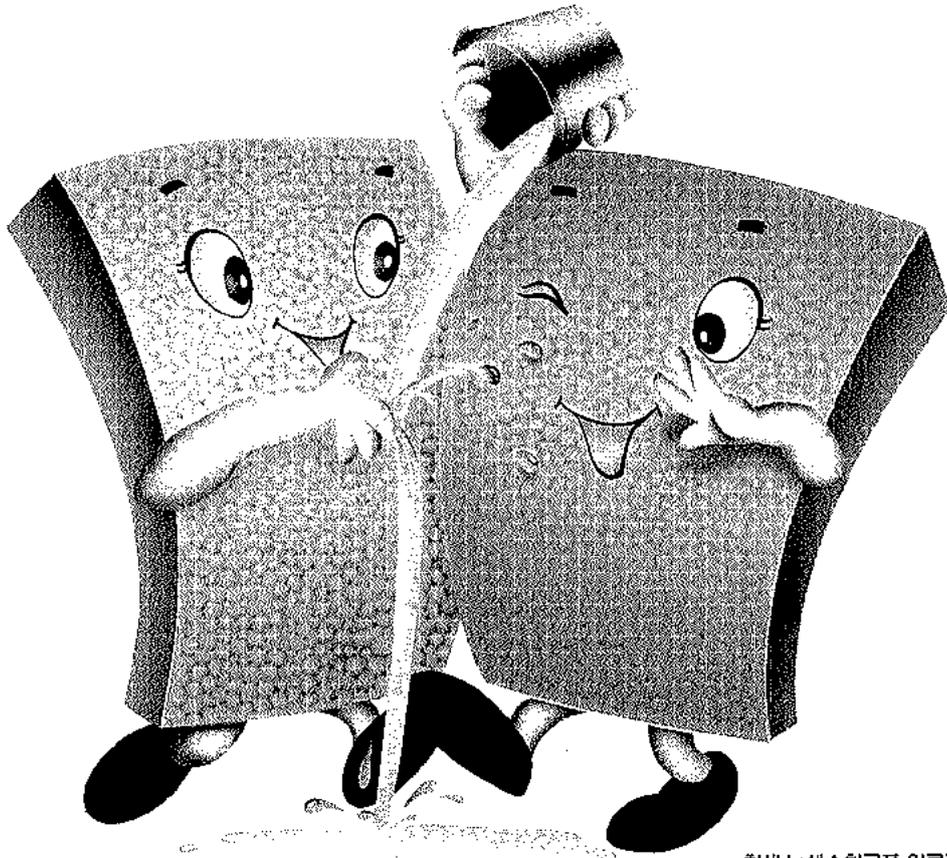
품질관리대상 수상! 이는 좋은 품질의 스티로폼만을 만들고자 애써온 한남화학의 오랜 노력의 결실일뿐 아니라, 스티로폼업계 모두의 커다란 기쁨입니다.



최고의 제품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에서 탄생됩니다. 한남화학은 앞으로도, 더욱 품질높은 청색·녹색스티로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남화학의 원료로 만든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건축용 단열재로, 백색 스티로폼은 포장재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색·녹색스티로폼



청색·녹색스티로폼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본사·영업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84-1171~9
공장 : 경남 울산시 남구 상암동 45-25 ☎ 73-1141~5